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683-01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상현(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 이명수(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이광석(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김경량(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방안 연구」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주관연구기관명: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연구책임자: 이상현(고려대 교수)

연구참여자: 이명수(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이광석(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김경량(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1. 연구범위	5
3.1. 연구방법	7

제2장. 아세안 경제 및 농업 현황

1. 아세안 국별 경제 및 농업 현황	9
1.1. 인도네시아	9
1.2. 태국	12
1.3. 필리핀	16
1.4. 말레이시아	20
1.5. 싱가포르	24
1.6. 브루나이	28
1.7. 베트남	32
1.8. 라오스	35
1.9. 미얀마	39
1.10. 캄보디아	43
2. 경제, 농업 현황 분석	48

제3장. 한·아세안 농업 교역 및 민간투자 협력 여건분석

1. 한·아세안 국별 농식품 교역 현황	51
1.1. 인도네시아	51
1.2. 태국	53

1.3. 필리핀	54
1.4. 말레이시아	57
1.5. 싱가포르	59
1.6. 브루나이	60
1.7. 베트남	62
1.8. 라오스	64
1.9. 미얀마	66
1.10. 캄보디아	67
2. 한·아세안 농축산물 교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조치	70
3. 한·아세안 민간 농업 투자 현황	71
4. 양자 교역 및 민간 농업 투자 현황 분석	72

제4장. 농업개발 협력사례 및 비교분석

1.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개발 협력 분석	75
1.1.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국가 ODA 지원현황 및 특징	75
1.2.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ODA 지원현황	76
1.3. 일본과 호주의 농업 ODA 동향과 평가	94
1.4. 한국의 농업 ODA에 대한 국제적 평가	105
2. 한국의 국제농업 개발 협력 사례분석	109
2.1. 분야별/유형별 농업 개발 협력 사례분석	112
2.2.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사례분석	131

제5장.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방안

1. 농업협력 과제와 전략 분야 발굴	139
1.1. 한-ASEAN 간의 약속 및 농업협력 과제	140

1.2. 한-ASEAN 농업협력 전략 분야.....	142
2. 분야별 농업협력 성과와 과제.....	143
2.1. 농업통상 분야(Trade)	144
2.2. 해외농업투자 분야(FDI).....	149
2.3. 농업개발 협력 분야(ODA)	154
2.4. 기타 농업협력 분야	159
3. 과제별 농업협력 확대전략	165
3.1. 농업통상 증진(Trade)	165
3.2. 해외농업투자 촉진(Investment).....	167
3.3. 농업개발 협력 개선(ODA)	169
3.4. 기타 분야 협력 확대	171
3.5. 농업협력 증장기 로드맵	172

표 차례

제1장

제2장

〈표 2-1〉 인도네시아 농업 현황.....	10
〈표 2-2〉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생산현황	10
〈표 2-3〉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	11
〈표 2-4〉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출.....	12
〈표 2-5〉 태국 농업 현황.....	13
〈표 2-6〉 태국 농축산물 생산현황.....	14
〈표 2-7〉 태국 농축산물 수입.....	15
〈표 2-8〉 태국 농축산물 수출.....	16
〈표 2-9〉 필리핀 농업 현황.....	17
〈표 2-10〉 필리핀 농축산물 생산현황	18
〈표 2-11〉 필리핀 농축산물 수입.....	19
〈표 2-12〉 필리핀 농축산물 수출.....	20
〈표 2-13〉 말레이시아 농업 현황.....	21
〈표 2-14〉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생산현황.....	22
〈표 2-15〉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입.....	23
〈표 2-16〉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출.....	23
〈표 2-17〉 싱가포르 농업 현황.....	25
〈표 2-18〉 싱가포르 농축산물 생산현황.....	26
〈표 2-19〉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입.....	27
〈표 2-20〉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출.....	27
〈표 2-21〉 브루나이 농업 현황.....	29
〈표 2-22〉 브루나이 농축산물 생산현황.....	29
〈표 2-23〉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입.....	30
〈표 2-24〉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출.....	31
〈표 2-25〉 베트남 농업 현황.....	32

〈표 2-26〉 베트남 농축산물 생산현황	33
〈표 2-27〉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34
〈표 2-28〉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35
〈표 2-29〉 라오스 농업 현황	36
〈표 2-30〉 라오스 농축산물 생산현황	37
〈표 2-31〉 라오스 농축산물 수입	38
〈표 2-32〉 라오스 농축산물 수출	39
〈표 2-33〉 미얀마 농업 현황	40
〈표 2-34〉 미얀마 농축산물 생산현황	41
〈표 2-35〉 미얀마 농축산물 수입	42
〈표 2-36〉 미얀마 농축산물 수출	42
〈표 2-37〉 캄보디아 농업 현황	44
〈표 2-38〉 캄보디아 농축산물 생산현황	45
〈표 2-39〉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입	45
〈표 2-40〉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출	46

제3장

〈표 3-1〉 우리나라의 對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동향	51
〈표 3-2〉 우리나라의 對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출동향	52
〈표 3-3〉 우리나라의 對 태국 농축산물 수입동향	53
〈표 3-4〉 우리나라의 對 태국 농축산물 수출동향	54
〈표 3-5〉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농축산물 수입동향	55
〈표 3-6〉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농축산물 수출동향	56
〈표 3-7〉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입동향	57
〈표 3-8〉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출동향	58
〈표 3-9〉 우리나라의 對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입동향	59
〈표 3-10〉 우리나라의 對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출동향	60
〈표 3-11〉 우리나라의 對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입동향	61
〈표 3-12〉 우리나라의 對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출동향	61
〈표 3-13〉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동향	62
〈표 3-14〉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동향	63

〈표 3-15〉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농축산물 수입동향	64
〈표 3-16〉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농축산물 수출동향	65
〈표 3-17〉 우리나라의 對 미얀마 농축산물 수입동향	66
〈표 3-18〉 우리나라의 對 미얀마 농축산물 수출동향	67
〈표 3-19〉 우리나라의 對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입동향	68
〈표 3-20〉 우리나라의 對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출동향	69
〈표 3-21〉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직접투자	71
〈표 3-22〉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농림어업 민간 투자(2019)	71
〈표 3-23〉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농림어업 직접투자 현황 (2019)	74

제4장

〈표 4-1〉 對 아세안, 아시아 및 개발도상 국가 농업 ODA 지원 금액, 2010~2019	77
〈표 4-2〉 일본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 금액, 2010~2019	82
〈표 4-3〉 호주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 금액, 2010~2019	82
〈표 4-4〉 한국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 금액, 2010~2019	83
〈표 4-5〉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금융서비스 ODA 지원 실적, 2010-2019	87
〈표 4-6〉 농식품부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대상국가 및 사업수	113
〈표 4-7〉 농식품부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연도별 대상권역 추이	113
〈표 4-8〉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114
〈표 4-9〉 연도별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115
〈표 4-10〉 KOICA의 아세안 6개국 ODA 지원현황	116
〈표 4-11〉 농식품부와 KOICA의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사업 기간 비교	118
〈표 4-12〉 KOICA 농업분야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118
〈표 4-13〉 KOICA 농업분야 연도별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119
〈표 4-14〉 농림분야 연도별 형태별 배분 추이	119
〈표 4-15〉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방안(예시)	126
〈표 4-16〉 농림업 ODA의 현재 수준과 목표 종합	130
〈표 4-17〉 국가별 생존율 및 실적	133

제5장

〈표 5-1〉 한-ASEAN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규정된 농업협력 주요과제	140
〈표 5-2〉 ASEAN+3 합의문에 규정된 농업협력 주요 과제	141
〈표 5-3〉 신남방정책에 포함된 농업협력 주요 과제	142
〈표 5-4〉 농업협력 확대정책과 세부과제	142
〈표 5-5〉 한·ASEAN 국가 간 FTA 현황	144
〈표 5-6〉 한·ASEAN 농림축산식품 교역현황(2019년)	146
〈표 5-7〉 한국의 對 ASEAN 교역현황	147
〈표 5-8〉 한국의 對 ASEAN 교역구조(2019기준)	147
〈표 5-9〉 주요 ASEAN 국가별 외국인 토지임대 제도	152
〈표 5-10〉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 리스트	156
〈표 5-11〉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ODA 예산과 사업 수	157
〈표 5-12〉 국가별 비상 쌀 약정 내용	161
〈표 5-13〉 우리나라의 APTERR Tier 3 비상 쌀 지원실적	161
〈표 5-14〉 한·아세안 농업협력 실행과제 관련 고려사항	172
〈표 5-15〉 한·아세안 농업협력 실행과제 중장기 로드맵	174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범위	6
〈그림 1-2〉 연구 분야별 추진 체계도	7

제2장

〈그림 2-1〉 국별 GDP-1인당GDP 위치 (2019)	48
〈그림 2-2〉 국별 농업GDP-농업GDP비중 위치 (2019)	49
〈그림 2-3〉 국별 농축산물 수입 수출액 (2017~2019)	49
〈그림 2-4〉 국별 농축산물 수입 수출 비중 (2017~2019)	50

제3장

〈그림 3-1〉 우리나라 對 아세안 농축산물 수입 수출액 (2018~2020)	72
〈그림 3-2〉 우리나라 對 아세안 농축산물 수입 수출 비중 (2018~2020)	73
〈그림 3-3〉 우리나라 對 아세안 주요품목 수입 현황 (2018~2020)	73

제4장

〈그림 4-1〉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국가 ODA 총 지원액, 2010~2019	76
〈그림 4-2〉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ODA 지원액, 2010~2019	77
〈그림 4-3〉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금액, 2010~2019	78
〈그림 4-4〉 주요 공여국별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 현황, 2010~2019	79
〈그림 4-5〉 주요 공여국의 권역별 총 ODA 대비 농업 ODA 비중, 2010~2019	80

〈그림 4-6〉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지역 농업 ODA에서 아세안 국가 비중, 2010~2019	81
〈그림 4-7〉 일본, 호주 및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농촌 ODA 세부분야별 지원총액, 2010-2019	85
〈그림 4-8〉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용수자원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86
〈그림 4-9〉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촌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88
〈그림 4-10〉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88
〈그림 4-11〉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연구 ODA 지원 실적, 2010-2019	89
〈그림 4-12〉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90
〈그림 4-13〉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촌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90
〈그림 4-14〉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정책/행정관리 ODA 지원 실적, 2010-2019	91
〈그림 4-15〉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92
〈그림 4-16〉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용수자원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92
〈그림 4-17〉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촌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93
〈그림 4-18〉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교육/훈련 ODA 지원 실적, 2010-2019	94
〈그림 4-19〉 ODA 규모	111
〈그림 4-20〉 KOICA의 아세안 지역 분야별 ODA	116
〈그림 4-21〉 KOICA의 아세안 6개국 ODA 지원현황	117
〈그림 4-22〉 농식품부, 한국국제협력단의 농림업 ODA 사업당 사업비 추이	118
〈그림 4-23〉 동남아시아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현황	132

제5장

〈그림 5-1〉	한·ASEAN 통상협력 시스템 개념도	145
〈그림 5-2〉	2019년 한국과 ASEAN의 주요교역 파트너	145
〈그림 5-3〉	ASEAN 국가별 한국의 농업투자 기업체 수	151
〈그림 5-4〉	對 아세안 분야별 ODA(2019년 기준)	155
〈그림 5-5〉	對 아세안 국가별 ODA(2019년 기준)	155
〈그림 5-6〉	농업분야 ODA 사업 추진체계도	156
〈그림 5-7〉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전략 체계	16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한국의 대외무역에 양대 축이었던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대외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인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ASEAN)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부는 ‘신남방정책’ 및 후속 조치인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며 아세안과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더불어 번영하는 미래 공동체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 공동체로 구축하기로 하였음.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 ‘국민이 안전한 평화 공동체’,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상생 협력’을 목표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도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2020년 기준 14.9억 달러로 일본 13.4억 달러, 미국 12.1억 달러, 중국 11.4억 달러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1위로 올라섰으며, RCEP 타결과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 재협상의 결과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투자, 개발 협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의 중요성 증대와 ‘신남방정책’ 추진 및 RCEP 타결에 따라서 향후 아세안과의 농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및 투자와 해외농업자원개발, 농업 분야 개발 협력 등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농업협력에 관한 분야별·단계별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농업협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2021년 OECD 농업 글로벌 포럼은 국가들이 현재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위험이 닦쳤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구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은 짧은 역사이지만 빈곤의 문제, 개방의 문제, 농업소득 감소문제, 농촌 소멸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위험을 겪고 대처해온 경험이 있음. 이에 한국의 성공적인 농업분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농촌의 발전과 빈곤퇴치 지원하는 것이 농업협력에 있어서 중요함.
- 농업협력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는 기아 근절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들이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저렴한 음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미주농업협력연구소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IICA)는 이를 위해서 농업, 농업 건강, 식품 안전 및 품질, 국제 농업 무역, 가족 농업, 농촌 개발, 천연 자원 관리 및 바이오경제를 위한 기술 및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의 농업 분야 협력도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실제적인 (기아 근절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결과 및 공동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한국이 '새마을 운동 ODA'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왜 농업협력을 하는지에 대한 장단기 목표가 부재한 채로 우리의 개발 콘텐츠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일방적 원조방식을 강조해왔음. 그러다보니 실제 수원국의 필요성과 관련 없이 단편적 사업이나 하드웨어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고 국가별 농업 및 농촌개발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우리의 입장이 강조되어 진행되다보니 수원국과의 협의가 낮거나 현장에서의 경직성이 높았음.
 - 따라서 한-아세안 농업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방식에 대한 검토와 개선 사항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과의 농업 분야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역 및 투자,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농업협력 방안 구상에 있어서 분야 설정 방식은 다자간 기구에서의 협력 방안과 양자간 협력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나 FAO의 경우 식량 안보, 글로벌공급망, 기후변화 등 주제별로 아젠다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양자간 경제 협력 방안 구상에서는 교역, 투자, 개발 협력 또는 교역, 투자,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재영 외, 2015; 이해정, 2015; 김진오, 박민숙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교역 및 투자, 개발 협력로 구분하여 농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별과 농업 현황과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 추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한-아세안 농업협력 체계 방안 마련과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아세안 농업 현황, 장단점 및 그동안의 아세안에 대한 농업협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주요국 국제기구 등의 양자 및 다자 단 아세안에 관한 농업협력 사례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성공 요인 분석, 그리고 향후 교역, 투자, 개발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농업협력에 적용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아세안과의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상호 호혜적인 아세안에 대한 농업협력 확대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 박민지·김경량(2011)에서는 개발도상국 빈곤층은 대부분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은 밀레니엄개발목표인 빈곤과 기아의 퇴치를 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며, 빈곤 문제와 농촌문제는 서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특히 최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특히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업 농촌개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였음.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과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후, 앞으로 국제농업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교우위가 높고 먼저 실천해야 할 발전과제를 선정하였음.

- 하지만 연구사 수행된 지 10년이 지나 여건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에 다시 동일한 성격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서종혁(2013)은 우리나라 70년대의 농촌 새마을 운동 성공사례는 동남아 같이 집단적인 농촌 촌락의 인프라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마을 사업과 같은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개발 방식은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나 마을 주민의 의식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해당 연구는 정신교육과 마을개발을 병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 사업의 현지화 모델을 확립한 후 수원국의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최근에 수행된 농업 분야의 아세안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로 허장 (2018)이 있으며, 해당 연구는 농업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과 해외농업자원개발, 농업 분야 개발 협력 등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특히 농식품 수출, 해외농업자원개발,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정책의 중단기 목표는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공·민간부문의 글로벌 진출로 농업 분야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공동번영에 기여 가능하며 이 경우에 신남방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아시아(아세안과 인도 중심) 지역에서의 경제교류 확대 및 외교적 관계 다변화 목표에도 일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 또한, 허장 (2018) 연구에서는 민간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영농기술 전수, 행정 효율화 컨설팅 등과 같은 개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농업개발을 통해서 고용 확대와 기술이전 등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발전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소비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 이상과 같이 아세안 지역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연구가 수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개발 협력에 국한된 농업협력 방안

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對 아세안 농업협력 정책 방향에 기초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아세안의 역량과 수요 및 양국의 농업협력 현황을 다시 분석하고 새로운 농업협력 방안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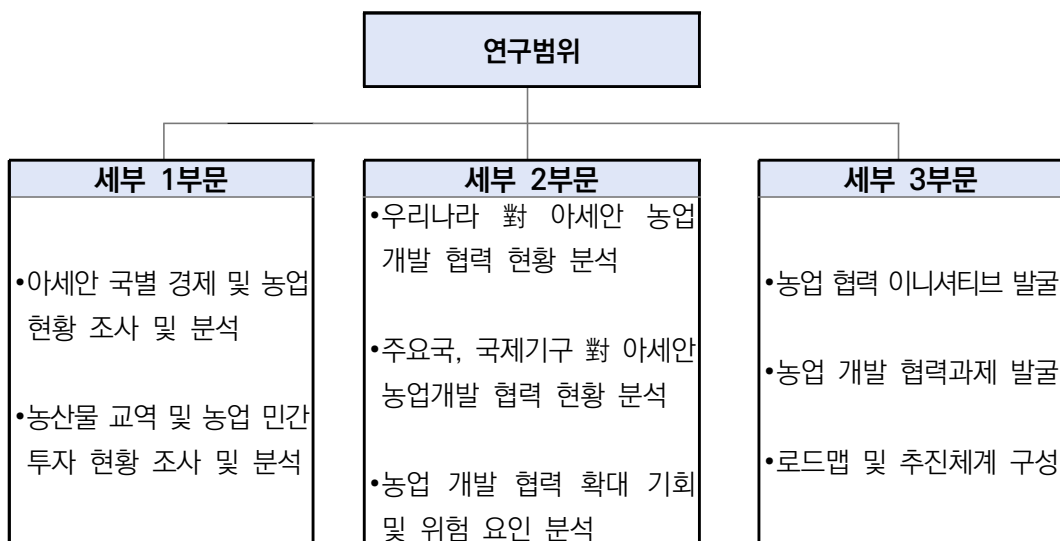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현황, 아세안 농업 현황 및 아세안 농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對 아세안 농업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 및 위험요인을 진단함.
 - 우리나라 및 아세안 농업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對 아세안 농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 교역 및 투자 여건을 분석하고 對 아세안 농업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을 제안하기 국별 경제 및 농업발전 수준과 교역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각국의 농업구조, 정책,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우리나라 및 아세안 국가의 농업 환경, 교역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 방향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교역 및 투자 협력의 의미를 고찰하였음.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및 국제농업개발 협력 등의 진출 현황, 국가별 사업 내용 등을 분석하고 주요국이나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對 아세안 농업개발 협력 분야의 성공사례 또는 모범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수집을 하였음.
 - 對 아세안 농업 개발 협력 성공사례별로 농업협력 내용, 배경, 결과와 성공 요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농업 개발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농촌 발전, 농업기술 향상, 유통체계 및 시스템 구축, 수출 확대 등 농업경쟁력이 향상된 농업 개발 협력이 성공한 사례를 심층 분석함.

- 또한, 농산업과 관련된 지역 및 타 산업 분야의 연계를 통해 농업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 등을 조사함.
- 농업협력 방안은 우선 아세안 공통 이슈에 근거한 농업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고 농업 현황, 역량과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협력 과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협력 과제에 대한 구상이 완료되면 우선 추진 순위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처 및 유관 정부 기관 내 거버넌스 외에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 성격과 역량을 분석하고 역할을 정립한 거버넌스 구성안 수립이 필요함.
- 현황과 강·단점 분석결과로 아세안 회원국과의 농업협력 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의 향후 농업협력 전략 수립, 관련 분야 지원 정책집행 시 유의사항을 제안함.
 - 각 농업협력 사례별로 우리나라로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 사례별 지원정책, 성공 요인, 애로사항, 해결방안, 요구되는 정책과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함.
- 아세안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농업 및 농업발전의 개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그림 1-1).

[그림1-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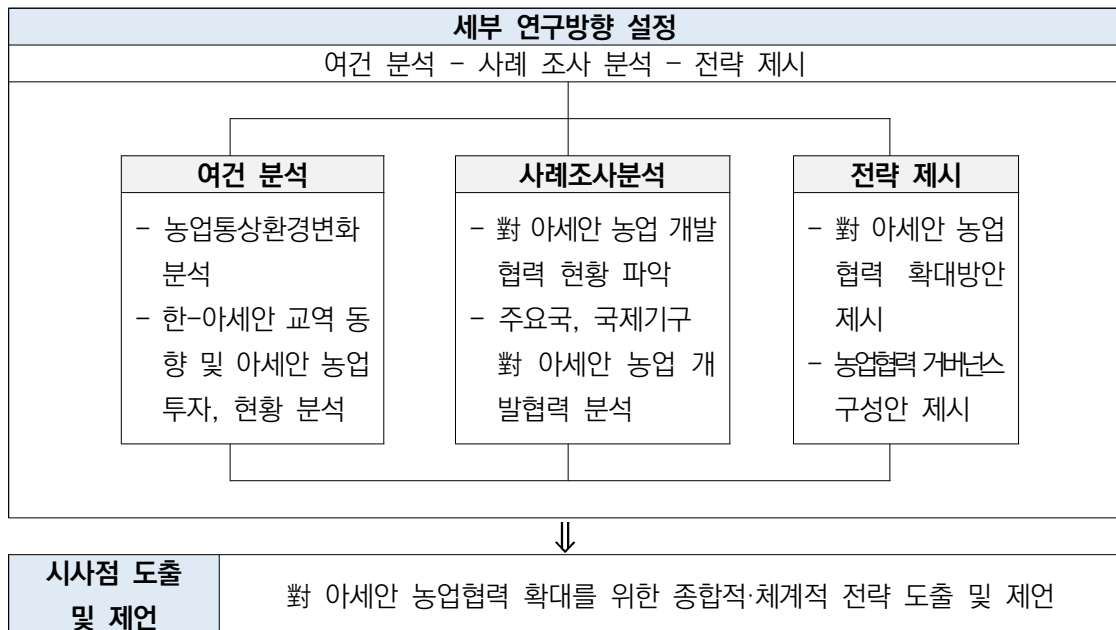
3.2. 연구방법

- 우리나라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대 아세안 농업협력 사례조사를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선행연구 분석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함.
 - 주요국, 국제기구, 민간, 기업 등 웹사이트 정보 및 연구보고서, 각종 저널, 논문, 도서, 온라인 정보 서비스 등 문헌 조사를 통한 사례 수집

- 아세안의 농업생산 및 교역 현황,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양자 교역 현황, 각 회원국별 농업 분야 장단점과 우리나라와의 상호보완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농업협력 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통상환경 변화, 아세안 회원국별 농업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함.

- 그리고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에서의 상호 농업혁신 및 발전과 농업협력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단순히 향후 협력 사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협력사업별 추진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그림 1-2).
 - 또한, 유관기관 관계자, 해당 분야 전문가 등과 연구 방향 및 결과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그림1-2] 연구 분야별 추진 체계도



제2장

아세안 경제 및 농업 현황

1. 아세안 국별 경제 및 농업 현황

1.1. 인도네시아

1.1.1. 경제 현황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사이에 있는 나라로,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와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동티모르, 호주와 매우 가까이 접하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2억 7,063만 명이고, 이 중 농촌인구는 1억 1,9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0% 정도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산업은 2019년 기준 제조업이 전체 GDP의 19.9%로 가장 부분을 차지하며, 농림어업 분야가 12.8%, 건설 분야가 10.5%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국토면적은 세계 14위 규모로 한국의 19배 수준이고,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14%이며 2000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1조 1,912억 달러이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음. 1인당 GDP는 4,100달러 정도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고, 2018년 아시안 게임 개최 이후 4,000달러를 돌파하였음(표 2-1).
 - 농업 GDP는 2000년 이래 260억 달러에서 1,42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 15.7%에서 2019년 12.7%로 감소함.

[표 2-1] 인도네시아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211514	226290	241834	258383	264646	267663	270626
농촌인구	천 명	122674	122328	121125	120631	119993	11957	119116
농촌인구 비중	%	58.0	54.1	50.1	46.7	45.3	44.7	44.0
국토면적	천 km ²	1811.6	1811.6	1811.6	1811.6	1877.5	1877.5	1877.5
농지면적	천 km ²	471.8	518.5	556.0	573.0	623.0	623.0	-
농지면적 비중	%	26.0	28.6	30.7	31.6	33.2	33.2	-
경지면적	천 km ²	205.0	229.5	236.0	238.0	263.0	263.0	-
경지면적 비중	%	11.3	12.7	13.0	13.1	14.0	14.0	-
총 GDP	십억 \$	165.0	285.9	755.1	860.9	1015.6	1042.2	1119.2
1인당 GDP	천 \$	0.8	1.3	3.1	3.3	3.8	3.9	4.1
농업 GDP	십억 \$	25.9	37.5	105.2	116.2	133.6	133.5	142.3
농업GDP 비중	%	15.7	13.1	13.9	13.5	13.2	12.8	12.7

자료: World Bank

1.1.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인도네시아는 주로 쌀, 옥수수 등의 곡물과 기름야자, 코코넛, 바나나와 같은 열 대과일을 생산하고 있음(표 2-2).
 - 생산량에 있어 큰 변동이 없는 타 품목보다, 기름야자의 생산은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575% 이상 증가하였음.
 - 쌀도 생산량이 많은 품목이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도 하고 있음.

[표 2-2]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기름야자열매	36,380	74,000	145,033	183,364	237,316	240,893	245,633	241,281
2	쌀	51,898	54,151	59,283	61,031	59,429	59,200	54,604	57,744
3	쌀(도정)	34,615	36,118	39,541	40,707	39,639	39,486	36,420	38,515
4	옥수수	9,677	12,523	18,327	19,612	28,924	30,253	30,693	29,957
5	사탕수수	23,900	29,300	26,600	27,000	28,000	29,500	29,100	28,867
6	코코넛	15,240	18,250	18,000	17,500	17,200	17,100	17,128	17,143
7	카바사	16,089	19,321	23,918	21,801	19,053	16,119	14,586	16,586
8	바나나	3,746	5,177	5,755	9,496	7,162	7,264	7,280	7,235
9	계란	642	856	1,121	1,372	4,632	4,688	4,753	4,691
10	천연고무	1,501	2,270	2,734	3,145	3,680	3,630	3,448	3,586
11	닭고기	803	1,125	1,539	2,030	3,175	3,409	3,495	3,360
12	망고	1,031	1,656	1,576	2,176	2,566	3,083	3,294	2,981

13	열대과일(신선)	1,191	2,605	2,321	2,220	2,636	2,661	2,686	2,661
14	고추	727	1,058	1,384	1,915	2,566	2,542	2,588	2,565
15	오렌지	644	2,214	2,028	1,856	2,295	2,510	2,563	2,456
16	파인애플	393	925	1,406	1,729	1,795	1,805	2,196	1,932
17	고구마	1,827	1,856	2,051	2,297	1,914	1,806	1,806	1,842
18	양파(건조)	772	732	1,048	1,229	1,470	1,503	1,580	1,518
19	양배추	1,336	1,292	1,385	1,443	1,442	1,407	1,413	1,421
20	과일(신선)	922	1,417	1,182	1,305	1,321	1,329	1,337	1,329

자료: FAOSTAT

- 인도네시아는 주로 밀, 대두박, 분밀당 등을 수입하고 팜오일, 천연고무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3, 표 2-4).
-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임.

[표 2-3]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4,086	5,216	12,595	15,440	19,827	20,755	19,248	19,943	100.0
밀	3588	4428	4810	7412	10454	10096	10962	10,504	52.6
대두박	1262	1852	2868	4110	4131	4749	4236	4,372	21.9
분밀당	994	891	1191	3304	4100	4937	3716	4,251	21.3
대두	1277	1086	1740	2256	2538	2585	2630	2,584	12.9
쌀(도정)	803	188	685	861	293	2253	471	1,006	5.0
옥수수	1264	185	1527	3267	474	737	1028	746	3.7
면화	560	455	613	672	787	762	656	735	3.6
양조맥주	3	3	251	274	565	729	853	716	3.5
쌀	803	122	544	506	0.07	1851	9	620	3.1
마늘	174	283	361	479	549	582	521	551	2.7
쇄미	390	65	135	353	291	402	462	385	1.9
소고기	9	39	55	71	71	545	478	365	1.8
카사바(전분)	205	102	294	595	376	375	309	353	1.7
땅콩(탈각x)	111	81	134	124	264	312	320	299	1.3
포도당	6	17	63	118	345	218	235	266	1.1
코코아	12	30	24	53	246	239	202	229	1.1
식품원료	28	66	127	145	217	218	239	225	0.8
글루텐	76	195	148	241	144	256	240	213	0.8
지방산	12	14	12	18	35	255	242	177	0.8
탈지유	82	86	132	145	162	161	198	174	0

자료 : FAO STAT

[표 2-4]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4,948	10,951	30,734	32,774	39,701	36,115	32,862	36,226	100.0
팜오일	1,087	3,756	13,468	15,385	18,513	16,527	14,633	16,558	45.7
천연고무	881	2,577	7,295	3,690	5,092	3,941	3,518	4,184	11.5
지방산	101	217	647	1,521	2,228	2,222	1,963	2,138	5.9
기름야자	239	587	1,727	1,566	2,221	1,701	1,262	1,728	4.8
커피	312	498	812	1,189	1,175	809	872	952	2.6
식품원료	55	132	480	732	422	1,092	1,179	898	2.5
담배	139	186	433	736	836	864	825	842	2.3
지방류	0.03	0.08	0.3	561	827	777	660	755	2.1
코코아(버터)	55	144	236	726	681	824	724	743	2.1
코코넛오일	319	413	566	811	816	722	443	660	1.8
커피추출물	20	24	168	346	475	571	600	549	1.5
종려행박	29	68	216	387	442	607	562	537	1.5
원료물질	93	132	278	375	422	539	611	524	1.4
웨이퍼	-	-	41	178	330	347	322	333	0.9
패스트리	30	90	139	249	312	321	350	328	0.9
빈랑자	38	49	114	321	330	311	302	314	0.9
코코아가루	15	38	146	311	262	232	185	226	0.6
파인애플 (통조림)	60	104	114	192	196	157	178	177	0.5
담배(가공x)	71	107	195	156	132	169	201	167	0.5
유두구	53	51	97	107	120	128	162	137	0.4

자료 : FAO STAT

1.2. 태국

1.2.1. 경제 현황

- 태국은 동남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나라로 북쪽으로는 라오스, 서쪽으로는 미얀마,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접해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6,963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3,4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3%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68.6%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52.4%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39%, 농업이 8.6%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체 노동력의 40%가 고용되어있는 주요 산업임.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5배 수준이며,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32.9%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5,435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7,800달러 정도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표 2-5).
 - 농업 GDP는 2000년 이래 107억 달러에서 434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2010년 10.5%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는 2.5% 하락한 8.0%임.

[표 2-5] 태국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629523	65417	67195	68715	69210	69429	69626
농촌인구	천 명	43194	40943	37726	35942	35159	34750	34331
농촌인구 비중	%	68.6	62.6	56.1	52.3	50.8	50.1	49.3
국토면적	천 km ²	510.9	510.9	510.9	510.9	510.9	510.9	510.9
농지면적	천 km ²	198.3	196.1	210.6	221.1	221.1	221.1	-
농지면적 비중	%	38.8	38.4	41.2	43.3	43.3	43.3	-
경지면적	천 km ²	156.5	152.0	157.6	168.1	168.1	168.1	-
경지면적 비중	%	30.6	29.8	30.8	32.9	32.9	32.9	-
총 GDP	십억 \$	126.4	189.3	341.1	401.3	456.3	506.5	543.5
1인당 GDP	천 \$	2.0	2.9	5.1	5.8	6.6	7.3	7.8
농업GDP	십억 \$	10.7	17.4	35.9	35.6	38.3	41.2	43.4
농업GDP 비중	%	8.5	9.2	10.5	8.9	8.4	8.1	8.0

자료: World Bank

1.2.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태국은 주로 사탕수수, 쌀 등의 곡물과 서류인 카사바 및 기름야자, 코코넛,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음(표 2-6).

- 지난 20년간 카사바의 생산량이 63% 증가하였으며 기름야자의 생산도 400% 이상 증가하였음. 그 밖에도 닭고기, 계란,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표 2-6] 태국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사탕수수	54,052	49,586	68,807	94,138	93,088	135,073	131,002	119,721
2	쌀	25,843	30,648	35,702	27,702	32,898	32,348	28,356	31,201
3	카사바	19,064	16,938	22,005	32,357	30,495	29,368	31,079	30,314
4	쌀(도정)	17,237	20,442	23,813	18,477	21,943	21,576	18,914	20,811
5	기름야자열매	3,342	5,002	8,227	11,058	14,452	15,534	16,772	15,586
6	옥수수	4,472	4,093	4,860	4,729	4,820	5,069	4,309	4,733
7	천연고무	2,278	2,979	3,051	4,466	4,503	4,813	4,839	4,718
8	열대과일(신선)	2,477	2,492	1,976	2,554	2,524	2,551	2,586	2,554
9	파인애플	2,248	2,183	1,924	1,733	2,328	2,350	1,679	2,119
10	망고	1,623	1,802	2,550	3,331	3,087	1,576	1,628	2,097
11	닭고기	1,045	1,007	1,220	1,629	1,641	1,679	1,718	1,679
12	바나나	2,029	1,623	1,584	1,032	1,114	1,265	1,297	1,225
13	우유	520	888	911	1,200	1,200	1,200	1,200	1,200
14	채소(신선)	891	1,022	1,097	1,047	1,088	1,084	1,096	1,089
15	돼지고기	692	907	895	936	937	940	943	940
16	과일(신선)	270	293	400	750	900	900	948	916
17	코코넛	1,795	1,940	1,298	904	761	858	806	808
18	계란	514	468	612	690	695	710	704	703
19	오렌지	325	362	414	478	502	514	526	514
20	알	292	310	395	410	390	400	400	397

자료: FAOSTAT

- 태국은 주로 대두박, 대두, 조제식료품 등을 수입하고 쌀, 천연고무, 닭고기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7, 표 2-8).
 -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임.

[표 2-7] 태국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19년 평균	비중
전체	2,690	4,242	7,433	11,223	11,380	12,251	11,728	11,786	100.0
대두박	267	480	1064	1235	1157	1251	1179	1,196	10.1
대두	286	463	813	1116	1165	1150	1151	1,155	9.8
기타조제식료품	94	184	407	673	777	838	817	811	6.9
밀	105	237	446	1132	600	709	681	663	5.6
면화	468	612	735	531	484	520	367	457	3.9
음식물쓰레기	81	119	213	298	361	356	330	349	3.0
원료물질	102	122	226	269	330	363	322	338	2.9
담배	63	96	108	150	214	265	280	253	2.1
음료(알콜)	92	140	189	254	212	254	245	237	2.0
식재료 원료	28	95	146	248	236	212	188	212	1.8
카바사(건조)	-	0.008	9	211	111	269	250	210	1.8
사과	41	50	123	232	199	189	195	194	1.6
고추	4.5	17	28	69	166	166	188	173	1.5
소고기	19	20	124	167	184	155	148	162	1.4
우유	97	70	106	125	155	155	166	159	1.3
맥주	0.3	1.8	71	117	128	201	118	149	1.3
포도	6	17	52	135	168	148	127	148	1.3
탈지유	91	158	184	206	151	135	151	146	1.2
초콜릿	10	27	64	112	132	146	132	137	1.2
패스트리	16	10.0	75	77	112	131	124	122	1.0

자료: FAO STAT

[표 2-8] 태국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7,408	12,497	26,647	29,385	33,243	34,211	33,811	33,755	100.0
쌀(도정)	1475	1960	5301	4544	5,166	5,619	4,206	4,997	14.8
쌀	1638	2327	4686	4078	4,505	5,028	3,741	4,425	13.1
천연고무(건조)	1284	2947	5983	3820	4,520	3,246	2,992	3,586	10.6
닭고기(통조림)	334	855	1752	2118	2,434	2,593	2,760	2,596	7.7
분밀당	334	333	866		1,484	2,429	2,667	2,193	6.5
음료수(무알콜)	71	111	374	983	1,297	1,461	1,590	1,449	4.3
설탕(정제)	309	370	1318	1469	1,484	1,413	1,324	1,407	4.2
천연고무	234	745	1872	1154	1,525	1,354	1,149	1,343	4.0
애완동물음식	225	335	622	962	1,128	1,328	1,388	1,281	3.8
카사바(전분)	133	221	752	1190	1,071	1,345	1,219	1,212	3.6
열대과일	7	73	116	387	650	947	1,464	1,020	3.0
카사바(건조)	192	317	819	1538	1,071	891	524	829	2.5
신선과일	109	89	168	357	709	642	788	713	2.1
닭고기	392	13	59	417	592	681	793	689	2.0
가공과일	141	294	417	419	425	583	677	562	1.7
쇄미	124	282	426	384	588	491	364	481	1.4
파인애플(통조림)	212	328	462	564	571	403	337	437	1.3
과일주스	35	69	153	399	451	370	444	422	1.2
망고	4	4	80	173	275	315	624	405	1.2
과일(건조)	70	72	100	196	382	370	322	358	1.1

자료: FAO STAT

1.3. 필리핀

1.3.1. 경제 현황

-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동북단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나라로 약 7,600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음. 섬들의 지형은 대체로 산이 많으며, 평야는 해안에 접한 하천 유역에 한정되어 있어 농경지는 별로 없는 편임.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1억811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5,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9%를 차지함. 과거 2000년의 농업인구가 53.9%인 것을 보면 감소의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음.
-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60%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31%, 농업이 9.3%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은 2모작이 가능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쌀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쌀을 수입하여 소비함.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세 배 수준으로,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18.7%이며 2000년 이래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3,768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3,500달러 정도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표 2-9).
 - 농업 GDP는 2000년 이래 117억 달러에서 33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 13.9%에서 2019년 8.8%로 감소함.

[표 2-9] 필리핀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77992	86326	93967	102113	105173	106652	108117
농촌인구	천 명	42010	46867	51370	54851	56076	56625	57141
농촌인구 비중	%	53.9	54.3	54.7	53.7	53.3	53.1	52.9
국토면적	천 km ²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농지면적	천 km ²	112.3	113.6	121.0	124.4	124.4	124.4	-
농지면적 비중	%	37.7	38.1	40.6	41.7	41.7	41.7	-
경지면적	천 km ²	50.3	50.1	53.0	55.9	55.9	55.9	-
경지면적 비중	%	16.9	16.8	17.8	18.7	18.7	18.7	-
총 GDP	십억 \$	83.7	107.4	208.4	306.4	328.5	346.8	376.8
1인당 GDP	천 \$	1.1	1.2	2.2	3.0	3.1	3.3	3.5
농업GDP	십억 \$	11.7	14.5	28.6	33.7	33.4	33.5	33.3
농업GDP 비중	%	13.9	13.5	13.7	11.0	10.2	9.7	8.8

자료: World Bank

1.3.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필리핀은 주로 사탕수수, 쌀, 옥수수 등의 곡물과 코코넛,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음(표 2-10).

- 지난 20년간 쌀 생산량이 52% 증가하였으며 옥수수 생산량은 약 77% 증가하였음. 그 밖에도 파인애플,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기름야자열매 등 열대과일과 축산물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표 2-10] 필리핀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사탕수수	21,223	22,917	17,929	22,926	29,286	24,730	20,719	24,912
2	쌀	12,389	14,603	15,772	18,149	19,276	19,066	18,814	19,052
3	코코넛	12,994	14,824	15,510	14,735	14,049	14,726	14,765	14,513
4	쌀(도정)	8,263	9,740	10,520	12,105	12,857	12,717	12,549	12,707
5	옥수수	4,511	5,253	6,376	7,518	7,914	7,771	7,978	7,888
6	바나나	4,929	6,298	9,101	5,840	6,041	6,144	6,049	6,078
7	신선채소	4,100	4,115	4,615	5,145	5,382	5,479	5,577	5,479
8	열대과일	2,900	3,185	3,227	3,238	3,233	3,233	3,233	3,233
9	플렌틴	-	-	-	3,243	3,124	3,214	3,108	3,149
10	카사바	1,765	1,677	2,101	2,710	2,807	2,723	2,630	2,720
11	파인애플	1,559	1,788	2,169	2,582	2,671	2,730	2,747	2,716
12	돼지고기	1,212	1,415	1,635	1,775	1,839	1,877	1,840	1,852
13	닭고기	533	649	868	1,185	1,249	1,355	1,430	1,345
14	망고류	868	1,003	843	917	748	725	753	742
15	계란	243	320	387	444	492	533	583	536
16	고구마	554	574	541	535	537	525	525	529
17	기름야자열매	245	354	565	432	474	500	499	491
18	천연고무	216	315	395	398	406	423	431	420
19	돼지내장	242	283	327	355	367	375	368	370
20	호박	143	392	342	300	287	281	271	280

자료: FAOSTAT

○ 필리핀은 주로 밀, 대두박, 조제품기타, 쌀 등을 수입하고 바나나, 코코넛오일, 코코넛, 파인애플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11, 표 2-12).

-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임.

[표 2-11] 필리핀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2,576	3,454	5,839	7,900	10,750	12,308	13,416	12,158	100
밀	390	377	448	982	1,303	1,682	1,847	1,611	13.3
대두박	182	384	359	707	983	1,124	1,176	1,094	9.0
조제품기타	155	235	448	721	957	919	1,038	971	8.0
쌀	135	549	1,499	461	357	736	1,144	746	6.1
쌀(도정)	135	547	1,486	411	322	701	1,061	695	5.7
보일유	1	1	86	335	638	570	568	592	4.9
커피추출물	3	22	70	250	455	524	654	544	4.5
소고기(뼈없는)	97	113	175	315	381	410	396	396	3.3
탈지유	177	181	306	270	335	296	375	335	2.8
닭고기	19	17	58	170	221	259	278	253	2.1
배합사료	4	64	141	182	229	263	263	252	2.1
돼지내장	8	12	40	170	217	253	243	238	2.0
담배(가공x)	109	197	116	113	176	248	225	216	1.8
옥수수	64	27	72	177	129	268	158	185	1.5
사과	21	13	38	87	155	161	172	163	1.3
감자(냉동)	19	18	26	49	137	143	165	148	1.2
팜오일	26	90	10	88	191	186	68	148	1.2
돼지고기	0	5	34	88	138	152	140	143	1.2
음료(알콜x)	5	8	13	55	120	144	156	140	1.2
증류주	22	31	24	68	93	143	172	136	1.2

자료 : FAO STAT

[표 2-12] 필리핀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총 수출	1,539	2,363	3,391	4,054	5,675	5,238	5,922	5,612	100
바나나	291	362	1265	439	1048	1504	1953	1502	26.8
코코넛오일	463	657	152	1120	1518	1054	873	1148	20.5
코코넛	73	127	42	153	340	282	256	293	5.2
코코넛 (건조)	24	43	124	105	201	191	327	240	4.3
파인애플	90	109	107	337	276	192	187	218	3.9
파인애플 (통조림)	15	102	169	99	133	240	267	213	3.8
담배	92	80	111	231	186	188	260	211	3.8
원료물질	42	87	99	171	161	158	172	164	2.9
과일(가공)	44	56	105	189	156	137	169	154	2.7
조제품기타	18	30	38	101	108	152	166	142	2.5
담배(가공x)	51	66	15	24	209	56	64	109	1.9
분말당	10	34	47	23	77	94	150	107	1.9
패스트리	0	44	55	60	93	75	101	90	1.6
파인애플 쥬스	14	36	16	55	98	75	79	84	1.5
천연고무 (건조)	1	6	43	88	115	95	15	75	1.3
음료(알콜x)	39	33	78	91	82	60	61	68	1.2
망고류	23	28	14	69	63	71	60	65	1.2
야자박	12	17	0.2	45	32	29	131	64	1.1
과일쥬스	0	0.02	0.1	0.3	69	58	58	62	1.1
식물기름	0.5	0.05	52	29	56	37	74	56	1.0

자료 : FAO STAT

1.4. 말레이시아

1.4.1. 경제 현황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3,195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74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51.0%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2.4%, 농업이 11.1%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세 배 수준으로,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2.5%로 2000년 이래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3,647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1,400달러 정도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표 2-13).
 - 농업 GDP는 2000년 117억 달러에서 2019년 33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2000년 8.6%에서 2019년 7.3%로 감소함.

[표 2-13] 말레이시아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23194	25691	28208	30271	31105	31529	31950
농촌인구	천 명	8819	8582	8205	7806	7637	7556	7474
농촌인구 비중	%	38.0	33.4	29.1	25.8	24.6	24.0	23.4
국토면적	천 km ²	328.6	328.6	328.6	328.6	328.6	328.6	328.6
농지면적	천 km ²	69.4	71.3	73.9	85.7	85.7	85.7	-
농지면적 비중	%	21.1	21.7	22.5	26.1	26.1	26.1	-
경지면적	천 km ²	8.7	9.5	8.5	8.3	8.3	8.3	-
경지면적 비중	%	2.6	2.9	2.6	2.5	2.5	2.5	-
총 GDP	십억 \$	93.8	143.5	255.0	301.4	319.1	358.7	364.7
1인당 GDP	천 \$	4.0	5.6	9.0	10.0	10.3	11.4	11.4
농업GDP	십억 \$	8.1	11.9	25.7	25.0	27.4	26.9	26.5
농업GDP 비중	%	8.6	8.3	10.1	8.3	8.6	7.5	7.3

자료: World Bank

1.4.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말레이시아의 주요 신선농축산물로는 기름야자열매, 쌀, 닭고기 등이 있음.
 - 지난 20년간 쌀 생산량이 550%가량 증가하였으며 닭고기, 계란, 신선채소도

100% 이상 증가하였음. 그 밖에도 토마토, 망고, 시금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표 2-14).

[표 2-14]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기름야자열매	56,600	74,800	83,090	98,344	101,740	98,419	99,065	99,741
2	쌀	2,140	2,314	2,464	2,741	2,570	2,639	13,884	6,364
3	쌀(도정)	1,427	1,543	1,644	1,828	1,714	1,760	1,942	1,805
4	닭고기	649	860	1,108	1,511	1,598	1,587	1,648	1,611
5	계란	390	442	586	779	845	804	833	827
6	채소(신선)	250	302	431	578	644	673	702	673
7	고무	927	1,126	939	722	740	603	639	661
8	코코넛	734	571	550	505	517	495	536	516
9	바나나	540	450	332	315	350	330	322	334
10	파인애플	249	340	331	452	340	322	299	320
11	돼지고기	159	208	234	222	218	223	225	222
12	오일시드	130	150	170	191	197	201	205	201
13	토마토	18	35	55	165	188	199	176	188
14	수박	150	132	235	178	172	150	144	155
15	과일(신선)	65	91	100	109	112	113	115	113
16	오이	40	55	60	100	88	85	103	92
17	망고	19	25	22	98	113	75	80	89
18	양배추	26	35	143	277	71	72	77	74
19	시금치	19	38	39	48	66	66	68	73
20	오리고기	64	104	155	121	77	80	66	67

자료: FAOSTAT

- 말레이시아는 주로 조제품기타, 천연고무, 옥수수, 코코아 등을 수입하고 팜오일, 지방산, 제조품기타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15, 표 2-16).
 - 쌀도 생산량이 많은 품목이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을 하고 있음.
 -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임.

[표 2-15]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3,805	6,010	14,165	16,264	16,688	17,001	16,467	16,719	100
조제품기타	148	241	571	866	878	973	990	947	5.7
천연고무(건조)	117	130	816	731	1,064	731	781	859	5.1
옥수수	255	365	766	772	737	822	787	782	4.7
코코아	76	392	970	691	694	787	827	769	4.6
분밀당	253	295	787	640	885	683	567	711	4.3
천연고무	214	292	976	575	705	580	537	608	3.6
대두박	109	209	465	576	606	589	521	572	3.4
지방산	24	13	22	332	572	566	348	496	3.0
팜오일	15	182	1,082	694	400	456	550	469	2.8
쇠고기(무뼈)	108	176	292	503	483	481	436	467	2.8
쌀	181	182	500	535	343	405	452	400	2.4
쌀(도정)	175	175	488	533	342	403	449	398	2.4
증류주	30	99	229	409	353	410	399	387	2.3
밀	187	296	325	373	335	395	384	371	2.2
대두	132	176	319	318	338	306	313	319	1.9
탈지유	121	129	273	378	286	261	298	281	1.7
야자핵기름	18	73	595	330	321	290	186	266	1.6
면화	107	77	90	156	169	329	289	262	1.6
커피	18	25	103	197	221	225	242	230	1.4
유아식품	49	71	139	199	208	250	230	229	1.4

자료: FAO STAT

[표 2-16]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총 수출	5,821	10,779	25,912	22,311	23,778	22,467	21,754	22,666	100
팜오일	2,558	4,905	12,400	9,501	9,659	8,667	8,327	8,884	39.2
지방산	389	656	1,181	1,165	1,583	1,536	1,308	1,476	6.5
제조품기타	106	204	523	910	932	1,014	1,074	1,007	4.4

천연고무(건조)	589	1,433	2,693	966	1,015	878	862	918	4.1
야자핵기름	265	488	830	664	846	653	544	681	3.0
패스트리	102	137	291	488	565	644	614	608	2.7
커피추출물	38	71	236	404	470	513	493	492	2.2
맥아추출물	41	65	309	401	472	444	511	476	2.1
코코아(버터)	83	308	614	556	376	390	612	460	2.0
지방류	0	3	300	272	384	351	342	359	1.6
음료(알콜x)	43	70	160	312	325	295	305	308	1.4
코코아(콩)	8	13	84	226	312	353	259	308	1.4
증류주	28	79	216	273	272	287	266	275	1.2
초코렛제조품	22	60	111	139	225	285	308	273	1.2
코코아가루	32	102	405	262	285	237	292	271	1.2
종려행박	59	79	203	227	214	281	243	246	1.1
원료물질	37	70	176	218	230	244	247	241	1.1
코코넛오일	30	119	143	179	184	160	190	178	0.8
배합사료	18	9	69	117	144	162	157	154	0.7
보일유	0.6	9	37	21	82	132	202	139	0.6

자료: FAO STAT

1.5. 싱가포르

1.5.1. 경제 현황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의 끝에 있는 섬나라이자 도시 국가로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싱가포르는 간척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며 1960년대 581.5km²의 면적에서 현재는 709km²로 확장하였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570만 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GDP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산업구조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꼽을 수 있음(임보람, 2018).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수도 서울시의 1.2배 수준으로, 좁은 면적의 특성상 농산업, 광업 등의 일차 산업의 비중은 극히 낮음. 농지면적 또한 국토면적의 1%를 차지하지만, 농촌인구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만큼 적음(임보람, 2018).

- 특히, 서비스업은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에 속하며, 제조업은 GDP의 20%를 차지함.
- 총 GDP는 2019년 기준 3,721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65,000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음(표 2-17).
 -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0.1%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수준임.

[표 2-17] 싱가포르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4,027.9	4,265.8	5,076.7	5,535.0	5,612.3	5,638.7	5,703.6
농촌인구	천 명	-	-	-	-	-	-	-
농촌인구 비중	%	-	-	-	-	-	-	-
국토면적	km	670	689	702	709	709	709	709
농지면적	km	12.0	7.6	7.4	6.6	6.6	6.6	-
농지면적 비중	%	0.0	0.0	0.0	0.0	0.0	0.0	0.0
경지면적	km	10.0	6.6	6.4	5.6	5.6	5.6	-
경지면적 비중	%	-	-	-	-	-	-	-
총 GDP	십억 \$	96.1	127.8	239.8	308.0	341.9	373.2	372.1
1인당 GDP	천 \$	23.9	30.0	47.2	55.6	60.9	66.2	65.2
농업GDP	십억 \$	0.1	0.1	0.1	0.1	0.1	0.1	0.1
농업GDP 비중	%	0.09	0.06	0.04	0.03	0.03	0.03	0.03

자료: World Bank

1.5.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싱가포르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량이 매우 적으며, 닭고기를 10만 톤가량 생산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계란, 신선채소, 돼지고기를 2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음(표 2-18).
 - 지난 20년간 계란 생산량이 69% 증가하였으며 신선채소도 100% 이상 증가하였음. 그 밖의 품목의 경우 생산량 증감이 크지 않았음.

[표 2-18] 싱가포르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닭고기	85	75	89	77	96	102	100	99
2	계란	16	20	20	25	31	29	27	29
3	채소(신선)	11	16	19	22	21	23	23	22
4	돼지고기	21	20	18	21	20	19	22	20
5	오리고기	6	5	4	4	4	4	4	4
6	시금치	-	1	1	2	2	2	2	2
7	돼지고기(내장)	1	1	1	1	1	1	1	1
8	계란(닭x)	1	1	1	1	1	1	1	1
9	돼지지방	1	1	0.9	1	1	0.9	1	0.967
10	양배추	-	0.4	0.5	0.6	0.6	0.7	0.7	0.667
11	상추	-	0.3	0.3	0.4	0.6	0.7	0.6	0.633
12	버섯	-	0.1	0.1	0.03	0.05	0.1	0.1	0.100
13	코코넛	0.1	0.1	0.1	0.09	0.1	0.1	0.1	0.083
14	토마토	-	0.006	0.006	0.06	0.08	0.06	0.05	0.063
15	소고기	0.03	0.04	0.04	0.03	0.03	0.03	0.03	0.030
16	양고기	0.04	0.02	0.02	0.02	0.02	0.02	0.02	0.020
17	부리류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0
18	염소고기	0.007	0.01	0.01	0.01	0.009	0.009	0.009	0.009
19	소가죽	0.007	0.008	0.008	0.006	0.006	0.006	0.006	0.006
20	소고기(내장)	0.006	0.007	0.007	0.005	0.005	0.005	0.005	0.005

자료: FAOSTAT

- 싱가포르는 주로 증류주, 조제품기타, 담배, 와인 등을 수입하고 조제품기타, 증류주, 제조용밀가루, 담배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19, 표 2-20).
 -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임.
 - 수입품목과 수출품목이 유사한 것은 싱가포르가 주로 중계무역을 하기 때문임.

[표 2-19]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3,994	5,115	9,164	11,626	11,618	12,172	12,331	12,040	100.0
증류주	259	440	1065	1385	1521	1733	1669	1,641	13.6
조제품기타	195	331	559	759	707	885	980	857	7.1
담배	594	333	466	696	785	838	788	804	6.7
와인	109	296	372	525	582	657	620	620	5.1
원료물질	117	170	238	292	290	287	262	280	2.3
패스트리	88	109	236	251	250	272	271	264	2.2
보일유	0.1	2	21	26	112	287	379	259	2.2
음료(알콜x)	65	88	134	209	228	258	252	246	2.0
초콜릿제조품	56	77	156	231	221	251	249	240	2.0
닭고기	93	129	209	242	226	235	248	236	2.0
쌀(도정)	131	114	249	263	213	223	238	225	1.9
돼지고기	56	89	178	194	225	212	201	213	1.8
쌀	125	108	237	249	196	204	218	206	1.7
코코아	27	86	291	266	181	213	216	203	1.7
전분유	59	156	280	170	197	196	196	196	1.6
소고기(뼈x)	40	50	118	185	189	194	195	193	1.6
팜오일	112	57	380	261	192	171	173	179	1.5
정유	26	61	118	132	169	188	172	176	1.5
보리맥주	52	66	102	178	150	139	146	145	1.2
달걀	46	57	103	119	109	134	147	130	1.1

자료 : FAO STAT

[표 2-20]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2,810	3,583	6,692	10,014	9,661	10,192	13,588	11,147	100.0
조제품기타	174	283	518	1663	1742	2061	5394	3,066	27.5
증류주	241	460	1332	1986	1950	2179	2272	2,134	19.1
제조용물질 (밀가루)	43	207	405	1009	1085	1162	1152	1,133	10.2
담배	67	363	535	1163	1046	1055	1063	1,055	9.5
와인	70	167	270	434	475	503	517	498	4.5
초콜릿제조품	78	128	329	446	364	418	487	423	3.8

사료보충제	36	83	166	203	211	227	227	222	2.0
유아식품		83	432	295	201	232	224	219	2.0
코코아,버터	39	63	141	166	151	137	149	146	1.3
보리맥주	49	80	128	189	162	139	127	143	1.3
전분유	19	60	177	132	127	115	132	125	1.1
원료물질	125	143	152	125	130	117	125	124	1.1
코코아(분말)	-	34	111	88	127	137	101	122	1.1
반죽	11	36	59	87	96	99	105	100	0.9
천연고무(건조)	-	-	-	109	109	71	99	93	0.8
정유	-	42	84	65	66	74	66	69	0.6
패스트리	51	44	80	89	64	69	70	68	0.6
음료(알콜x)	32	61	74	113	71	58	64	64	0.6
커피추출물	78	132	134	70	73	54	50	59	0.5
장유	14	12	28	41	43	47	50	47	0.4

자료 : FAO STAT

1.6. 브루나이

1.6.1. 경제 현황

- 브루나이는 남아시아와 보르네오섬 북서 해안에 있는 술탄왕국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43만 명이고, 이 중 농촌인구는 9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 정도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브루나이는 국토의 85%가 숲과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작 가능한 땅은 2%에 불과하지만, 석유 산유국으로 산업구조의 97%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음.
- 전체 국토면적은 경기도 면적의 절반 수준인 5,300km²로 매우 작은 편임. 경지면적 비중 또한 국토면적의 0.1% 이하로 매우 작은 수준임.
- 총 GDP는 2019년 기준 135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3만1,000달러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음(표 2-21).

- 농업 GDP는 0.1% 수준으로 매우 작은 편이며, GDP 대비 농업 GDP 비중 또한 1%로 낮음.

[표 2-21] 브루나이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333.2	365.1	388.6	414.9	424.5	429.0	433.3
농촌인구	천 명	96.1	98.0	97.3	96.8	96.3	96.0	95.6
농촌인구 비중	%	28.8	26.8	25.0	23.3	22.7	22.4	22.1
국토면적	천 km ²	5.3	5.3	5.3	5.3	5.3	5.3	5.3
농지면적	천 km ²	0.1	0.1	0.1	0.1	0.1	0.1	-
농지면적 비중	%	1.9	2.1	2.5	2.7	2.7	2.7	-
경지면적	천 km ²	0.0	0.0	0.0	0.1	0.1	0.1	-
경지면적 비중	%	0.4	0.4	0.8	0.9	0.9	0.9	-
총 GDP	십억 \$	6.0	9.5	13.7	12.9	12.1	13.6	13.5
1인당 GDP	천 \$	18.0	26.1	35.3	31.2	28.6	31.6	31.1
농업GDP	십억 \$	0.1	0.1	0.1	0.1	0.1	0.1	0.1
농업GDP 비중	%	1.0	0.9	0.7	1.1	1.1	1.0	1.0

자료: World Bank

1.6.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브루나이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량이 매우 적으며, 닭고기를 20~25만 톤가량 생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품목들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매우 미미함(표 2-22).
 - 특히 곡물, 채소 등 농산물의 국내 생산은 거의 없으며,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표 2-22] 브루나이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닭고기	11	15	20	23	23	25	24	24.00
2	계란	4	5	7	7	8	8	9	8.33
3	과일(신선)	3	6	4	4	4	4	4	4.00
4	카바사	1	2	3	3	3	3	3	3.00
5	오이	1.7	2.1	2	2.3	2.3	1.9	1.7	1.97
6	바나나	0.5	0.7	1	1.2	1.8	1.8	1.9	1.83

7	채소(콩과)	1.1	1.4	1.4	1.6	1.7	1.7	1.7	1.70
8	쌀	0.2	0.8	1	1.9	1.5	1.5	1.5	1.50
9	파인애플	0.8	0.9	1	1.1	1.1	1.1	1.2	1.13
10	소고기	3	2	0.6	0.4	1.2	1.1	1.1	1.13
11	쌀(도정)	0.1	0.5	0.7	1.3	1	1	1	1.00
12	시금치	0.5	0.6	0.6	0.8	0.8	0.9	0.6	0.77
13	채소(신선)	8	1.4	1.4	2.9	1	0.4	0.4	0.60
14	부리류	0.3	0.3	0.4	0.5	0.5	0.5	0.6	0.53
15	버팔로	0.1	0.1	0.1	0.4	0.5	0.4	0.4	0.43
16	오렌지	0.2	0.3	0.3	0.4	0.4	0.4	0.4	0.40
17	오크라	0.3	0.3	0.3	0.4	0.4	0.4	0.4	0.40
18	코코넛	0.1	0.3	0.3	0.4	0.4	0.4	0.4	0.40
19	고추	0.2	0.3	0.3	0.4	0.5	0.4	0.3	0.40
20	수박	0.09	0.1	0.1	0.1	0.1	0.1	0.3	0.17

자료: FAOSTAT

○ 브루나이는 주로 음료, 조제품기타, 쌀, 배합사료 등을 수입하고 음료, 조제품기타, 쌀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23, 표 2-24).

-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임.
- 수입량보다 수출량은 미미하며, 수입품목과 수출품목이 유사한 것은 해당 품목의 경우 일부 중계무역을 하기 때문임.

[표 2-23]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191	292	341	471	422	458	459	446	100.0
음료(알콜x)	10	19	30	47	34	34	38	35	7.9
조제품기타	18	12	27	37	30	34	34	33	7.3
쌀(도정)	17	19	43	30	21	33	43	32	7.2
배합사료	7.0	0.8	12	42	34	34	28	32	7.2
쌀	17	19	42	30	20	31	43	31	7.0
패스트리	7.5	9.7	15	23	20	23	22	22	4.9
전분유	3.6	8.3	2.3	16	14	12	14	13	3.0
소고기(뼈x)	-	-	3.3	14	12	15	13	13	3.0
초콜릿제조품	1.1	5.5	10	23	12	9	8.8	10	2.2
마카로니	3.2	3.0	1.7	5.1	9.4	9.4	8.5	9	2.0
밀가루	1.4	4.6	4.1	8.4	8.2	9	8.8	9	1.9

애완동물사료	-	0.8	2.6	9.0	7.9	8.8	8.6	8	1.9
신선과일	1.3	-	4.8	4.8	6.7	8.6	8	8	1.7
양고기	-	1.7	4.6	4.6	5.8	6.7	5.3	6	1.3
커피추출물	1.5	2.3	6.5	6.5	5.2	5.8	4.8	5	1.2
닭고기(통조림)	2.8	2.0	3.8	3.9	4.5	5.4	5.7	5	1.2
치즈	-	-	2.1	5.6	4.4	4.3	4.5	4	1.0
열대과일	-	0.09	0.9	2.1	2.9	4	4.6	4	0.9
돼지고기	1.2	1.8	3.3	5.1	2.7	4.7	4	4	0.9
신선채소	0.8	1.3	1.2	3.1	3.3	3.9	3.9	4	0.8

자료: FAO STAT

[표 2-24]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0.5	1.2	0.8	3.8	5.5	5.5	4.5	5.2	100.0
음료(알콜x)	0.04	0.01	0.02	1.8	0.06	0.1	2.3	0.8	15.5
조제품기타	0.006	0.01	0.03	0.2	0.6	1.0	0.8	0.8	15.5
쌀	0	0	0.05	0.003	0.1	1.7	0.04	0.6	11.6
쌀(도정)	0	0	0.05	0.003	0.1	1.7	0.04	0.6	11.6
패스트리	0.02	0.004	0.04	0.4	0.4	0.3	0.3	0.3	5.8
신선채소	0	0	0	-	0.2	0.4	0.2	0.3	5.8
배합사료	0	0	0	0	0.1	0.2	0.1	0.1	1.9
원료물질	0.06	0.001	0.004	0.1	0.04	0.1	0.3	0.1	1.9
밀가루	0	0	0	0.03	0.2	0.09	0.02	0.1	1.9
지방류	0	0	0	-	0.1	0.06	0.07	0.08	1.5
소가죽	0	0.3	0	0.1	0.009	0.09	0.1	0.07	1.4
옥수수	0	0	0	0	0.02	0.09	0.1	0.07	1.4
빵	0	0.02	0	0	0.1	0.05	0.04	0.07	1.4
쇠고기	0	0.006	0.006	0.002	0.1	0.02	0.003	0.07	1.4
지방종자	-	-	-	0.01	0.01	0.1	0.07	0.06	1.2
마카로니	0.002	0	0	0.03	0.04	0.08	0.02	0.05	1.0
사탕과자	0.003	0	0.001	0.03	0.06	0.05	0.04	0.05	1.0
팜오일	0	0	0	0	0.1	0.02	0	0.04	0.8
보일유	0	0	0	-	0.1	0.001	0.003	0.04	0.8
초콜릿제조품	0	0	0	0.07	0.06	0.04	0.01	0.04	0.8

자료: FAO STAT

1.7. 베트남

1.7.1. 경제 현황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해안에 있는 나라로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9,646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6,1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메콩강 삼각주 주변으로 비옥한 토지가 조성되어 농업은 베트남의 최대 산업이며, 세계 주요 쌀 수출국 중 하나임.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3배 수준으로, 경지면적 비중은 2018년 국토면적의 39.2%이며 2000년 대비 약 10%p 증가한 수치임.
- 총 GDP는 2019년 기준 2,619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700달러 정도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표 2-25).
 - 농업 GDP는 2000년 이래 760억 달러에서 3,66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에는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산업화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 24.5%에서 2019년 14.0%로 감소함.

[표 2-25] 베트남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79910	83833	87968	92677	94597	95540	96462
농촌인구	천 명	60433	60962	61211	61344	61286	61223	61130
농촌인구 비중	%	75.6	72.7	69.6	66.2	64.8	64.1	63.4
국토면적	천 km ²	311.1	310.1	310.1	310.1	310.1	310.1	310.1
농지면적	천 km ²	87.8	100.5	107.6	121.5	121.7	121.7	-
농지면적 비중	%	28.2	32.4	34.7	39.2	39.2	39.2	-
경지면적	천 km ²	62.0	63.6	64.4	70.0	69.9	69.9	-
경지면적 비중	%	19.9	20.5	20.8	22.6	22.5	22.5	-
총 GDP	십억 \$	31.2	57.6	115.9	193.2	223.8	245.2	261.9

1인당 GDP	천 \$	0.4	0.7	1.3	2.1	2.4	2.6	2.7
농업GDP	십억 \$	7.6	11.1	21.3	32.8	34.3	36.0	36.6
농업GDP 비중	%	24.5	19.3	18.4	17.0	15.3	14.7	14.0

자료: World Bank

1.7.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베트남은 주로 쌀,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곡물과 카사바, 돼지고기, 바나나, 커피 등을 생산하고 있음(표 2-26).

- 지난 20년간 카사바의 생산량이 400% 증가하였으며 옥수수와 돼지고기의 생산도 각각 130% 이상 증가하였음. 그 밖에도 바나나, 커피, 코코넛의 생산도 90~110%가량 증가하였음.

[표 2-26] 베트남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쌀	32,529	35,832	40,005	45,090	42,763	44,046	43,448	43,419
2	사탕수수	15,044	14,948	16,161	18,337	18,356	17,945	15,269	17,190
3	카사바	1,986	6,716	8,595	10,740	10,267	9,847	10,105	10,073
4	옥수수	2,005	3,787	4,606	5,287	5,109	4,874	4,756	4,913
5	돼지고기	1,418	2,750	3,036	3,491	3,733	3,816	3,328	3,625
6	바나나	1,124	1,344	1,618	1,943	2,045	2,087	2,194	2,108
7	커피(생두)	802	831	1,105	1,452	1,542	1,616	1,683	1,613
8	코코넛	884	977	1,162	1,439	1,499	1,571	1,677	1,582
9	고구마	1,611	1,443	1,318	1,336	1,352	1,374	1,402	1,376
10	수박	200	420	526	1,084	1,121	1,200	1,227	1,182
11	고무	290	481	751	1,012	1,094	1,137	1,185	1,138
12	망고	177	367	580	895	744	1,055	1,157	985
13	양배추	400	700	807	868	976	872	1,053	967
14	우유	51	197	306	723	881	936	986	934
15	오렌지	426	601	729	566	768	855	1,017	880
16	닭고기	295	321	456	700	786	839	990	871
17	파인애플	291	470	514	578	617	654	707	659
18	땅콩	355	489	487	471	459	456	438	451
19	양파(건조)	210	236	302	356	382	393	405	393
20	계란	185	197	321	443	310	349	409	356

자료: FAOSTAT

○ 베트남은 주로 면화, 캐슈너츠,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캐슈너츠, 커피, 쌀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27. 표 2-28).

-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임.
- 캐슈너츠의 경우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캐슈너츠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국가이나 가공에 필요한 캐슈너츠가 부족하여 많은 양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표 2-27]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1,422	2,399	9,300	15,114	18,733	20,814	20,857	20,134	100.0
면화	101	167	673	1,607	2,331	2,727	2,400	2,485	12.3
캐슈너츠	-	-	-	1,105	1,503	2,108	2,312	2,023	10.0
옥수수	22	36	396	1,650	2,523	1,900	1,668	1,974	9.8
대두(케이크)	75	330	1,126	1,966	1,728	2,054	1,845	1,875	9.3
밀	77	200	569	600	649	726	972	947	4.7
제조품 기타	40	121	349	559	944	1,177	720	782	3.8
대두	0.3	1	115	765	444	606	690	721	3.5
원료	31	95	362	379	707	771	686	580	2.8
팜유	136	91	536	458	568	541	530	546	2.7
음식물쓰레기	30	47	133	473	478	527	504	503	2.4
고기(식사용)	5	16	74	273	242	328	349	306	1.5
천연고무(건조)	2	46	163	152	177	232	336	303	1.5
담배	21	47	104	218	297	279	335	271	1.3
유아용 식품	16	46	158	230	142	234	303	263	1.3
양조찌꺼기	-	-	-	148	290	230	271	263	1.2
카사바(건조)	-	-	-	224	108	181	261	254	1.2
고기, 소, 쇠고기 & 송아지(무뼈)	-	-	-	135	192	172	247	248	1.2
우유(탈지건조)	0.5	99	186	200	285	289	239	203	1.0
맥아	24	59	161	196	190	178	197	188	0.9
닭고기	0.02	4	615	108	332	236	194	183	0.9

자료 : FAO STAT

[표 2-28]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2,298	3,606	10,479	16,418	19,519	19,102	18,580	19,067	100.0
캐슈너츠	575.0	503	1,134	2,315	3,385	3,128	2,941	3,151	16.5%
커피	190.8	735	1,851	2,402	3,079	2,867	2,183	2,710	14.2%
쌀	666	1,407	3,249	2,807	2,634	2,621	2,434	2,563	13.4%
쌀(가공)	666	1,407	3,249	2,620	2,243	2,461	2,163	2,289	12.0%
과일(신선)	12	43	213	545	1,479	1,563	1,549	1,530	8.0%
천연고무(건조)	230	244	2,388	990	825	836	851	837	4.4%
고추	145	151	421	1,259	1,117	723	666	835	4.4%
카바사	-	-	744	913	745	795	870	803	4.2%
조제품기타	38	56	1,100	329	424	464	551	480	2.5%
커피추출물	-	-	-	255	399	438	455	431	2.3%
망고	0.8	0.3	0.06	75	351	333	341	342	1.8%
음식물쓰레기	1.8	0.3	0.6	205	250	301	339	297	1.6%
땅콩	-	-	-	110	187	264	424	292	1.5%
열대과일	-	-	-	24	306	269	271	282	1.5%
담배	2	5	35	250	230	214	264	236	1.2%
원재료	50	31	54	122	193	208	296	232	1.2%
차	69	96	213	212	226	209	230	222	1.2%
패스트리	9	23	52	126	185	210	218	204	1.1%
쇄미	-	-	-	163	148	72	227	149	0.8%
바나나	0.6	1.8	4	14	63	103	175	114	0.6%

자료: FAO STAT

1.8. 라오스

1.8.1. 경제 현황

- 라오스는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이며 국토의 25%가 농업, 축산업, 산림업에 사용됨. 라오스의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15.5%이며 2015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717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4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라오스 산업별 투자 비중은 농업이 13%를 차지하는데 전력발전업(30%), 광업(21%)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182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500달러임(표 2-29).
 - 농업 GDP는 2000년 60억 달러에서 2019년 28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하락하여 2000년 33.6%에서 2019년 15.3%로 감소함.

[표 2-29] 라오스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5323.7	5751.7	6249.2	6741.2	6953.0	7061.5	7169.5
농촌인구	천 명	4153.7	4188.0	4370.4	4509.3	4563.4	4589.7	4613.9
농촌인구 비중	%	78.0	72.8	69.9	66.9	65.6	65.0	64.4
국토면적	천 km ²	230.8	230.8	230.8	230.8	230.8	230.8	230.8
농지면적	천 km ²	18.1	19.9	22.2	24.9	24.4	23.9	-
농지면적 비중	%	7.8	8.6	9.6	10.8	10.6	10.4	-
경지면적	천 km ²	9.2	11.5	14.0	16.5	16.0	15.5	-
경지면적 비중	%	4.0	5.0	6.1	7.1	6.9	6.7	-
총 GDP	십억 \$	1.7	2.7	7.1	14.4	16.9	18.0	18.2
1인당 GDP	천 \$	0.3	0.5	1.1	2.1	2.4	2.5	2.5
농업GDP	십억 \$	0.6	0.8	1.6	2.5	2.7	2.8	2.8
농업GDP 비중	%	33.6	28.3	22.6	17.6	16.2	15.7	15.3

자료: World Bank

1.8.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라오스는 주로 쌀, 뿌리류, 카바사, 사탕수수, 신선채소, 바나나, 옥수수 등을 생산하고 있음(표 2-30).
 - 2000년에 거의 생산량이 없던 카사바 및 바나나의 경우 2019년에는 각각

229만 톤, 9만 9천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사탕수수, 옥수수, 커피도 지난 20년간 생산량이 500% 이상 증가하였음.

[표 2-30] 라오스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쌀	2,201	2,568	3,070	4,102	4,039	3,584	3,438	3,687
2	부리류	-	-	725	2,767	2,322	2,956	3,151	2,810
3	쌀(도정)	1,468	1,712	2,048	2,736	2,694	2,390	2,293	2,459
4	카바사	71	51	500	2,382	2,277	2,279	2,258	2,271
5	사탕수수	296	196	818	2,018	1,764	1,834	1,970	1,856
6	채소(신선)	652	744	947	1,683	1,436	1,460	1,527	1,474
7	바나나	37	148	178	787	946	970	1,056	991
8	옥수수	117	372	1,020	1,516	1,192	981	717	963
9	수박	4	65	106	196	128	198	196	174
10	커피	23	25	46	135	150	154	165	156
11	타로	-	-	-	135	135	148	154	146
12	고구마	117	129	61	152	110	124	114	116
13	돼지고기	27	39	59	73	86	86	85	86
14	땅콩	13	26	50	62	35	54	56	50
15	담배	39	28	83	63	49	48	53	48
16	과일(신선)	38	46	51	46	45	46	46	46
17	오렌지	29	40	46	45	46	46	46	46
18	귤	23	25	36	40	32	34	43	42
19	파인애플	35	41	42	57	41	42	43	36
20	소고기	16	22	25	31	33	34	35	34

자료: FAOSTAT

○ 라오스는 주로 음료, 조제품기타, 설탕, 닭고기 등을 수입하고 음료, 천연고무, 바나나, 카사바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31, 표 2-32).

-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임.

[표 2-31] 라오스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76	170	288	694	1,160	1,227	951	1,113	100
음료(알콜x)	10	15	34	64	219	248	207	224	20.1
조제품기타	4	12	36	67	99	110	12	74	6.7
설탕	5	12	19	10	82	49	88	73	6.6
닭고기	5	0	0	95	103	99	1	68	6.1
커피추출물	0	5	27	24	46	38	22	35	3.1
천연고무 (건조)	0	4	11	30	67	31	2	34	3.1
음식물쓰레기	2	8	20	35	32	30	37	33	3.0
쌀	3	6	16	5	44	27	25	32	2.9
쌀(도정)	3	6	16	2	42	25	16	28	2.5
증류주	12	42	18	0	7	21	22	17	1.5
유아식품	0	1	5	14	16	18	16	16	1.4
담배(가공x)	0	1	0	3	13	11	21	15	1.3
담배	14	2	5	35	9	11	24	14	1.3
대두박	-	-	-	2	6	15	15	12	1.1
맥아	1	3	1	12	6	10	18	11	1.0
원료물질	0	0	1	1	9	11	7	9	0.8
보리맥주	0	1	0	10	7	9	9	9	0.8
씨리얼	2	3	5	9	11	14	1	9	0.8
빵	0	0	0	5	14	12	0.04	8	0.7
맥아추출물	-	-	-	2	3	11	8	8	0.7

자료 : FAO STAT

[표 2-32] 라오스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19 년 평균	비중
총 수출	32	21	79	762	1,249	1,260	1,374	1,294	100
음료 (알콜x)	-	-	-	143	215	246	229	230	17.8
천연고무 (건조)	-	-	-	40	126	145	165	145	11.2
바나나	0	0.2	1	54	167	112	14	98	7.6
카사바 (건조)	-	-	-	28	94	79	74	82	6.3
설탕	18	13	33	57	87	84	54	75	5.8
카사바	-	-	-	15	74	45	102	73	5.6
담배	-	-	-	27	87	75	16	59	4.6
옥수수	-	-	-	22	52	59	65	59	4.6
쌀	0.05	2	26	53	45	43	31	39	3.0
천연고무	-	-	-	23	31	31	19	27	2.1
쌀(도정)	-	-	-	3	10	14	52	25	1.9
분밀당	-	-	-	18	17	22	17	19	1.5
곡물조제품	-	-	-	23	16	18	21	18	1.4
증류주	-	-	-	10	8	20	26	18	1.4
카사바 (분말)	-	-	-	16	13	24	13	17	1.3
수박	-	-	-	9	12	16	20	16	1.2
담배(가공x)	-	-	-	5	9	11	21	14	1.1
망고류	-	-	-	21	19	19	2	13	1.0
양배추	-	-	-	4	11	15	14	13	1.0
감자	-	-	-	7	9	14	16	13	1.0

자료 : FAO STAT

1.9. 미얀마

1.9.1. 경제 현황

-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로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5,405만 명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 중 농촌인구는 3,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9.1% 정도로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다음으로 농촌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이며, 2000년 이후 농업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미얀마의 산업은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삼차 산업이 일차 산업의 규모를 추월하였으며, 제조업, 광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7배 수준으로,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762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400달러 정도로 아세안 국가 중 1인당 GDP가 가장 낮음(표 2-33).
 - 농업 GDP는 2000년 이래 51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음.
 -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2000년 57.2%에서 2019년 2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중 농업 GDP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33] 미얀마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46720	48950	50601	52681	53383	53708	54045
농촌인구	천 명	34094	35270	35985	36951	37196	37285	37371
농촌인구 비중	%	73.0	72.1	71.1	70.1	69.7	69.4	69.1
국토면적	천 km ²	653.5	653.4	653.3	653.1	652.8	652.8	652.8
농지면적	천 km ²	108.1	112.6	125.3	127.5	128.7	128.9	-
농지면적 비중	%	16.5	17.2	19.2	19.5	19.7	19.7	-
경지면적	천 km ²	99.1	100.6	108.1	109.3	110.6	110.8	-
경지면적 비중	%	15.2	15.4	16.5	16.7	16.9	17.0	-
총 GDP	십억 \$	8.9	12.0	49.5	67.8	68.9	76.2	76.1
1인당 GDP	천 \$	0.2	0.2	1.0	1.3	1.3	1.4	1.4
농업GDP	십억 \$	5.1	5.6	18.3	18.1	15.9	16.3	-
농업GDP 비중	%	57.2	46.7	36.9	26.7	23.0	21.4	-

자료: World Bank

1.9.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미얀마는 주로 쌀, 사탕수수, 콩, 신선채소, 우유 등을 생산하고 있음(표 2-34).
 - 지난 20년간 사탕수수의 생산량이 104% 증가하였으며 콩의 생산도 355% 이상 증가하였음. 그 밖에도 우유, 옥수수, 땅콩, 닭고기, 플렌틴, 돼지고기 등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표 2-34] 미얀마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쌀	20,986	27,245	32,065	26,210	26,546	27,573	26,269	26,796
2	쌀(도정)	13,998	18,172	21,387	17,482	17,706	18,391	17,521	17,873
3	사탕수수	5,800	7,073	9,249	10,142	10,370	11,397	11,846	11,204
4	콩(건조)	1,285	2,175	3,530	4,844	5,338	5,592	5,846	5,592
5	채소(신선)	2,800	3,000	3,400	3,642	3,742	3,798	3,855	3,798
6	우유	616	796	1,274	2,154	2,200	2,200	2,300	2,233
7	옥수수	358	903	1,354	1,748	1,909	1,984	1,985	1,959
8	땅콩	719	1,022	1,370	1,517	1,582	1,562	1,615	1,586
9	닭고기	213	555	999	1,505	1,500	1,567	1,616	1,561
10	과일(신선)	1,040	1,150	1,350	1,400	1,419	1,433	1,448	1,433
11	플렌틴	462	677	950	1,108	1,178	1,391	1,340	1,303
12	돼지고기	118	326	576	863	930	1,154	1,234	1,106
13	양파(건조)	583	998	1,113	1,244	1,007	1,014	1,032	1,018
14	참깨	375	438	787	828	764	715	744	741
15	계란	112	186	342	509	555	576	580	570
16	병아리콩	117	260	459	571	526	534	499	520
17	코코넛	225	428	428	508	489	511	530	510
18	감자	313	470	563	560	499	488	485	491
19	당료작물류	261	371	405	459	468	476	484	476
20	소고기	70	127	230	357	399	403	435	412

자료: FAOSTAT

- 미얀마는 주로 음료, 조제품기타, 설탕, 닭고기 등을 수입하고 음료, 천연고무, 바나나, 카사바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35, 표 2-36).
-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임.

[표 2-35] 미얀마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338	493	1,093	2,308	2,876	2,480	1,602	2,319	21.3
설탕	9	2	29	650	846	579	56	494	20.4
팜오일	85	155	230	573	688	645	84	472	5.0
밀	2	25	58	101	117	104	130	117	4.5
맥아추출물	-	-	-	49	98	106	111	105	4.1
음식물쓰레기	1	2	7	41	74	111	98	94	3.9
음료(알콜x)	22	35	92	42	56	89	127	91	3.3
보리맥주	3	10	55	153	88	55	88	77	2.2
감자	-	-	-	3	40	59	56	52	2.2
대두박	-	-	-	89	46	38	64	50	1.9
담배제조품	17	25	2	1	15	56	57	43	1.8
원료물질	1	3	33	7	37	47	43	42	1.5
커피추출물	8	11	94	54	35	34	35	35	1.5
패스트리	7	6	15	17	36	33	36	35	1.3
와이퍼	-	-	-	0.8	19	39	36	31	1.3
옥수수	0.3	0.4	0.2	16	18	39	35	30	1.3
유아식품	1	2	7	9	13	34	40	29	1.0
오렌지	-	-	-	22	16	31	23	23	1.0
맥아	1	1	9	13	19	20	29	23	0.8
사과	7	0.6	1	16	23	8	26	19	0.8
밀가루	16	1	1	4	13	16	25	18	0.0

자료 : FAO STAT

[표 2-36] 미얀마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377	426	1,369	3,810	3,921	4,133	3,752	3935	100.0
쌀	31	42	213	631	1030	921	782	911	23.1

콩(건조)	255	240	1000	1060	764	568	764	699	17.8
현미	-	-	-	461	813	718	559	697	17.7
설탕	3	0.1	2	530	650	502	10	387	9.8
옥수수	14	24	11	360	304	237	236	259	6.6
바나나	-	-	-	17	69	167	396	211	5.4
참깨	18	17	53	195	164	151	244	186	4.7
천연고무(건조)	-	-	-	120	209	167	161	179	4.5
쇄미	0	5	16	149	201	144	192	179	4.5
분말당	145	0	2	1	54	269	101	141	3.6
빈랑자	0	0.01	0.4	41	32	119	113	88	2.2
수박	-	-	-	65	74	81	78	77	2.0
병아리콩	0	15	12	13	33	101	29	54	1.4
담배	0.1	4	12	9	19	43	41	34	0.9
현미(도정)	-	-	-	20	15	38	30	28	0.7
멜론	-	-	-	14	27	27	0.001	18	0.5
양파	-	-	-	1	9	13	30	17	0.4
페퍼민트	-	-	-	8	8	11	29	16	0.4
양념류	1	1	4	11	15	12	14	14	0.4
원료물질	6	12	20	12	14	13	15	14	0.4

자료 : FAO STAT

1.10. 캄보디아

1.10.1. 경제 현황

-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총인구는 2019년 기준 1,649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 비중은 76.2% 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 농촌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
-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 44.8%, 농업 28.8%, 공업 제조업이 26.4%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국토면적은 한국의 2배 수준으로, 경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음.
- 총 GDP는 2019년 기준 271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600달러 정도로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다음으로 낮음(표 2-37).
 - 농업 GDP는 2000년 17억 달러에서 2019년 5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총 GDP 대비 농업 GDP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 45.9%에서 2019년 20.9%로 감소함.

[표 2-37] 캄보디아 농업 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총인구	천 명	12155	13273	14312	15521	16009	16250	16487
농촌인구	천 명	9896	10728	11408	12078	12331	12449	12562
농촌인구 비중	%	81.4	80.8	79.7	77.8	77.0	76.6	76.2
국토면적	천 km ²	176.5	176.5	176.5	176.5	176.5	176.5	176.5
농지면적	천 km ²	47.7	53.6	54.6	55.7	55.7	55.7	-
농지면적 비중	%	27.0	30.3	30.9	31.5	31.5	31.5	-
경지면적	천 km ²	37.0	37.0	38.0	39.1	39.1	39.1	-
경지면적 비중	%	21.0	21.0	21.5	22.2	22.2	22.2	-
총 GDP	십억 \$	3.7	6.3	11.2	18.0	22.2	24.6	27.1
1인당 GDP	천 \$	0.3	0.5	0.8	1.2	1.4	1.5	1.6
농업GDP	십억 \$	1.7	2.5	3.7	4.6	5.0	5.6	5.7
농업GDP 비중	%	45.9	40.2	32.7	25.3	22.7	22.7	20.9

자료: World Bank

1.10.2.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

- 캄보디아는 주로 카사바, 쌀, 옥수수, 신선채소,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고 있음(표 2-38).
 - 2000년에 거의 생산량이 없던 카사바의 경우 2019년에는 각각 1,374만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옥수수, 대두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생산량이 각각 800%, 525% 이상 증가하였음. 그 밖에도 사탕수수, 천연고무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표 2-38] 캄보디아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17~19 평균
1	카사바	147	535	4,247	10,120	11,873	12,805	13,737	12,805
2	쌀	4,026	5,986	8,245	9,335	10,518	10,892	10,886	10,765
3	쌀(도정)	2,685	3,992	5,499	6,226	7,015	7,264	7,260	7,180
4	옥수수	156	247	773	400	750	1,232	1,410	1,131
5	채소(신선)	475	481	544	622	652	665	678	665
6	사탕수수	164	118	365	640	643	640	660	648
7	천연고무	42	20	48	126	193	220	174	196
8	대두	28	179	156	162	168	170	175	171
9	야자박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0	바나나	146	129	157	144	142	142	143	142
11	돼지고기	105	135	105	111	112	109	109	110
12	콩(건조)	15	45	71	82	85	88	90	88
13	과일(신선)	56	64	75	75	75	76	76	76
14	망고	35	47	57	66	69	70	72	70
15	코코넛	58	71	65	60	70	69	69	69
16	오렌지	63	63	65	64	64	64	64	64
17	소고기	56	57	62	55	56	56	56	56
18	고구마	28	39	79	43	42	42	42	42
19	부리류	26	28	34	38	40	41	42	41
20	참깨	9	90	29	28	30	30	32	31

자료:FAOSTAT

○ 캄보디아는 주로 음료, 담배, 설탕, 식품조제품 등을 수입하고 쌀, 천연고무, 설탕, 바나나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2-39, 표 2-40).

-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서 농축산물 부분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임.

[표 2-39]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입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158	428	705	1,104	2,712	2,999	1,893	2,535	100.0

음료(알콜x)	1.8	24	4.4	79	430	576	299	435	17.2
담배	70	107	144	214	394	388	233	338	13.3
설탕(정제)	6.4	72	246	151	328	245	229	267	10.5
식품조제품	4	18	16	44	229	273	105	202	8.0
음식물쓰레기	0.4	19	37	94	99	85	109	98	3.9
유아식	3.2	5.6	11	25	64	75	85	75	2.9
맥아	1.6	3.7	13	38	49	62	83	65	2.6
대두박	-	-	4	29	54	47	25	42	1.7
보리맥주	2.4	30	35	54	60	35	26	40	1.6
증류주	0.3	22	4.1	9	32	46	12	30	1.2
패스트리	2.8	8.6	4.4	11	25	36	16	26	1.0
식물사료	-	-	-	27	28	29	9.7	22	0.9
옥수수	0.1	2.3	1.2	0.8	7	17	40	21	0.8
설탕과자	1.4	7.6	3.4	6.5	22	19	18	20	0.8
담배(무가공)	6.5	5.3	15	19	14	16	13	14	0.6
원료물질	0.3	0.6	2.7	2.5	12	17	10	13	0.5
양조맥주	-	-	0.4	4.2	12	14	10	12	0.5
웨이퍼	0.1	-	-	0.8	5.3	8.8	11	8	0.3
빵	0.1	0.02	0.003	0.9	6.9	4.7	9.4	7	0.3
마카로니	0.1	0.9	0.3	2.2	1.7	1.4	15	6	0.2

자료 : FAO STAT

[표 2-40]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출

(단위: 백만 \$, %)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17~ 19년 평균	비중
전체	19	38	187	587	1,064	948	926	979	100.0
쌀(도정)	0.07	0.9	34	284	348	348	421	372	38.0
백미	-	0.5	32	282	307	307	415	343	35.0
천연고무(건조)	6.2	8.3	81	161	217	217	219	218	22.2
설탕(정제)	-	-	0.003	18	74	74	39	62	6.4
바나나	-	-	-	-	16	16	49	27	2.8
애완동물식품	-	-	5.5	22	34	34	13	27	2.8
카사바(분말)	-	-	2.4	18	27	27	26	27	2.7
팜오일	-	1.1	9.4	9.6	22	22	24	23	2.3
분밀당	-	-	4.5	1.2	22	22	14	19	2.0

담배	1.8	11	8.8	17	20	20	17	19	1.9
담배(무가공)	0.5	0.8	3	6.4	20	9.3	11	13	1.4
당밀	-	0.004	0.5	5.9	12	12	10	11	1.2
망고	-	-	-	0.09	9.6	16	3	10	1.0
고추	-	0.003	0.007	1.5	7.7	7.7	9.3	8	0.8
전지연유	-	-	-	-	4.9	8.6	4.6	6	0.6
가공식품	-	0.08	0.003	1.4	4.1	6.9	3.6	5	0.5
패스트리	-	0.04	0.015	0.2	0.7	0.7	7.4	4	0.4
캐슈너츠	-	0.4	0.08	0.4	1.7	1.7	6.4	4	0.4
견과류(가공)	-	-	-	0.09	0.02	0.1	9.4	3	0.3
현미	0.09	-	0.05	0.02	2.8	2.8	3.4	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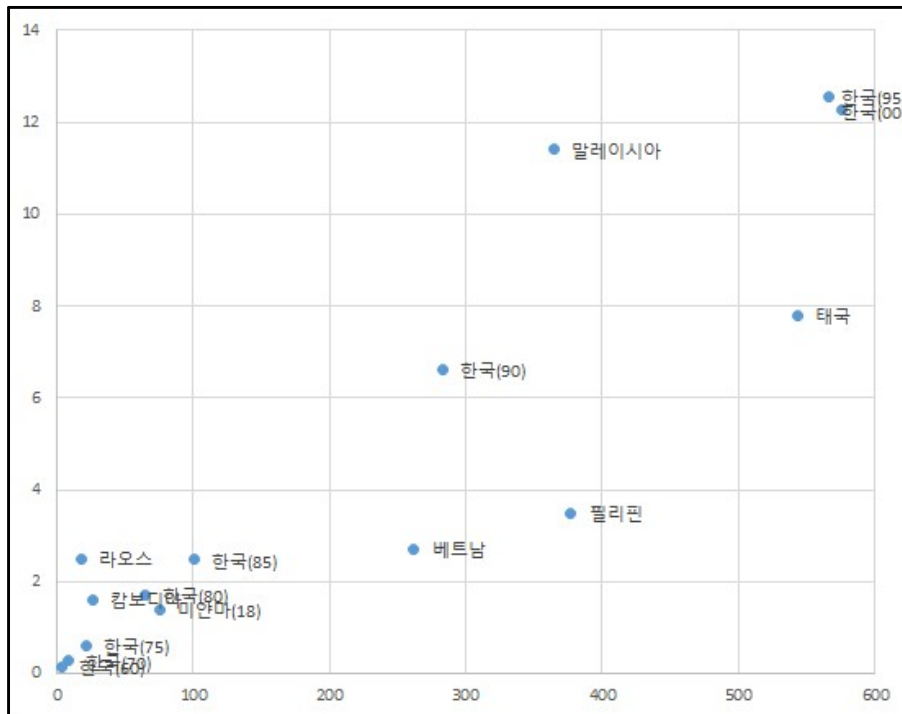
자료 : FAO STAT

2. 경제, 농업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과거 GDP 및 1인당 GDP와 비교하였을 때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한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이며 베트남과 필리핀은 GDP는 한국의 90년 초반 수준에 이르렀으나 1인당 GDP는 80년대 후반 수준임(그림 2-1).
 - 아세안 역내에도 회원국간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협력 방안을 각 국가의 경제 수준 및 수요에 부합하도록 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2-1] 국별 GDP-1인당GDP 위치 (2019)

(단위: X축: 백만 달러, Y축: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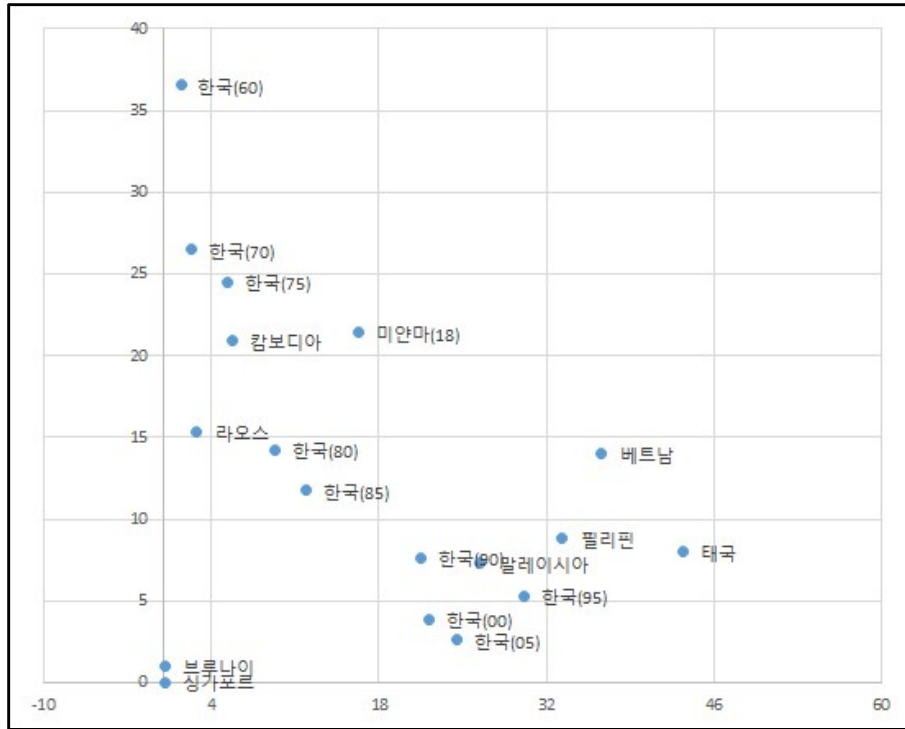


주석 : 인도네시아 총GDP 1119.2, 1인당 GDP 4.1, 싱가포르 총GDP 372.1, 1인당GDP 65.2, 브루나이 총GDP 13.5, 1인당GDP 31.1는 그래프에서 많이 벗어나 제외하였음.

- 농업 GDP와 농업GDP의 비중을 살펴봐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국내 경제에서 농업의 규모나 비중이 낮은 반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는 있으나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농업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자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농업GDP 142.3 십억 달러로 농업 규모가 우리나라나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큼(그림 2-2).

[그림 2-2] 국별 농업GDP-농업GDP비중 위치 (2019)

(단위: X축: 십억 달러, Y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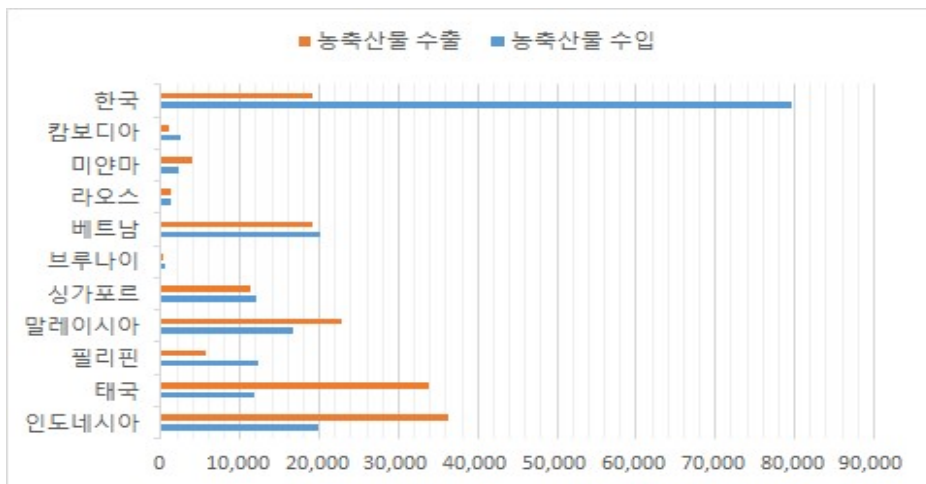
주석 : 인도네시아 농업GDP 142.3, 농업비중 12.7.

○ 각 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순수출국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이며, 다른 국가들은 순수입국임(그림 2-3).

-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제외하고는 수입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지 않으나 주로 원료 농산물을 수출하고 가공조제품을 수입하고 있음(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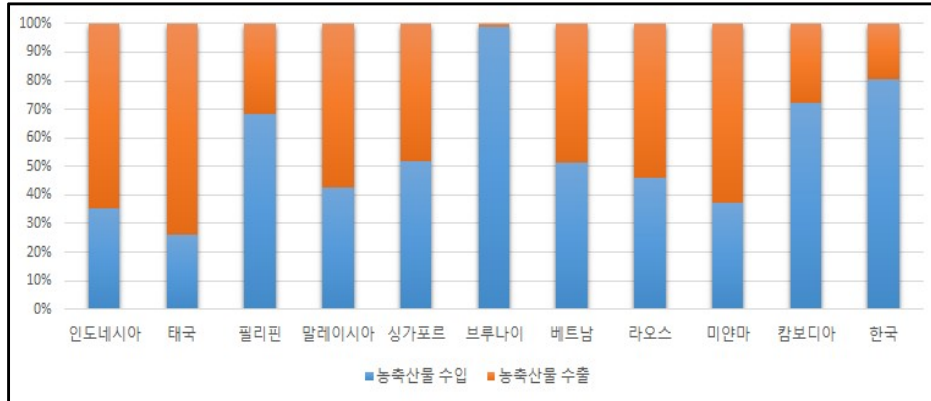
[그림 2-3] 국별 농축산물 수입 수출액 (2017~2019)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4] 국별 농축산물 수입 수출 비중 (2017~2019)

(단위: %)



제3장

한·아세안 농업 교역 및 민간투자 협력 여건분석

1. 한·아세안 국별 농식품 교역 현황

1.1. 인도네시아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의 농축산물은 주로 팜유, 팜 스테아린, 파암넛 등의 열대류 품목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커피크리머, 라면, 낫시용 떡밥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1, 표 3-2).
 - 팜유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입량이 9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잎담배와 제조담배나 커피가 한국에서 가공되어 흡연용담배로 수출되고 있음.

[표 3-1] 우리나라의 對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413,671	428,106	588,954	491,316	636,330	543,599	541,337	573,755
팜유	10,181	3,321	50,770	43,438	140,274	60,836	96,909	99,340
팜 스테아린	26,477	29,815	41,859	80,353	81,374	115,027	90,454	95,618
파암넛	50,811	48,998	72,730	52,439	63,320	56,176	68,246	62,581
야자유	102,831	74,270	68,304	51,828	72,888	41,363	30,003	48,085
글루탐산나트륨	25,211	16,536	20,119	18,868	24,062	39,127	38,920	34,036
야자	38,072	56,104	42,824	22,923	22,674	21,713	10,330	18,239
제조담배	0	-	-	-	5,042	18,322	21,619	14,994
밀기울	35,878	51,891	39,872	18,624	13,111	8,940	15,205	12,419
커피	8,253	7,006	8,326	11,293	11,975	11,298	10,538	11,270
핵산	9,048	6,206	9,753	12,443	12,182	12,376	8,180	10,913
스위트비숫킷	285	256	4,459	7,512	8,030	9,422	9,453	8,968

당밀	30,613	29,827	77,347	12,015	16,793	3,080	4,960	8,278
동식물성 유지	0	3,978	5,379	4,017	29	9,926	12,726	7,560
기타식물성유지	1,236	-	4,141	4,670	7,331	6,997	7,937	7,422
과실견과기타	4,915	4,594	4,707	6,810	7,309	7,067	6,391	6,922
베이커리용 반죽	2,531	2,404	3,469	3,803	6,758	4,756	8,177	6,564
와플과 웨이퍼	1,839	-	8,496	5,380	5,163	5,232	4,626	5,007
팜핵유	2	50	504	2,098	4,605	3,080	3,734	3,806
식품공업용의것	0	2,852	2,927	3,652	2,974	3,688	4,598	3,753
잎담배	0	1,623	172	58	1,134	1,074	1,843	1,350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2] 우리나라의 對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104,285	117,802	148,151	136,049	179,206	161,014	156,994	165,738
커피크리머	34,168	34,330	37,674	34,137	41,264	36,832	33,691	37,262
라면	2,335	2,673	2,565	11,246	18,157	21,893	11,998	17,349
낚시용 떡밥	-	-	22,841	18,009	16,709	12,348	12,571	13,876
음료	716	576	1,567	4,085	19,337	8,163	7,913	11,804
프로필렌글리콜	-	-	7,828	6,875	10,352	7,893	8,633	8,959
조제품 기타	9,831	8,360	8,966	7,841	8,428	5,959	9,247	7,878
제조담배	-	-	-	2,796	6,732	6,510	8,855	7,366
자당	5,195	4,602	4,465	4,355	4,743	4,493	2,933	4,056
양모의 것	0	85	1,743	439	1,550	4,473	3,765	3,263
아조디카본아미드	2,168	2,291	2,842	3,595	3,184	3,411	2,247	2,947
보조사료	-	233	199	-	2,665	2,034	2,462	2,387
말산	1,194	864	83	941	1,636	3,036	1,976	2,216
흡연용담배	-	-	536	1,800	2,299	1,411	2,929	2,213
밀가루	123	31	1,152	1,267	1,890	2,063	1,854	1,936
물	107	155	299	130	2,378	603	2,393	1,791
조제식품 기타	-	-	91	288	885	785	3,522	1,731
식물성 점진물	621	-	-	544	1,671	1,459	1,420	1,517
판상엽	-	-	172	610	1,369	1,197	1,774	1,447
기타 원피	-	-	853	-	1,232	1,398	1,479	1,370
소주	260	318	-	321	1,322	1,259	1,362	1,314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2. 태국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태국의 농축산물은 사탕수수, 닭고기, 자당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라면, 라신의 염, 초분류 쌀기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3, 표 3-4).
 - 사탕수수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량이 약 70%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라면 수출이 전체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3] 우리나라의 對 태국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761,737	773,823	661,787	498,392	756,657	806,611	676,944	746,737
사탕수수	-	226,506	121,859	19,168	167,490	178,955	52,963	133,136
닭고기	41,044	44,334	60,498	62,050	101,017	127,599	116,075	114,897
자당	848	10,361	30,776	35,660	37,599	36,428	34,147	36,058
망고	4,155	6,489	22,177	27,292	37,587	36,263	27,567	33,806
에스테르전분	16,008	17,092	20,347	23,626	31,887	33,047	33,976	32,970
스위트콘	14,121	17,000	17,451	23,057	25,089	24,411	29,483	26,328
조제품 기타	13,994	13,182	12,877	14,330	19,609	23,302	25,135	22,682
당밀	45,245	71,704	41,877	33,424	11,192	28,782	17,951	19,308
매니옥 펠리트	49,018	69,652	50,498	25,162	19,848	18,307	17,752	18,636
미강유	21,095	19,273	19,250	19,030	17,281	16,619	17,824	17,241
과실견과	10,622	11,858	12,579	16,576	17,186	15,505	15,848	16,180
닭다리	-	-	-	-	6,995	21,631	19,509	16,045
소스류	7,232	8,460	11,104	10,687	16,169	13,719	15,125	15,004
스웰링전분	5,790	4,840	7,382	10,191	11,549	9,479	14,440	11,823
국수	5,057	5,587	6,356	7,284	11,253	8,936	7,180	9,123
견과류조제품	-	-	-	1,115	9,785	3,199	4,994	5,993
드롭프스	-	128	892	4,779	5,537	6,203	5,540	5,760
과실주스 음료	-	-	55	1,115	3,809	6,516	6,175	5,500
복숭아	1,007	1,236	3,081	2,847	3,977	3,299	4,658	3,978
스위트 비숫킷	475	622	457	1,169	924	3,131	4,430	2,828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4] 우리나라의 對 태국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122,170	50,890	76,253	113,137	178,056	191,212	213,431	194,233
라면	1,938	1,666	1,862	6,259	19,265	19,017	26,823	21,702
라신의 염	6,251	8,920	7,114	3,673	4,529	4,379	15,017	7,975
초분류 말기	1,209	1,555	2,701	4,150	5,824	6,727	7,727	6,759
조제품기타	53,156	663	2,944	4,909	4,885	4,821	8,022	5,909
커피엑스	4,752	6,972	11,536	881	4,002	5,252	4,676	4,643
소스	166	265	692	2,209	3,341	3,780	6,782	4,634
밀가루	1,291	1,056	1,318	1,303	2,819	3,121	3,822	3,254
프로필렌글리콜	-	-	2,361	2,534	3,676	2,450	2,602	2,909
밀크대용물	6	6	23	1,282	174	2,606	2,880	1,887
비스킷	1,305	1,598	2,129	2,744	1,705	1,769	1,895	1,790
조제식료품	1	514	1.7	383	592	1,171	2,009	1,257
소주	415	574	813	1,195	1,445	1,033	1,217	1,232
고추장	161	246	361	494	837	780	1,662	1,093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0	73	290	395	749	840	1,068	886
김치	130	127	357	391	490	792	1,282	855
주류	-	-	2,023	20	776	731	897	801
초콜릿	200	417	507	495	553	843	934	777
포도	17	18	21	65	212	694	1,411	772
아이스크림	192	139	310	612	819	563	855	746
국수	42	80	400	617	563	561	723	616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3. 필리핀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필리핀의 농축산물은 바나나, 파인애플, 야자유 등 주로 열대 과일을 수입하고 있으며 라면, 조제품 기타, 소스 제조용 조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5, 표 3-6).
 -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총수입량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총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3-5]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81,392	102,129	406,752	432,533	417,169	364,749	332,736	371,551
바나나(기타)	-	-	246,763	287,014	280,266	236,992	205,772	241,010
파인애플 (신선, 건조)	43,819	50,562	60,740	54,173	57,999	53,979	46,808	52,929
파인애플 (기타 방법 조제)	6,770	9,598	8,807	11,970	13,418	13,299	14,178	13,632
야자유 (정제유)	5,015	155	311	1,766	370	5,910	18,325	8,201
과실견과기타 (조제저장처리)	3,952	5,888	8,443	9,211	7,618	6,133	5,945	6,565
과실 각테일	-	-	12,823	10,379	6,366	5,921	6,810	6,366
망고 (신선, 건조)	1,014	1,760	7,992	15,352	7,019	4,480	3,264	4,921
비스킷	2,291	3,995	4,934	7,314	3,871	5,639	4,797	4,769
스위트 비스킷	972	1,348	1,909	3,785	3,493	3,613	996	2,701
과실혼합물 기타	-	-	510	615	2,907	2,231	2,120	2,419
코코넛 (신선, 건조)	1,745	2,738	3,747	3,425	2,646	1,664	2,181	2,164
과실류의 분	1,666	2,822	1,563	2,474	2,242	1,918	2,103	2,088
맥주	1,226	1,510	2,914	2,815	2,244	1,983	1,553	1,927
식물성 점질물	273	757	1,048	697	1,227	1,095	2,240	1,521
파인애플주스 (기타)	218	388	952	1,137	1,217	1,735	1,490	1,480
당밀(사탕수수 추출물)	5,990	10,674	4,040	-	4,271	0	0	1,424
베이커리 제품	62	488	1,192	3,535	1,608	1,439	699	1,249
과실, 견과류	811	1,008	1,243	1,709	784	1,104	1,632	1,173
캔디류	987	683	691	1,144	1,046	1,172	1,216	1,145
감귤류 주스 기타	39	0	4	291	1,725	781	204	904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6]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71,532	79,559	98,924	116,516	103,785	112,926	152,033	122,915
라면	4,624	5,822	9,990	9,356	12,094	14,436	23,671	16,734
조제품 기타	4,457	5,265	10,903	12,095	16,595	16,516	16,694	16,601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444	1,720	3,092	2,717	5,006	4,474	5,483	4,988
아이스크림(코코 아를 함유한 것)	1,593	2,101	3,230	2,648	4,431	5,070	4,788	4,763
비스킷	231	227	1,760	5,166	5,896	4,168	3,676	4,580
소주	1,111	1,275	1,700	2,215	4,877	4,257	4,494	4,543
기타리큐르류	-	-	-	-	311	2,077	10,557	4,315
커피엑스,	2,574	4,448	1,854	2,403	3,462	2,827	4,577	3,622
라신의 염	143	1,557	2,111	2,187	3,916	3,391	3,171	3,493
파스타	168	456	1,206	1,026	2,137	2,693	4,945	3,258
음료(알콜x)	-	-	-	-	2,082	3,145	4,300	3,176
곡류제조품	3,101	2,055	222	29	2,879	4,173	155	2,402
혼합조미료	1,849	2,155	2,840	3,160	3,185	3,188	817	2,397
고추장	392	536	651	854	1,773	1,972	3,071	2,272
베이커리제품	1,633	1,812	2,622	1,094	1,871	2,442	2,199	2,171
유자 (기타방법 조제)	1	1	1	162	418	908	4,565	1,964
자당	11,250	2,467	2,709	2,046	2,281	1,746	1,544	1,857
곡류 조제품	263	390	238	43	28	660	4,096	1,595
장류	26	142	170	195	522	1,287	2,762	1,524
단감(신선)	-	-	1,022	1,110	1,111	1,598	1,799	1,502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4.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말레이시아의 농축산물은 베이커리 제품, 팜 스테아린, 팜 올레인 등이며 라면, 조제품, 옥수수 전분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7, 표 3-8).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총수입량은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 전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수출량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3-7]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172,241	286,019	310,493	272,467	250,949	245,660	256,016	250,875
베이커리 제품	22,033	33,837	40,402	36,002	59,196	46,705	54,257	53,386
팜 스테아린	49,933	58,173	87,175	59,293	32,655	44,438	43,298	40,130
팜 올레인	34,479	82,632	51,499	40,508	34,432	35,231	38,411	36,025
조제품 기타	1,673	2,718	7,162	7,186	7,309	9,703	10,468	9,16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	95	290	590	10,711	7,726	8,281	8,906
코코아 웨이스트	7,967	9,090	6,014	9,912	7,378	6,465	8,181	7,34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기타)	66	650	664	1,220	7,194	7,282	6,629	7,035
자당	76	8,684	36,477	12,565	6,734	5,237	6,927	6,299
커피(볶은 것)	284	0	4,235	25,083	6,749	5,478	5,277	5,835
설탕과자류	229	568	475	2,537	7,487	5,793	3,792	5,690
팜핵유	7,600	14,646	5,214	4,987	7,087	3,985	4,193	5,088
코코아조제품 (숙을 채우지 않은 것)	0	1	1	6	615	6,697	6,476	4,596
당시럽	996	1,739	2,368	5,123	5,159	4,496	4,046	4,567
스위트 비숫킷	190	289	665	3,571	4,166	4,368	4,715	4,416
커피엑스	613	1,987	2,012	3,258	5,044	4,746	2,910	4,233
코코아 가루	5,848	9,563	6,688	3,125	2,868	3,445	4,026	3,446
조제 탄산칼슘	-	-	-	-	3,313	3,453	2,725	3,164
와플과 웨이퍼	1,229	1,996	1,400	1,564	2,160	3,041	3,845	3,015
쇼트닝	1,994	1,941	2,295	2,359	2,845	2,780	2,278	2,634
단세포 미생물	-	-	0	1,065	2,005	2,059	3,046	2,370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8]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43,579	60,173	55,918	64,211	92,967	93,353	117,619	101,313
라면	2,684	3,334	4,176	5,659	19,655	16,497	19,185	18,446
조제품 기타	10,798	18,307	3,607	4,471	8,417	12,684	17,346	12,816
옥수수전분(식품용)	8,418	10,715	7,273	7,309	7,552	9,073	8,040	8,222
초본류 딸기(신선)	2,140	1,646	3,226	3,649	4,558	4,634	3,776	4,323
커피엑스	2,242	3,945	3,173	3,278	3,346	3,703	4,895	3,982
비스킷	342	546	1,997	5,161	3,234	3,801	3,783	3,606
단감(신선)	-	-	4,308	3,984	2,919	2,611	3,088	2,873
코코아 조제품	0	1	0	23	3,418	1,955	2,058	2,477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13	0	2	14	4,595	833	967	2,132
음료(알콜x)	-	-	-	-	1,515	1,617	1,849	1,66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86	380	654	652	1,096	1,577	2,254	1,642
프로필렌글리콜	-	-	-	1,997	1,676	1,444	1,471	1,530
라신의 염	1,958	3,800	2,825	1,780	1,869	779	1,734	1,461
인스탄트면 면류 (라면 이외 기타)	43	76	604	730	2,027	1,106	901	1,345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155	187	775	1,173	1,364	1,382	1,226	1,324
소주	181	306	435	735	1,340	1,009	1,550	1,300
베이커리 제품	1,172	1,145	2,682	1,564	719	745	2,202	1,222
조제식료품기타 (쌀가루의 것)	143	178	334	326	650	1,210	1,805	1,222
동식물성 유지	-	-	0	-	26	20	3,272	1,106
큰느타리버섯 (신선,냉장)	260	469	521	0	1,286	1,015	1,003	1,101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5. 싱가포르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농축산물은 콜라베이스, 조제품 기타, 공업용 식품 등이며 조제품, 초본류 딸기, 라면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9, 표 3-10).
-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의 동향을 보면 콜라베이스가 2018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가장 많은 비중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제품류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음.

[표 3-9] 우리나라의 對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97,029	109,297	128,524	119,903	146,793	155,990	161,325	154,703
콜라베이스	-	-	-	-	24,911	27,616	27,616	26,714
조제품 기타	9,106	9,978	12,643	7,508	14,702	13,633	13,633	13,989
식품공업용의 것	-	6,881	9,595	11,913	12,628	13,547	13,547	13,241
동·식물성 유지	10,125	9,790	8,236	10,168	11,344	11,264	11,264	11,291
코코아 조제품	-	9,572	19,693	8,533	7,572	11,961	11,961	10,498
초코렛	11,199	8,607	12,744	12,776	11,506	8,972	8,972	9,817
코코아 가루	9,971	11,099	5,781	8,754	7,031	7,446	7,446	7,308
프로필렌글리콜	-	-	1,971	4,237	7,663	7,003	7,003	7,223
낱시용 떡밥	-	-	2,898	6,036	8,040	6,693	6,693	7,142
향미용 조제품	3,118	4,253	3,917	3,804	4,907	6,342	6,342	5,864
음료공업용의 것	-	3,481	3,668	3,855	4,613	5,726	5,726	5,355
코코아 버터	1,770	-	1,791	3,193	3,981	3,195	3,195	3,457
마가린	-	-	-	4,899	3,298	3,297	3,297	3,297
보조사료	1,590	3,014	746	3,490	4,023	2,864	2,864	3,250
설탕과자류	631	-	1,019	2,080	2,722	3,239	3,239	3,067
소스	1,044	-	1,829	2,484	2,627	3,136	3,136	2,966
홍차	-	-	-	97	1,585	2,214	2,214	2,004
주류	-	-	-	51.	974	2,183	2,183	1,780
과실향의 베이스	-	-	-	-	1,744	1,708	1,708	1,720
사과주	-	-	-	12	1,337	1,478	1,478	1,431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10] 우리나라의 對 싱가포르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78,450	93,818	106,724	101,344	110,119	120,697	148,863	126,560
조제품 기타	4,663	5,639	5,222	6,432	7,426	12,724	20,899	13,683
초본류 딸기	5,212	6,992	11,075	10,242	11,235	13,740	14,040	13,005
라면	2,441	2,617	3,323	7,479	7,874	6,844	9,373	8,030
비타민B2	6,382	9,299	10,967	7,332	8,989	7,446	5,796	7,410
필터담배	6,084	10,252	17,209	12,195	9,521	9,058	2,877	7,152
혼합조미료	-	-	-	915	4,271	6,957	5,472	5,567
맥주	6,868	7,142	3,965	5,202	4,270	3,960	5,029	4,420
자당	1,040	364	249	-	466	959	7,228	2,884
김치	830	975	1,211	1,509	1,694	2,251	4,029	2,658
프로필렌글리콜	-	-	419	563	324	1,203	6,284	2,604
커피엑스	2,683	2,111	2,590	1,860	2,233	2,601	2,911	2,582
소스	406	832	1,454	2,063	1,946	2,038	2,335	2,106
비스킷	1,181	1,706	5,470	2,836	2,163	1,938	1,684	1,928
밀가루	2,103	2,006	1,644	2,126	1,563	1,924	1,846	1,778
동식물성 유지	722	766	592	-	2,806	0	2,023	1,610
포도	251	420	440	860	1,547	1,226	1,864	1,546
베이커리 제품	192	231	485	999	820	994	2,590	1,468
음료(알콜x)	282	420	559	1,242	1,269	1,336	1,558	1,388
기타리큐르류	-	-	-	-	113	699	1,935	916
신선란	-	-	-	-	0	64	1,505	523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6. 브루나이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브루나이의 농축산물은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하며, 라면, 음료, 비스킷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11, 표 3-12).

[표 3-11] 우리나라의 對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수입	0.1	0.1	75.1	0.4	0.2	0.5	0.2	0.3
커피	-	-	74.8	0.0	0.0	0.4	0.0	0.13
조제품기타	0.0	0.0	-	0.0	0.1	0.1	0.2	0.13
베이커리제품	-	-	-	-	0.1	0.0	0.0	0.03
비스킷	0.1	0.0	0.0	0.1	-	-	-	-
코코아가루	-	-	-	0.1	-	-	-	-
국수	-	-	0.0	0.1	-	-	-	-
파이와 케이크	-	-	0.1	-	-	-	-	-
장류	-	-	0.2	-	-	-	-	-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12] 우리나라의 對 브루나이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130	105	586	761	2,035	1,772	1,879	1,895
라면	16.7	25.7	68.3	80.6	751.5	775.8	855.2	794.2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	-	-	-	244.6	228.8	393.7	289.0
비스킷	62.3	46.1	96.7	400.4	196.3	230.6	103.1	176.7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	-	-	-	196.3	156.1	137.5	163.3
베이커리 제품(탄산수	-	-	-	17.9	158.2	90.1	61.6	103.3
아이스크림(코코 아를 함유한 것)	-	-	16.2	59.2	62	50.7	50.7	54.5
파스타	-	-	-	7.8	50.8	62.5	22.6	45.3
채소류 조제품	-	-	-	6.2	31.5	68.3	16.3	38.7
조제품 기타	-	-	-	1.9	89.8	1.6	14	35.1
밀크대용물함유 조제품	26.3	0.7	-	-	0	20.8	50.3	23.7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	-	-	-	6.4	39.2	23.5	0	20.9
고추장	-	-	-	-	0.4	7.3	51.2	19.6
김치	0.1	0	-	12.1	31.8	2.4	14.6	16.3
견과류 조제품	-	-	0	-	28.6	2.5	3.8	11.6
	-	-	-	0.9	10.6	1.3	18.4	10.1

초본류	-	-	-	0	0	6.1	24	10.0
딸기(신선)	-	-	-	-	-	-	-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	-	-	3.2	5.9	14.2	7.8
식혜	-	-	-	-	2.5	3.5	16.6	7.5
장류	-	-	-	0.3	19.8	0	0	6.6
당면	-	-	-	2.8	5.3	0.1	3.8	3.1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7. 베트남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베트남의 농축산물은 견과류 조제품, 매현미, 커피 등이며 필터담배, 음료수, 닭고기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13, 표 3-14).

[표 3-13]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252,757	356,615	418,850	357,936	521,416	446,876	524,060	497,450
견과류조제품	94,613	630	7,371	27,090	38,956	57,070	55,578	50,535
매현미	19,218	7,938	20,477	4,185	81,073	1,896	52,874	45,281
커피	86,641	73,672	69,008	53,009	55,903	30,126	47,040	44,356
캐슈넛헬액	-	977	1,824	16,520	31,078	41,807	43,168	38,684
매니옥칩(건조)	13,709	48,461	58,787	22,410	26,423	23,695	31,249	27,122
캐슈넛(탈각)	633	748	3,010	10,993	12,406	14,797	18,125	15,109
과실, 견과류	3,769	6,556	15,853	20,275	13,496	13,817	16,912	14,742
후추	11,454	16,390	27,544	32,219	15,900	13,832	13,242	14,325
캐프시컴속	7,527	6,130	14,441	8,174	12,829	8,019	17,330	12,726
캔디류	16,603	15,998	17,126	21,228	14,694	10,880	10,912	12,162
커피엑스	1,828	5,264	1,270	2,564	8,126	9,809	10,439	9,458
과실 주스	-	-	51	-	3,619	11,544	7,364	7,509
라이스 페이퍼	2,628	3,312	4,589	5,825	7,857	6,122	6,993	6,991
과실견과기타	628	1,830	3,353	3,433	4,185	6,097	6,721	5,668
오이류	6.9	174	3,136	4,881	5,190	5,865	5,481	5,512

계피	1,762	103	3,428	4,205	4,472	5,796	6,046	5,438
국수	1,108	898	1,071	1,708	4,030	5,061	6,311	5,134
조제품기타	-	-	3,013	2,872	3,580	4,582	5,534	4,565
바나나	-	-	82	582	4,579	4,153	4,857	4,530
젤라틴	-	-	-	-	1,067	3,633	5,421	3,374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14]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168,331	221,159	258,030	342,325	385,966	470,233	462,560	439,586
필터담배	43,821	72,373	66,682	88,987	43,112	42,559	27,249	37,640
음료수	-	1,256	3,296	11,664	26,736	31,868	31,474	30,026
닭고기	9,069	8,233	15,504	14,214	15,096	29,006	35,666	26,589
조제품기타	4,759	4,807	5,929	11,088	15,426	25,311	35,021	25,253
과당시럽	3,266	8,250	2,507	12,325	13,851	23,448	19,552	18,950
라면	1,747	2,860	3,540	6,956	14,870	19,159	14,163	16,064
조제분유	7,453	9,754	9,400	7,583	8,554	14,163	18,779	13,832
배(신선)	88	-	1,279	4,960	16,450	16,054	8,477	13,660
홍삼조제품	1,927	1,826	3,375	4,570	7,444	10,101	10,377	9,307
닭다리(냉동)	1,042	3,969	2,679	3,080	6,186	10,868	6,745	7,933
소스류	13	1,486	1,839	2,740	4,582	7,881	7,252	6,572
포도(신선)	60	32	-	599	4,392	5,914	8,148	6,151
초분류말기	-	-	-	1,042	3,655	6,685	6,489	5,610
동물성유지	-	-	2,086	-	3,779	6,227	6,001	5,335
인삼음료	457	443	657	1,319	2,742	5,512	7,689	5,314
아이스크림	1,451	1,660	-	3,314	5,457	6,555	3,839	5,284
캔디류	1,485	1,000	2,751	3,050	4,536	5,863	5,432	5,277
닭기타절단육(냉동)	1,738	3,505	1,314	830	2,409	4,759	6,748	4,639
소주	852	977	1,834	2,632	5,501	4,229	3,846	4,525
베이커리제품	483	3,077	6,611	2,301	3,373	4,288	4,216	3,959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8. 라오스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라오스의 농축산물은 커피(볶지 않은것), 캐슈넛(탈각), 건조한 과실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라면, 소스 제조용 조제품, 소주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15, 표 3-16).

- 2020년 기준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약 80%가 커피(볶지 않은것)로 대부분 커피(볶지 않은것)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라오스로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40%가 라면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5]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69	442	348	2,685	2,387	3,313	1,269	2,323
커피 (볶지 않은 것)	17.8	338.1	296.6	2,143.6	532	1,839	1,003	1,125
캐슈넛(탈각)	-	-	-	-	605	-	163	384
건조한 과실	0	1.4	0.7	0	556	-	0	278
기타버섯(건조)	-	-	20.5	189	104	297	25	142
사인(砂仁)	-	-	-	-	0	195	18	71
과실 주스(기타)	-	-	7.5	6.4	71	-	31	51
맥주	11.6	8.3	14.9	28.9	38	30	22	30
커피조제품 기타	-	-	-	-	8	21	0	10
커피엑스	0	0	0.1	0.1	15	8	0	8
커피(볶은 것)	34	0	0.3	0	6	-	0	3
추출올레오레진 (기타)	-	-	4.8	1.9	0	-	5	2
혼합주스(과실, 채소 이외의 것)	-	-	-	-	3	1	0	1
기타(정유·감귤 류이외의 것)	-	-	-	-	2	-	0	1
쪽파(신선, 냉장)	-	-	-	-	0	-	1	1
조제품 기타	-	-	1.2	5.1	1	0	0	0
핵산	-	-	0.1	0.2	0	0	0	0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16] 우리나라의 對 라오스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109	41	644	1,175	3,950	2,297	3,271	3,173
라면	25	0	82	298	1,216	522	1,377	1,038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9	0	6	17	290	209	107	202
소주	11	33	52	66	217	225	118	187
곡류 조제품	-	-	-	0	499	0	0	166
돼지고기(식용설 육/족/냉동)	-	-	-	-	0	39	414	151
조제품 기타	0	0	4	112	194	208	36	146
음료(알콜x)	-	-	-	-	66	85	86	79
기타리큐르류	-	-	-	-	0	64	164	76
쇠고기(조제/밀 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	-	-	-	55	35	109	66
물	-	-	-	-	101	87	0	63
베이커리 제품	53	0	-	92	57	34	73	55
인스턴트면 면류 (라면 이외 기타)	-	-	-	47	110	17	15	47
동물의 위	-	-	64	-	92	12	37	47
소식용설육 (기타/냉동)	-	-	-	4	21	32	86	46
웨이퍼	-	-	1	-	79	31	26	45
고추장	-	-	1	44	27	35	64	42
주류	-	-	3	-	0	43	58	34
파스타	-	-	-	30	36	30	21	29
빙과류	-	-	-	4	33	42	10	28
닭고기 (기타조제저장)	-	-	-	-	23	14	41	26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9. 미얀마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미얀마의 농축산물은 견과류 저제품, 토란줄기(건조), 들깨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라면, 조제품 기타, 라신의 염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17, 표 3-18).
-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가운데 60%가 견과류 조제품으로 나타났으며 미얀마로 수출하는 농축산물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3-17] 우리나라의 對 미얀마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18,763	39,433	63,391	46,600	35,127	38,211	33,101	35,479
견과류 조제품	9,961	21,362	50,712	34,067	22,409	25,479	20,074	22,654
토란줄기(건조)	1,175	1,059	1,016	1,142	1,487	1,456	1,125	1,356
들깨	36	0	-	0	597	981	2,013	1,197
사인	-	-	-	-	1,021	1,155	851	1,009
산조인	-	-	-	-	746	906	1,110	921
캐슈넛(탈각)	28	0	571	652	899	603	105	536
식물성 산물(식용)	-	-	-	13	214	598	213	342
커피	0	141	38	205	246	139	130	172
캡시컴속	-	-	-	7	0	94	301	132
맥주	0	19	11	27	0	118	78	65
차, 마태 조제품	-	-	-	22	28	50	53	44
쪽파(신선, 냉장)	-	-	-	-	0	20	92	37
기타채소(건조)	0	0	68	1	7	94	1	34
로얄제리	19	37	47	30	48	1	33	27
위스키류	-	-	-	11	14	10	13	12
전화당과 그 밖의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	-	-	0	5	9	26	1	12
심황(강황)	80	50	18	4	2	3	20	8
커피(볶은 것)	-	-	-	3	0	9	0	3
성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	-	-	0	1	6	0	2
코리앤더의 씨	-	-	-	-	0	2	5	2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18] 우리나라의 對 미얀마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2,018	3,235	4,042	7,952	13,035	13,388	15,186	13,869
라면	288	292	967	1415	2108	2995	5105	3403
조제품 기타	26	0	185	531	1400	1632	1509	1513
라신의 염	1096	2022	647	1183	1430	1271	1499	1400
커피크리머	193	96	70	80	1833	1107	1129	1356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61	23	113	287	754	952	926	878
닭고기	-	-	89	382	529	553	527	536
비스킷	37	136	183	225	658	335	343	445
음료(알콜x)	-	-	-	-	527	362	304	398
쇠고기(조제)	-	-	47	243	318	415	459	397
홍삼조제품	0	0	8	86	241	450	348	347
파이와 케이크	48	16	0	61	272	218	171	220
고추장	17	29	48	50	106	232	205	181
팽이버섯 (신선/냉장)	-	-	-	8	151	190	154	165
인스탄트면 면류 (라면 이외 기타)	-	-	69	155	148	143	169	153
커피엑스	0	39	121	213	137	165	137	146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	-	1	6	173	95	145	137
프로필렌글리콜	-	-	-	-	208	83	56	115
시트르산 칼슘	-	-	-	33	72	69	200	114
소주	53	61	87	55	65	169	92	108
치즈(가공)	-	-	82	68	95	117	98	103

주. 실포품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1.10. 캄보디아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캄보디아의 농축산물은 조주정, 미과, 과일 주스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물, 조제분유, 라면 등을 수출하고 있음(표 3-19, 표 3-20).
 -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의 총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이는 조주정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3-19] 우리나라의 對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입	71	14,326	16,668	9,911	16,938	19,472	8,711	15,040
조주정	-	6,261	6,288	5,313	12,482	14,093	2,655	9,743
미과	-	-	-	44	428	404	369	400
과실 주스	-	10	2	6.5	228	240	26	165
당류	-	-	17	-	112	207	159	159
망고	-	-	-	-	49	53	333	145
견과류 조제품	-	23	0.4	3.1	180	-	183	121
후추	-	-	-	129	106	91.7	28	75
캐슈넛(탈각)	0.6	-	-	26	10	55	50	38
맥주	0.1	-	-	18	16	22	21	20
캐슈넛	-	-	-	-	-	1.1	50	17
찌거나 삶은 쌀	-	-	-	-	-	10	18	9
과실견과기타	-	-	35	154	9.5	6.7	11	9
기타 향신료	-	-	-	-	16	-	10	9
불활성 효모	-	-	-	-	-	-	8.8	3
국수	-	-	-	-	-	-	7.7	3
차, 마태 조제품	-	-	-	0.5	-	-	6.1	2
후추(건조)	-	-	-	-	0.8	0.1	4.4	2
천연꿀	-	-	-	2.7	2.2	-	2.8	2
채소(냉장)	-	-	-	-	1.4	-	3.1	2
연자육	-	-	-	-	-	-	3.3	1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표 3-20] 우리나라의 對 캄보디아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	2010	2011	2013	2015	2018	2019	2020	'18~'20 평균
총 수출	27,884	48,618	61,442	74,541	88,994	101,551	95,896	95,480
물	4,872	15,078	32,221	53,318	68,363	82,174	72,086	74,208
조제분유	577	829	1,064	3,817	6,142	2,723	4,048	4,304
라면	1,081	2,215	1,905	614	2,677	2,476	6,122	3,758
조제품기타	-	178	45	177	1,353	3,906	1,540	2,266
음료(알콜x)	-	-	-	-	1,787	1,248	1,089	1,375
라신의염	88	-	229	1,162	621	1,456	1,155	1,077
소주	-	289	294	217	1,168	418	643	743
소스	498	882	233	407	725	608	772	702
코디얼	-	-	-	-	130	514	777	474
체소류 조제품	104	78	2.4	21	136	359	700	398
베이커리제품	29	267	235	181	456	316	406	393
탄산수	7	49	-	177	443	184	314	314
초분류말기	-	-	12	22	145	414	320	293
고추장	203	73	294	160	109	181	441	244
인스탄트커피	-	574	407	83	89	207	429	242
파스타	-	73	96	200	182	167	206	185
아이스크림	73	99	118	81	108	190	218	172
고추류	-	34	72	153	199	137	176	171
파이	-	-	-	-	71	176	190	146
인삼음료	-	-	-	-	57	77	149	94

주. 실품목 분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AG코드를 사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or KATI

2. 한·아세안 농축산물 교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조치

- 아세안과 교역하는 기업들이 보고하는 비관세조치 관련 애로사항은 주요 교역국이자 개도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되어 있음.
 - 개도국의 경우 통관과 검역 기준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은 아세안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나 베트남의 경우 체제전환국으로써 과거의 비시장체제의 관습이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음.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랄 문화권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교역의 어려움이 있음.

- 이상현 외(2016)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특정 식품 유형(예: 발효 식품)에 대한 검역 기준이 없거나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선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공항이 제한되어 있으며, 통관 절차가 가능한 항구도 지정되어 있어 콜드체인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최대시장인 자카르타까지의 운송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임.
 - 특히 원예 제품의 수출이 어려운 데 해당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수입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이상현 외, 2016). 문제는 수입추천서가 일 년에 두 번 발급되기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식료품과 음료 등은 할랄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 따라서 양 국간의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의 개선과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말레이시아의 무역장벽도 인도네시아와 대체로 유사한데, 식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무역업 면허가 필요함. 특히 말레이시아는 현지 기업 및 현지인의 참여가 낮을 경우 이러한 허가를 잘 발부하고 있지 않음(이상현 외, 2016). 따라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포임.

- 반면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 요청하는 비관세조치 개선 사항은 대부분 SPS와 관련하여 수입허가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임.

3. 한-아세안 민간 농업 투자 현황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총 민간 투자액은 2014년 이후 투자 규모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표 3-21).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농림어업 투자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가 전체 투자액 중 8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농림어업 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표 3-22).

[표 3-21]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국가/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계	30,926	28,554	30,356	39,592	44,599	49,786	61,847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아세안	3,876	4,155	4,387	5,345	5,284	6,495	9,548
(비중)	12.5	14.6	14.5	13.5	11.8	13	15.4
브루나이	2	0.26	0	1	1	1	0
캄보디아	81.97	65	43	215	137	278	212
인도네시아	455	726	699	643	669	497	963
라오스	64	36	27	58	57	37	69
말레이시아	448	133	58	200	408	110	231
미얀마	513	311	243	361	278	213	279
필리핀	457	94	152	152	217	173	203
싱가포르	552	990	1,456	1,125	1,022	1,574	3,026
태국	150	182	109	107	105	95	93
베트남	1,153	1,617	1,599	2,273	1,955	3,162	4,4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3-22]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농림어업 민간 투자(2019)

(단위: 개, 백만 달러)

분야	농림어업			전체		
	신규법인수	총신고액	총투자액	신규법인수	총신고액	총투자액
아세안	9	68	63	1,393	13,493	9,548
브루나이	-	-	-	3	0.7	0.2
캄보디아	2	3	7	27	193.4	212.5
인도네시아	0	60	52	101	1,541.3	962.6

라오스	2	2	1	9	64.2	69.4
말레이시아	1	0.24	0.24	34	255.91	231.22
미얀마	3	1	2	41	209.98	279.3
필리핀	0	0	0	42	250.23	202.81
싱가포르	0	0	0	152	4,293.99	3,025.73
태국	0	0	0.55	70	100.38	93.49
베트남	1	2	1	914	6,583.31	4,47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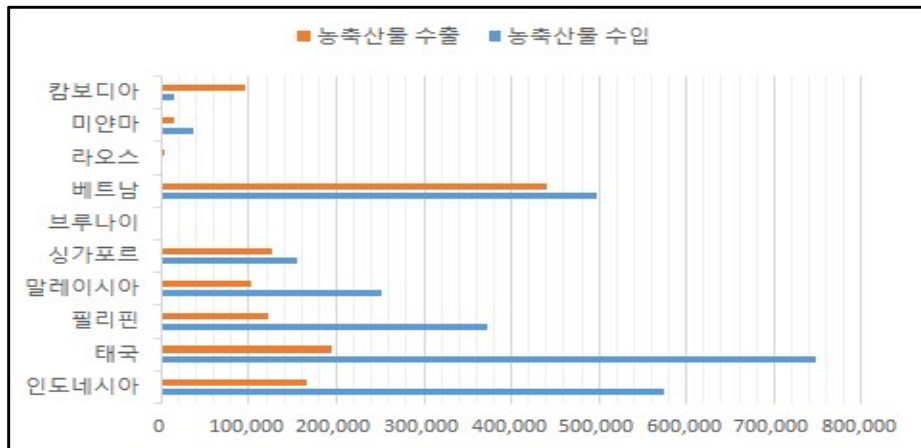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양자 교역 및 민간 농업 투자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3-1, 그림 3-2).
-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국가들은 주로 원료 농산물을 수출하고 가공조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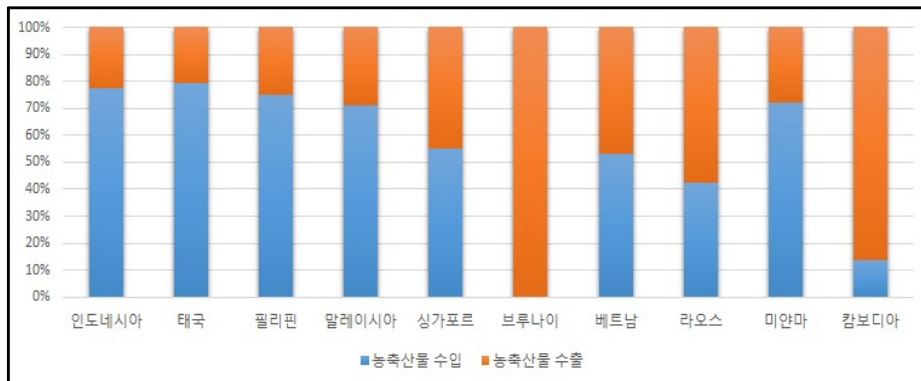
[그림 3-1] 우리나라 對 아세안 농축산물 수입 수출액 (2018~2020)

(단위: 천 달러)



[그림 3-2] 우리나라 對 아세안 농축산물 수입 수출 비중 (2018~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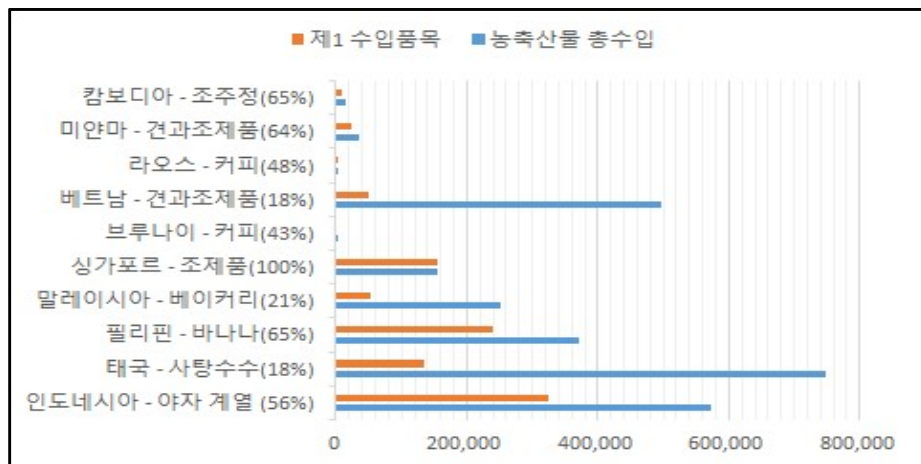


○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주로 아자 계열, 바나나, 사탕수수, 견과조제품이며 우리나라는 라면, 과자 등의 가공조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국별로 특정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임(그림 3-3).

- 우리나라의 아세안 농림어업 직접투자 금액과 비중이 매우 작는데 각 국의 주요 생산물을 활용하는 식품가공산업 등 원산물이 아닌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등 수확 후 단계에서의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 우리나라 對 아세안 주요품목 수입 현황 (2018~2020)

(단위: 천 달러)



○ 아세안 지역으로의 투자가 적은 이유는 현지 환경의 문제도 존재함(표 3-23). 아세안 개도국들의 경우 유통업, 수입업 등에 투자 허가 관련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투자 면허, 유통 권리 등을 모두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현지 대리인이나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면이 있음(이상현 외, 2016). 뿐만 아니라 현지 세법이 모호한 면이 있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비관세 조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내국인대우 인정, 통과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3-23]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국별 농림어업 직접 투자 현황 (2019)

	농림어업(백만 달러)	총 투자액 대비 비중
아세안	63	0.66%
브루나이	0	0.00%
캄보디아	7	3.29%
인도네시아	52	5.40%
라오스	1	1.44%
말레이시아	0.24	0.10%
미얀마	2	0.72%
필리핀	0	0.00%
싱가포르	0	0.00%
태국	0.55	0.59%
베트남	1	0.0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4장

농업 개발 협력 사례 및 비교분석

1.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개발 협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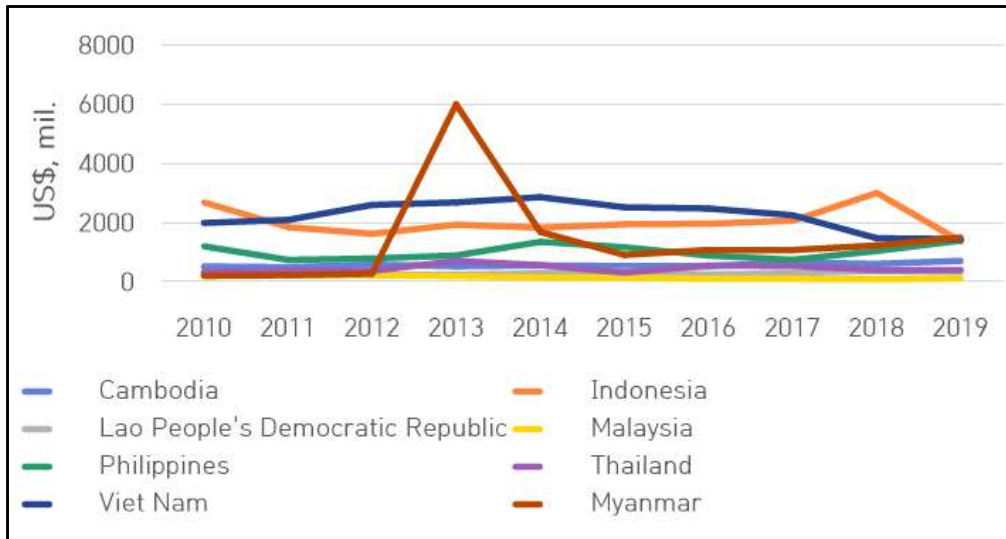
1.1.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국가 ODA 지원현황 및 특징

- 2010~19년 10년 동안 아세안 (ASEAN) 회원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및 필리핀에 대한 국제사회의 (OECD DAC 국가) ODA 지원 규모는 총 812억 3,660만 달러로서 (2019년 미 달러 불변가 격)¹ 같은 기간 아시아지역에 대한 ODA 총지원 금액의 24.7%를 차지함.
 - 이들 ASEAN 국가에 대한 ODA 지원 총액은 대 미얀마 지원이 크게 확대된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72억 달러 규모임.
 - 아시아 국가 전체 ODA 지원에서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에는 20.7% 수준으로 낮아졌음.

- 아세안 회원국 중 ODA 지원 최대 수원국은 2017년까지 베트남이었으나 최근 감소추세를 보임.
 - 미얀마와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임.
 -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필리핀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임(그림 4-1)

1 DAC CRS (공여국 보고체계) 기준 ODA 총 지출금액임 (자료: CRS. OECD.Stat)

[그림 4-1]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국가 ODA 총 지원액, 2010~2019



자료: OECD.stat.

1.2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ODA 지원현황

1.2.1. 아세안 국가의 농업 ODA 비중

○ 국제사회의 대 아세안 농업 ODA 자료는 OECD 개발원조 사업 보고체계 (CRS) 의 코드별로 정리됨 (CRS. OECD,Stat.)

- 농업 ODA는 CRS 코드 311:III.1. (Agriculture, Total)로 분류됨으로서 아래와 같은 하위부문을² 포함하고 있음:

-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농업용수자원, 농업 투입재, 식량 생산, 경제 작물/ 수출 작물, 축산, 농업개혁,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농업 지도, 농업 교육/훈련, 농업 연구, 농업관련 서비스, 병충해 구제, 농업금융 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축산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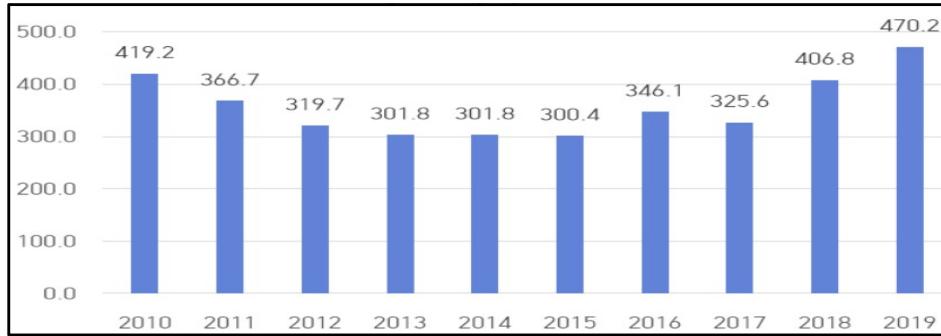
○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ODA 지원금액은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35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금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4억 7천만 달러에 이름(그림4-2).

² 참고: <https://blog.naver.com/igidcc/221608736035>

[그림 4-2]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농업 ODA 지원액, 2010~2019

(단위: 백만 \$)



자료: CRS. OECD.Stat.

-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농업 ODA 지원의 상대적 비중도 최근 4~5년 사이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표4-1).
 -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 ODA에서 아세안 국가의 농업 ODA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9.4%에서 11.6%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농업 ODA 중에서 아세안 국가의 농업 ODA 지원금액이 점하는 비중도 2010년에는 25.7%이던것이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47.6%에 이룸³.

[표 4-1] 對 아세안, 아시아 및 개발도상 국가 농업 ODA 지원금액, 2010~2019

(단위: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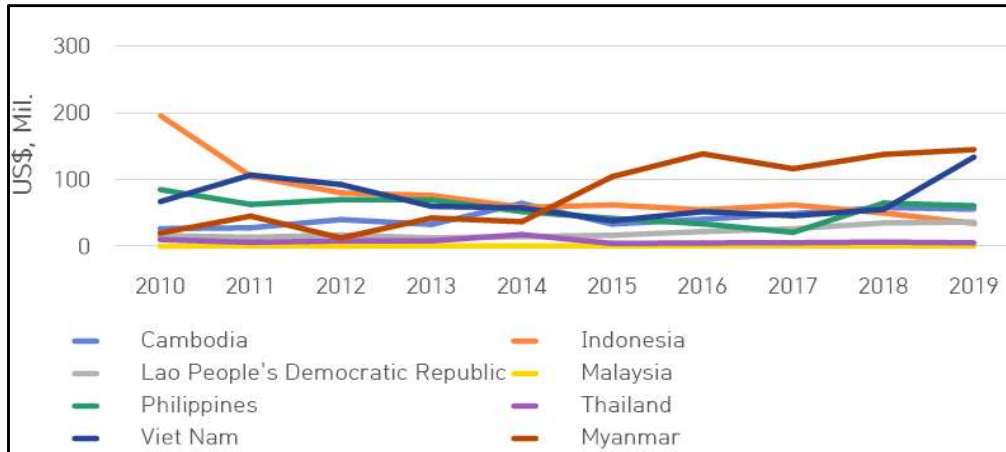
농업 OD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SEAN Total	419.2	366.7	319.7	301.8	301.8	300.4	346.1	325.6	406.8	470.2
ASIA Total	1630.1	1316.2	1071.6	990.5	968.4	1045.8	1079.1	1047.4	957.7	988.6
Developing Countries, Total	4462.6	3962.2	3832.9	3986.9	4032.3	4459.1	4644.7	4395.6	4051.0	4069.8
% of ASEAN to Developing countries Total	9.4	9.3	8.3	7.6	7.5	6.7	7.5	7.4	10	11.6
% ASEAN to ASIA Total	25.7	27.9	29.8	30.5	31.2	28.7	32.1	31.1	42.5	47.6

자료: CRS. OECD.Stat.

3 아시아에 있어 비 ASEAN 국가에 대한 ODA 지원 금액은 2010년에 12억 1천 달러이던 것이 2019년에는 5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지난 2010~2019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 수준을 보면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상대적 지원금액이 많음(그림4-3).
 - 특히 미얀마에 대한 농업 ODA 지원금액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지원금액도 최근 들어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그림 4-3]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금액,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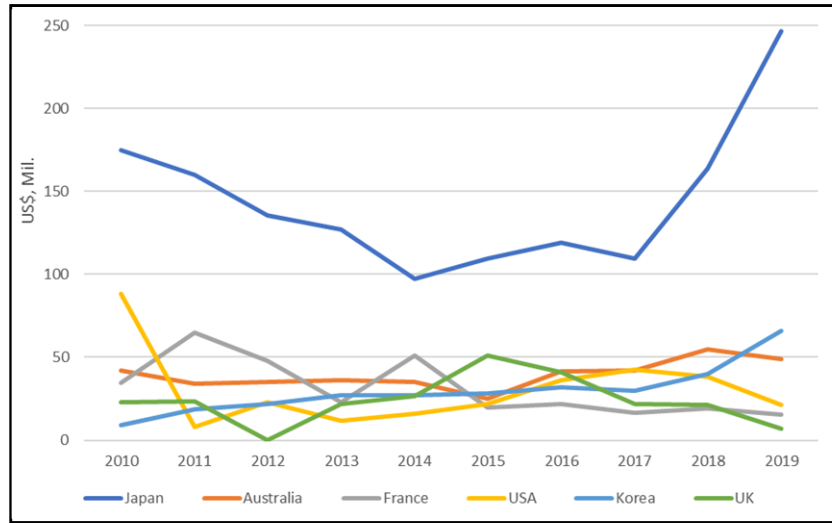


자료: CRS.OECD.Stat.

1.2.2. 공여국별 對 아세안 농업 ODA 지원현황

- 對 아세안 국가 농업 ODA 지원을 공여국 별로 보면 일본이 단연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7년 이후 지원 금액을 급격히 증가시켰음(그림 4-4).
 -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對 아세안 농업 ODA 3대 지원국은 일본, 한국 및 호주 임.
 - 2010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일본은 총 14억 4천만 달러 (2019년 불변가 격), 호주는 총 3억 9천 5백만 달러, 그리고 한국은 총 3억 달러 수준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농업 ODA를 지원하였음 (CRS. OECD.Stat).

[그림 4-4] 주요 공여국별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 현황,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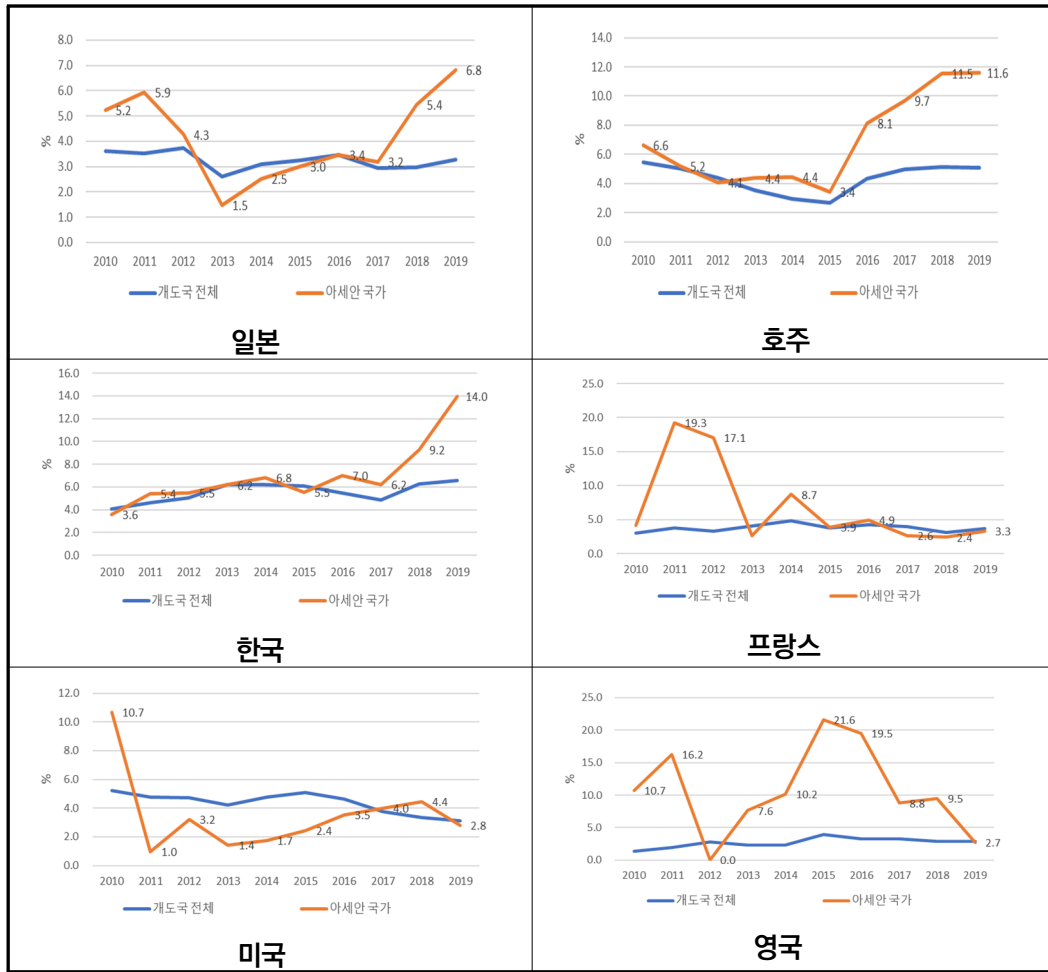


자료: CRS, OECD.Stat

1.2.2.1. 주요 공여국의 총 ODA에서 농업 ODA 지원 비중

-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총액에서 농업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개도국 전체와 아세안 국가를 그룹별로 비교해 보면 공여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4-5).
 - 일본, 호주 및 한국에서는 개도국 전체에 대한 농업 ODA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한편 아세안 국가에 대한 농업 ODA 비중은 보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그 외 프랑스, 미국 및 영국의 경우는 개도국 대상 농업 ODA 비중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속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농업 ODA 비중도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

[그림 4-5] 주요 공여국의 권역별 총 ODA 대비 농업 ODA 비중,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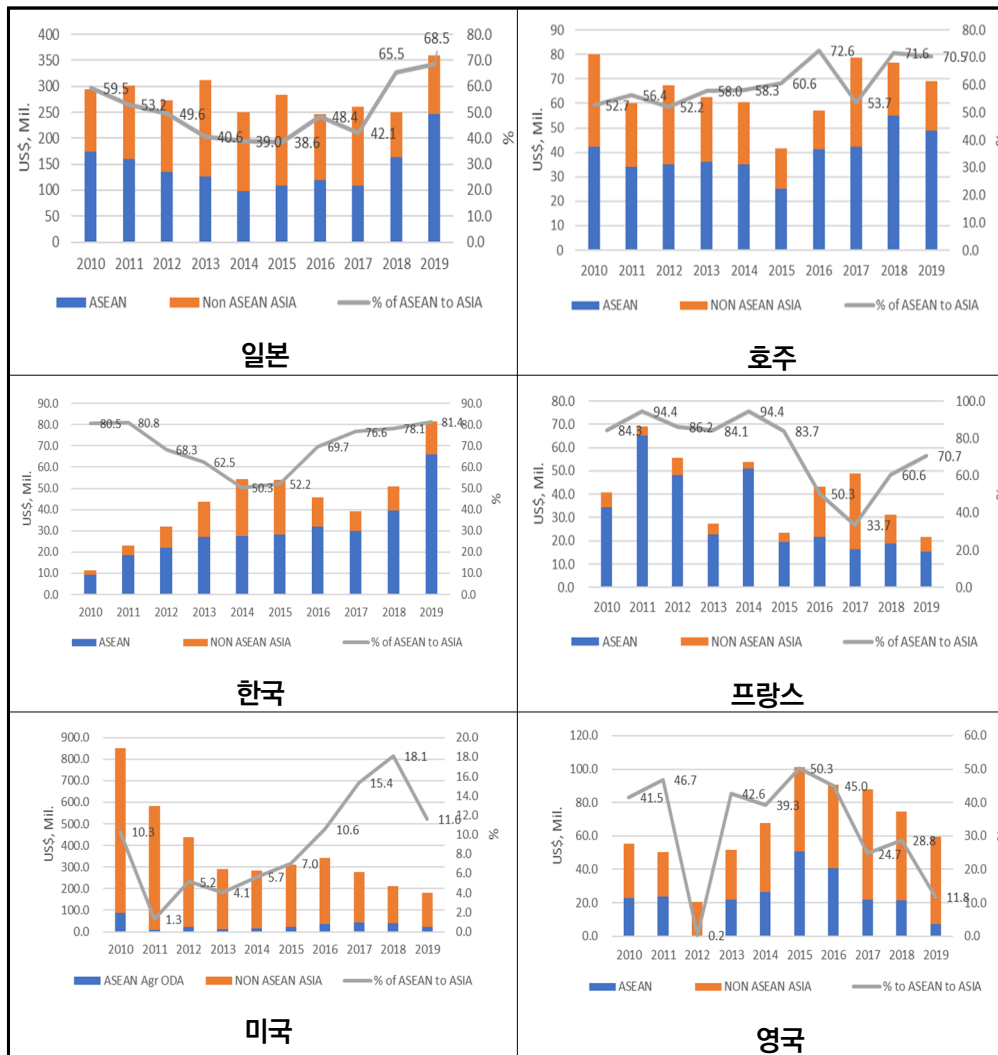


자료: CRS, OECD, Stat

1.2.2.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지역 농업 ODA에서의 아세안 비중

- 아시아 지역 내의 농업 ODA 지원에 있어서도 아세안 국과 비아세안 국에 대한 농업 ODA 지원 비중이 공여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그림 4-6).
 - 일본, 호주 및 한국의 경우는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있어 대 아세안의 농업 ODA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을 축소하고 있음
- 앞에서 보았듯이 아시아 지역 농업 ODA 지원에 있어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농업 ODA 지원 비중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의 대 아세안 지원 비중이 크기 때문임

[그림 4-6]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지역 농업 ODA에서 아세안 국가 비중, 2010~2019



자료: CRS, OECD.Stat

1.2.2.3. 일본, 호주 및 한국의 아세안 수원국별 농업 ODA 지원 현황

- 주요 3개국(일본, 호주 및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규모를 수원국 및 연도별로 보면 표 4-2, 표 4-3, 표 4-4 와 같음
- 일본의 대 아세안 농업 ODA 총 지원금액은 2010년에는 1억 7천 5백 달러 수준 이던것이 2014년에는 9천 8백만 달러까지 크게 감축되었다가 2015년 이후 지원 금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2억 4천 7백 달러 수준으로 확대됨.
 - 수원국별로 일본의 농업 ODA 지원 실적을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큰 편이었으며 그 다음이 필리핀이었으나 2015년 이후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규모가 점차 축소됨

- 2016년 이후에는 미얀마와 베트남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베트남에 대한 농업 ODA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1억 7백만 달러로서⁴ 아세안 국가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음

[표 4-2] 일본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금액, 2010~2019

(단위: US \$, Mi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mbodia	3.5	5.6	5.2	8.4	6.3	4.4	5.3	12.1	17.1	21.3
Indonesia	90.2	83.4	58.3	47.6	38.1	44.2	14.4	8.0	3.5	4.2
Lao PDR	2.3	2.2	2.3	2.1	2.1	2.2	1.1	1.9	2.7	5.9
Malaysia	0.3	0.2	0.1	0.2	0.2	0.0	0.1	0.2	0.3	0.1
Philippines	51.4	46.0	45.6	39.6	27.1	20.5	14.3	10.4	33.7	8.3
Thailand	6.3	1.3	3.2	3.6	0.5	0.3	0.6	0.7	1.9	0.9
Viet Nam	15.8	18.3	18.0	17.9	16.0	7.1	19.4	23.3	25.3	107.8
Myanmar	4.9	3.0	2.7	7.3	7.2	30.6	64.2	52.8	79.4	98.3
ASEAN 농업 ODA 합계	174.7	160.0	135.5	126.8	97.5	109.4	119.3	109.5	164.0	246.9

자료: CRS, OECD.Stat

○ 호주의 대 아세안 농업 ODA 총액은 2010년의 4천 2백만 달러에서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2천 5백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도부터 4천만 달러 수준 이상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편임.

-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농업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가 그 다음 순위로서 2016년 이후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남
- 한편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농업 ODA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표 4-3] 호주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금액, 2010~2019

(단위: US \$, Mi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mbodia	9.6	8.3	12.7	8.8	12.4	7.4	14.6	12.6	15.7	11.3
Indonesia	6.7	5.9	8.3	14.2	7.5	4.7	17.4	23.9	24.7	19.4
Lao PDR	2.4	2.3	3.9	3.2	3.2	2.4	1.9	0.2	3.2	3.4
Malaysia	0.0	0.2	0.0	0.4	0.4	0.2	0.0	0.0	0.0	0.0

⁴ 2019년에 베트남의 경제/수출작물 개발을 위해 7천 5백만 달러가 지원되었기 때문임

Philippines	14.9	2.2	2.9	1.5	4.2	2.2	1.9	0.5	3.0	3.0
Thailand	0.3	0.3	0.6	0.4	0.2	0.2	0.1	1.0	0.0	0.1
Viet Nam	5.1	2.9	6.2	4.3	4.2	2.5	3.7	2.2	5.1	7.7
Myanmar	3.2	11.8	0.4	3.4	3.0	5.7	1.7	1.9	3.1	3.8
ASEAN 농업 ODA 합계	42.1	33.9	35.2	36.2	35.2	25.2	41.4	42.2	54.9	48.7

자료: CRS, OECD.Stat

○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 ODA 지원 금액은 2010년 이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천 6백만 달러에 이르러 같은 해 호주의 대 아세안 농업 ODA 보다 규모가 큼.

- 지난 10년간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농업 ODA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2019년 사이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필리핀 다음으로 한국의 농업 ODA 규모가 비교적 큰 나라는 라오스이며 그 아래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및 미얀마 등이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음

[표 4-4] 한국의 對 아세안 국가별 농업 ODA 지원금액, 2010~2019

(단위: US \$, Mi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mbodia	3.3	3.2	3.9	2.8	3.8	4.8	7.1	5.1	5.1	5.5
Indonesia	0.9	0.5	1.3	3.0	1.3	0.6	1.5	0.3	0.7	0.8
Lao PDR	1.3	2.3	2.1	1.6	3.2	3.5	6.0	7.0	6.9	10.7
Malaysia	0.0	0.1	0.1	0.0	0.1	0.0	0.0	0.0	0.0	0.0
Philippines	2.0	8.6	10.0	11.9	7.5	9.1	6.1	4.7	16.4	42.8
Thailand	0.1	0.5	0.8	0.6	0.4	0.7	0.6	0.6	0.4	0.2
Viet Nam	0.9	1.5	1.9	2.6	3.7	5.1	4.9	6.0	5.9	3.0
Myanmar	0.6	1.7	1.9	4.8	7.5	4.1	5.7	6.2	4.1	3.1
ASEAN 농업 ODA 합계	9.3	18.5	21.9	27.3	27.3	28.1	31.9	29.9	39.6	66.1

자료: CRS, OECD.Stat

1.2.2.4. 일본, 호주 및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농촌 ODA 세부 코드별 지원특징

○ OECD DAC의 농업 ODA는 CRS 코드 311:III.1. (Agriculture, Total)의 하위 코드는 다음과 같음:

-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1120(농업개발), 31130(농지개발), 31140(농업용수자원), 31150(농업 투입재), 31161(식량 생산), 31162(경제/수출 작물), 31163(축산), 31164(농업개혁), 31165(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1166(농업 지도), 31181(농업 교육/훈련), 31182(농업 연구), 31191(농업관련 서비스), 31192(병충해 구제), 31193(농업금융 서비스), 31194(농업협동조합), 31195(축산 진료)

○ 한편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ODA 는 CRS Code 400:IV. (Multi-Sector/Cross-Cutting, Total) 의 하위 코드로 분류되어 있음

- CRS 코드 43040 (농촌개발 ODA)에는 지방분산 및 다변화를 위한 계획, 조정 및 관리 능력 촉진; 자연자원 보전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토지관리 및 이용계획; 취약조성 및 재편 활동; 도농간 기능 통합; 지리정보 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이 주로 포함됨⁵

○ 대 아세안 농업개발협력의 3대 공여국인 일본, 호주 및 한국의 CRS 세부 코드별 지원실적을 비교해 보면 3개국의 우선 지원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4-7)

- 일본의 최대 지원 세부 분야는 농업용수자원임
- 호주의 최대 지원 세부 분야는 농업연구, 농업개발임
- 한국의 최대 지원 세부 분야는 농업개발임

○ 일본의 우선 세부지원분야의 하나인 농업금융서비스는 호주와 한국의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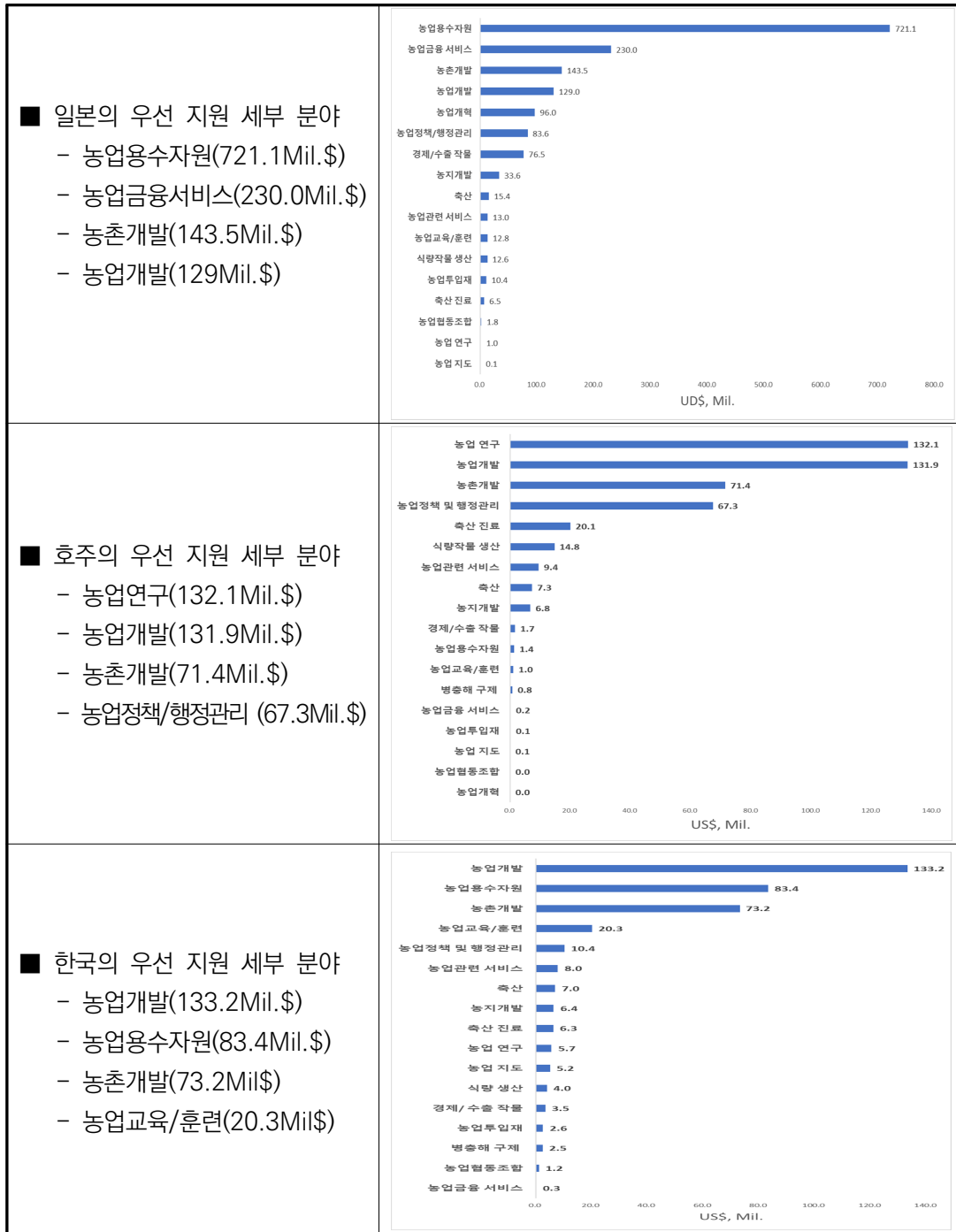
○ 호주의 최대 지원분야인 농업연구에 대한 지원은 일본과 한국의 경우 실적이 미미한 편임

○ 한국은 농업교육/훈련에 상당한 지원을 하는 반면 일본과 호주의 지원실적은 매우 낮은 편임

⁵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agriculture.htm>

○ 일본과 한국은 농업용수자원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호주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음

[그림 4-7] 일본, 호주 및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농촌 ODA 세부분야별 지원총액, 2010-2019



자료: CRS,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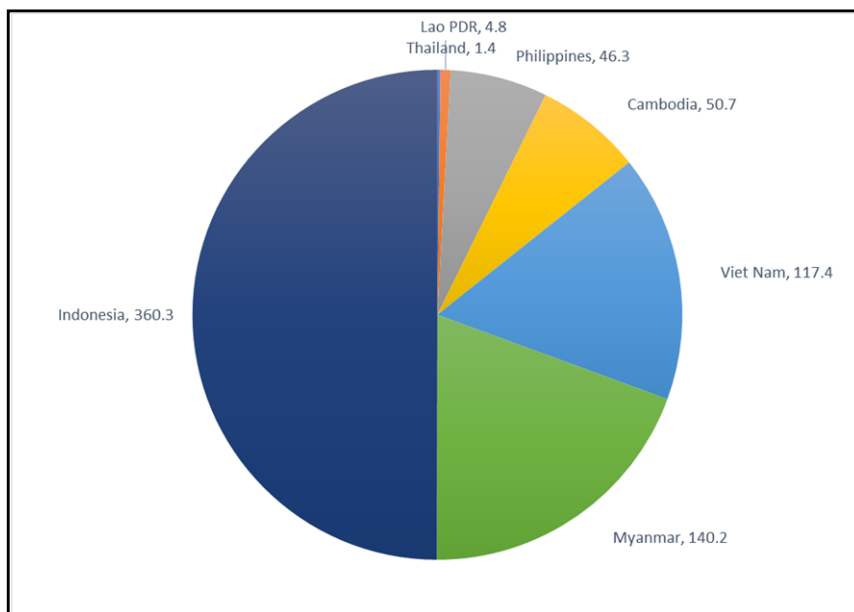
가. 일본의 아세안 국가별 우선 지원분야 ODA 실적

① 농업용수자원 (Code 31140)

- 일본이 2010~2019년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에 지원한 농업용수자원 (Code 31140⁶ ODA는 7억 2천 백만 달러로서 세부 코드별 지원금액에서 가장 큰 규모임
 - 지원금액에서 농업용수자원에는 상당히 미달하지만 농촌개발, 농업개발 및 농업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총액은 1억 달러 이상임
- 일본의 대 아세안 농업용수자원개발(Code 31140) 지원을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에 거의 50% (3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그림 4-8)
 - 그 다음으로 미얀마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각각 1억 4천만 달러와 1억 천 7백만 달러임
 -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대한 농업용수자원개발 지원금액은 미얀마와 베트남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임
 - 한편 라오스와 태국에 대한 농업용수자원 ODA는 매우 적은 편임

[그림 4-8]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용수자원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



자료: CRS, OECD.Stat

6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Irrigation, reservoirs, hydraulic structures, round water exploitation for agricultural use.

② 농업금융서비스 (Code 31193)

- 일본의 대 아세안 농업금융서비스 ODA는 필리핀과 미얀마에 국한되어 있음(표 4-5)
 - 필리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억 2천 3백만불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음
 - 한편 미얀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농업금융서비스 ODA를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1억 7백만불을 지원하였음

[표 4-5]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금융서비스 ODA 지원 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달러)

연도	Philippines	Myanmar	ASEAN, Total
2010	31.5	0.0	31.5
2011	26.0	0.0	26
2012	16.3	0.0	16.3
2013	9.4	0.0	9.4
2014	7.1	0.0	7.1
2015	2.7	0.0	2.7
2016	5.5	0.0	5.5
2017	0.5	7.3	7.8
2018	24.1	39.7	63.8
2019	0.0	60.0	60.0
합계	123.1	107.0	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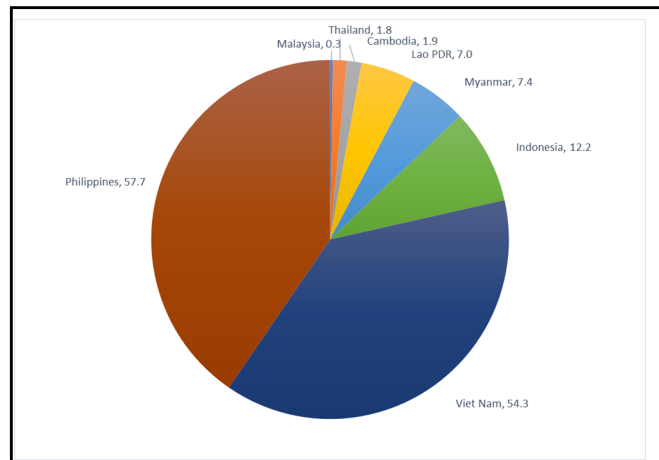
자료: CRS, OECD.Stat

③ 농촌개발 (Code 43030)

- 일본의 대 아세안 농촌개발 지원은 필리핀과 베트남 위주로 지원되었음. (그림 4-9)
 -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2010-2019년 동안 각각 5천 만불 이상 지원하였으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금은 다소 적은 1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함
 - 한편 말레이시아, 태국 및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지원은 매우 저조한 편임

[그림 4-9]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촌개발 ODA 지원 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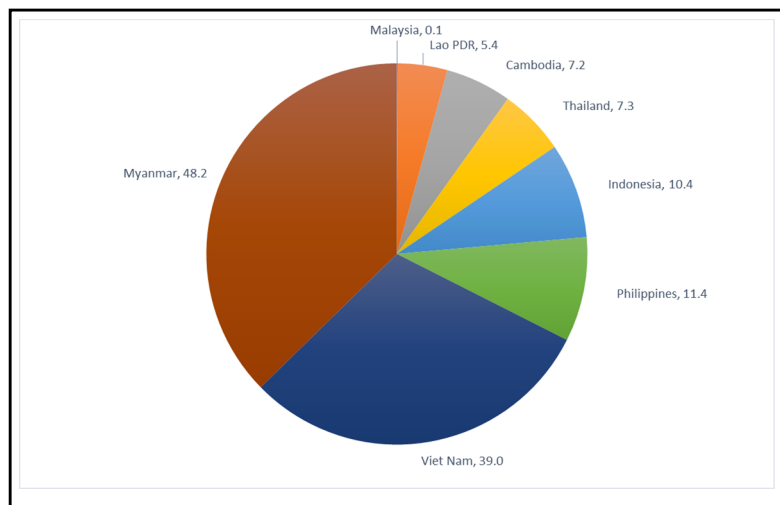
자료: CRS, OECD.Stat

④ 농업개발 (Code 31120)

- 일본의 대 아세안 농업개발 ODA는 주로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수행되고 있음 (그림 4-10)
 - 2010-19년 기간 동안 농업개발을 위해 미얀마와 베트남에 각각 4천 8백만 달러와 3천 9백만 달러를 지원함
 - 같은 기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은 1천만 달러 수준임

[그림 4-10]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개발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자료: CRS,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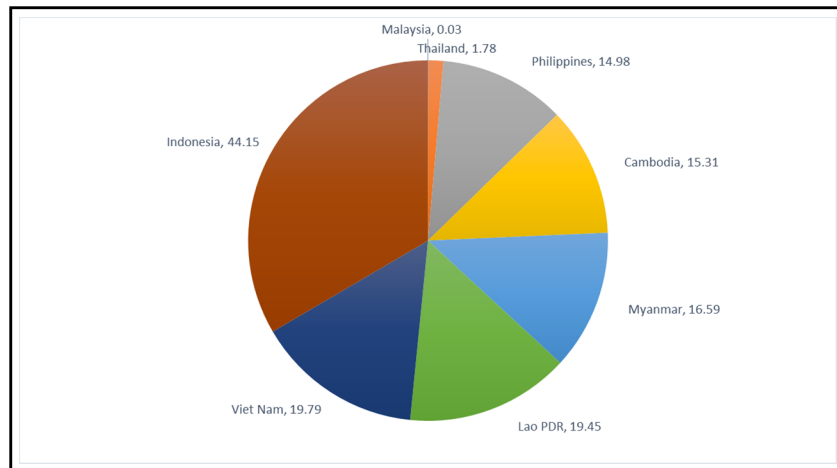
나. 호주의 아세안 국가별 우선 지원분야 ODA 실적

① 농업연구 (Code 31182)

- 호주의 대 아세안 농업연구 ODA는 2010-19년 기간동안 1억 3천 2백만 달러에 달하였음
 - 아세안 국가중 인도네시아에 농업연구 ODA가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2010-19년 기간동안 지원된 금액은 4천 4백만 달러 수준임 (그림 4-11)
 - 그 외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및 필리핀 등의 국가에 대해 농업연구 ODA로 1천 5백만에서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되었음

[그림 4-11]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연구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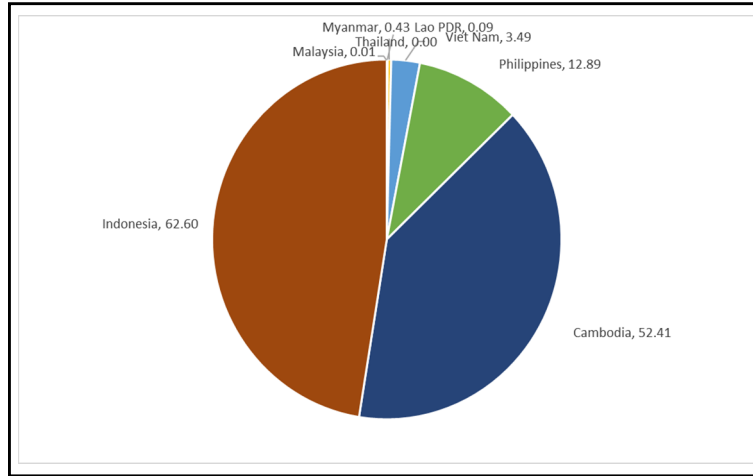
자료: CRS, OECD.Stat

② 농업개발 (Code 31120)

- 호주의 농업개발 ODA도 농업연구 ODA 와 같은 수준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림 4-12)
 - 호주의 농업개발 지원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6천 2백만 달러와 5천 2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 한편 필리핀에 1천 3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실적은 매우 적은 편임

[그림 4-12]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개발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자료: CRS,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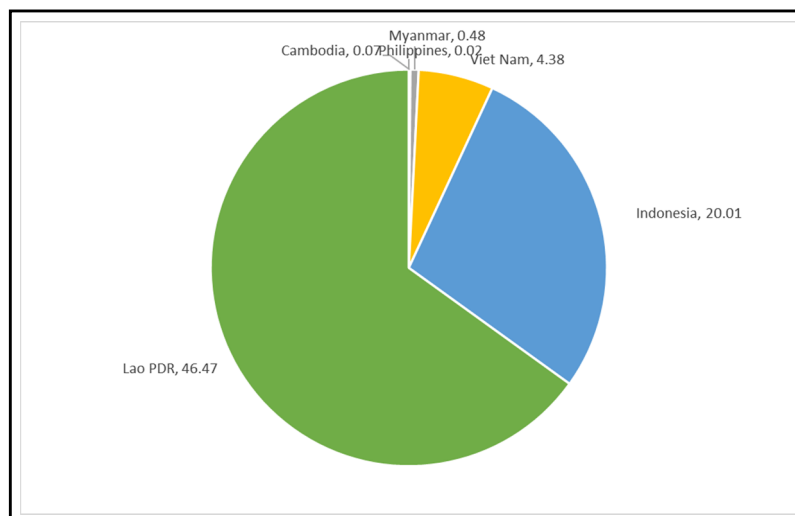
③ 농촌개발 (Code 43040)

○ 호주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 아세안 농촌개발 ODA로 7천 백만 달러를 지원함 (그림 4-13)

- 호주의 농촌개발 ODA 대상국은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로서 두 나라에 대한 지원금액이 각각 4천 6백만 달러와 2천만 달러로서 호주의 대 아세안 농촌개발 지원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캄보디아, 미얀마 및 필리핀에 대한 호주의 농촌개발 ODA는 매우 적은 편임

[그림 4-13]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촌개발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자료: CRS,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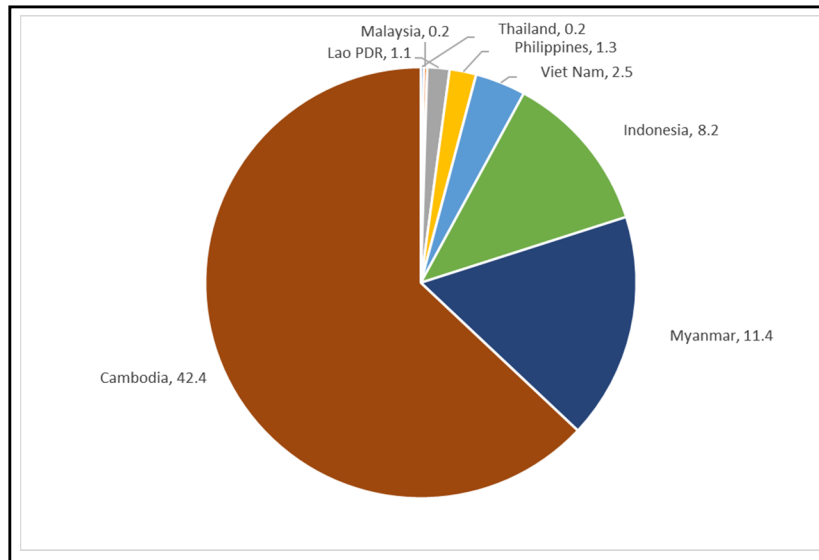
④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Code 31110)

○ 호주가 2010-19년 기간동안 대 아세안 농업정책/행정관리 ODA에 지원한 금액은 농촌개발 ODA와 거의 같은 수준인 6천 7백만 달러임 (그림 4-14)

- 아세안 국가중에서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농업정책/행정관리 ODA가 63%를 차지하고 있음
-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지원이 비교적 저조한 편임

[그림 4-14] 호주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정책/행정관리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자료: CRS, OECD.Stat

다.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우선 지원분야 ODA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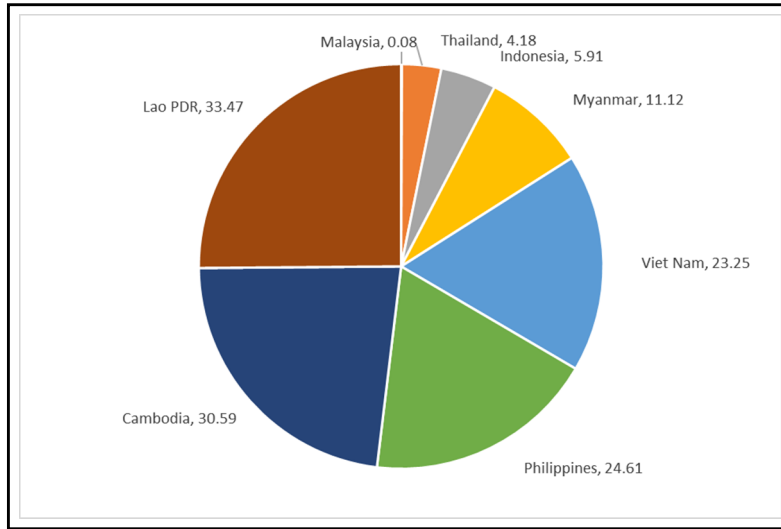
① 농업개발 (Code 31120)

○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개발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지원 규모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임 (그림 4-15)

- 미얀마에 대한 이 분야 지원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의 절반 수준임
-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농업개발 ODA는 다소 규모가 적은 편임

[그림 4-15]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개발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자료: CRS,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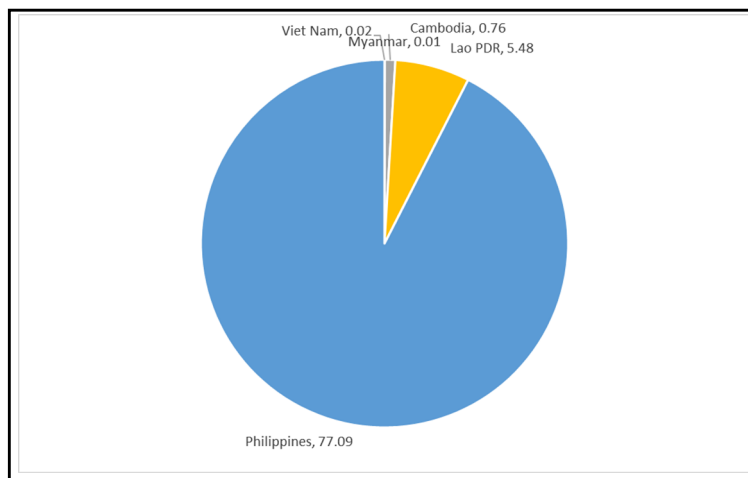
② 농업용수자원 (Code 31140)

○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용수자원개발 ODA는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4-16)

- 2010-19년 기간 동안 한국이 아세안 국가에 지원한 농업용수자원 ODA (8천 3백 4십만불)의 92%인 7천 7백만 달러가 필리핀에 지원되었음
- 특히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필리핀에 농업용수자원 ODA로 지원된 금액이 4천 6백만불에 달함

[그림 4-16]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용수자원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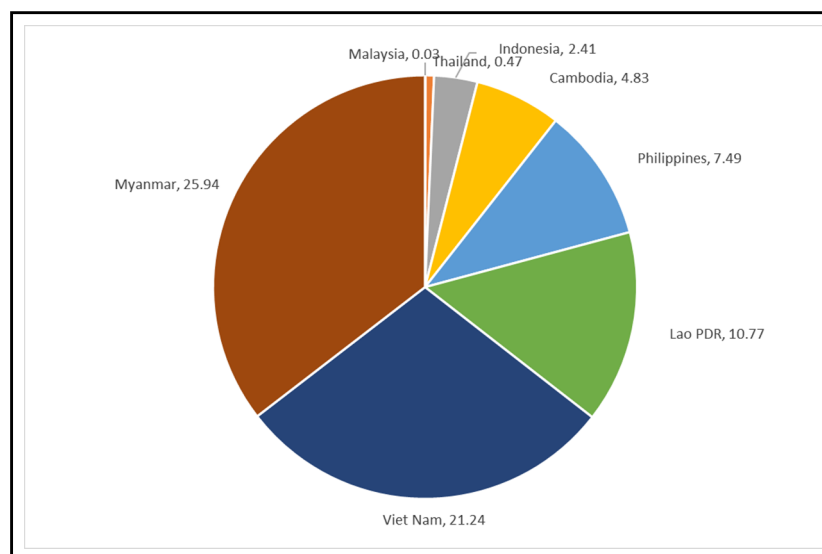
자료: CRS, OECD.Stat

③ 농촌개발 (Code 43040)

- 한국은 2010-19년 기간 동안 미얀마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농촌개발 ODA를 수행함으로써 대 아세안 농촌개발 지원액의 64%인 4천 7백만 달러가 이들 국가의 농촌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음 (그림 4-17)
 - 같은 기간 라오스와 필리핀에 대한 한국의 농촌개발 지원은 각각 1천만 달러와 7백만 달러로서 미얀마와 베트남에 대한 지원 규모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임

[그림 4-17]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촌개발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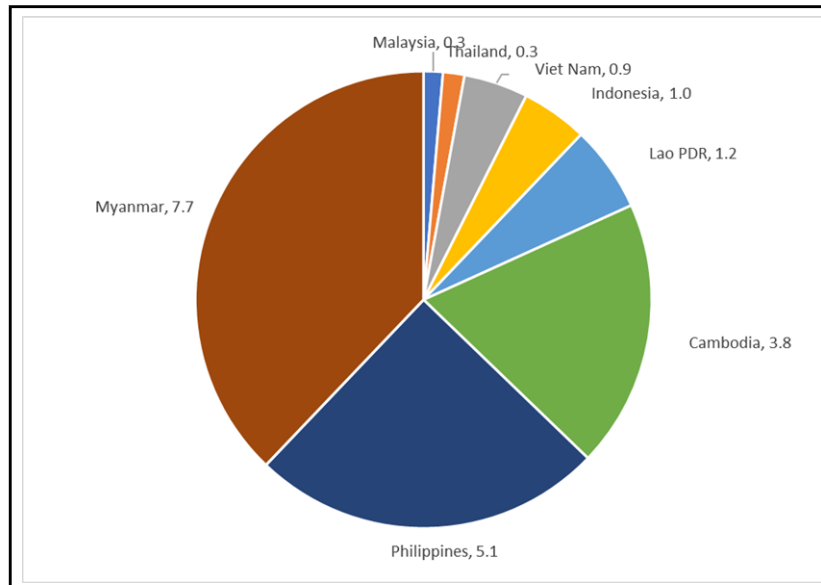
자료: CRS, OECD.Stat

④ 농업 교육/훈련 (Code 31181)

- 한국의 대 아세안 농업교육/훈련 ODA는 일본과 호주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큰 분야임
 - 한국은 2010-19년 기간 동안 미얀마, 필리핀 및 캄보디아에 농업교육/훈련을 위한 ODA로 각각 7백 7십만 달러, 5백 십만 달러, 그리고 3백 8십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그림 4-18)
 - 그 외에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대한 농업교육/훈련 분야 ODA 지원규모는 약 백만 달러 수준임

[그림 4-18]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농업교육/훈련 ODA 지원실적, 2010-2019

(단위: 백만\$)



자료: CRS, OECD.Stat

1.3 일본과 호주의 농업 ODA 동향과 평가

1.3.1. 일본의 국제농업개발 협력

1.3.1.1.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동향

가. 일본 ODA 정책 기조

○ 일본은 2003년 ODA헌장 (개발협력대강: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을 개정하여 ODA의 목적을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고, 그 결과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는것’이라고 명시함⁷.

- ODA의 전략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장을 개정함
- 이 개정 헌장에서 ‘국가적이익’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강화등이 주 목적으로 보임.

○ 2003년 개정된 ODA 헌장의 내용은 이전 1992년도 ODA 헌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요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정책에 ‘인간안전(human security)⁸과 성차별(gender)문제와

7 한국국제협력단, “일본 대외원조 개관”,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5호

빈부격차의 형평성' 개념을 도입

-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지구적 이슈(global issue),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평화정착(peace building)을 우선 이슈로 기술
- 이외에도 정책대화, 현장임무의 강화, 시민과 대중 참여 확대, 개발전문성 증대, 개발교육 장려, 투명성 확보등을 촉구

○ 2014년의 제2차 ODA현장 개정에서도 2003년 개정에서 강조된 목적과 국익의 실현이라는 전략성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⁹.

- 일본의 ODA 대강 공식 명칭이 '정부 개발원조 대강'에서 '개발협력 대강'으로 변경
- 일본의 ODA 실시가 정부 주도에서 관민의 협력으로, 일방향 원조에서 쌍방향 협력으로 전환

○ 2015년에 보완(updated)된 일본의 개발협력대강에 따르면 특히 아시아의 개발협력에 일본의 민간부문 참여를 강조함

- 수원국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본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9년 11월 일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다음 세 분야에 대한 일본의 대 아세안 지원확대 계획을 천명함:

- 기반시설 개발의 질적 향상 (qual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 녹색 투자(green investment) 및 여성의 금융접근 개선 및 지원 (improving financial access and support for women)
-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JICA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융자 12억 달러를 포함 민관협력기금으로 미화 30억 달러를 운용할 계획을 2019년 12월에 발표

○ 일본은 2019년 특히 '자유-개방 인도-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의 실현을 우선정책으로 제시하며 전략적 외교

8 선행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일본 대외원조 개관",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5호; 강우철, "일본 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30집, 2017, 에서 'human security' 를 '인간안보'로 번역한 바 있음. 그러나 "인간안보"라기 보다는 결핍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다움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안전"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됨.

9 이지영,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4호, 2018

및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ODA 역할을 강조함

- 여기에는 양자간 ODA 활용과 더불어 “비군사적 목적”하에 외국의 군사력 지원을 위한 ODA 승인도 포함

- 이러한 일련의 추이는 일본이 국익증진을 위해 ODA를 외교적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표명으로 판단됨

나. 일본의 개발정책 평가 및 문제점

- OECD/DAC 내에서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의 모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에 따르면 일본의 통상 및 농업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대두됨.

- 그러나 일본은 타 DAC 회원국과는 달리 새로운 ODA 현장에서도 개발정책 일관성 문제를 논의하지 않음으로서 개발정책에 대해 명확한 정책 선언이 부재함¹⁰

- ODA 증액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에게 개발정책 일관성에 대해 홍보하려는 의지가 부족
-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원조는 ODA 현장의 개편을 통하여 공여국인 일본의 국익 및 군사, 안보 목적을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수원국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을 위한 보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적인 원조의 이념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음

- 2007년 농업 및 농촌개발 ODA에 대한 평가를 지원규모, 농업생산성 개선 및 식량안보 측면에서 실시한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됨¹¹

-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접근방식에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가이드라인 준비가 필요
- 즉 제도화된 접근방식이 부재

다. 일본의 대 아세안 개발전략

- 전후처리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과 양자 관계를 수립한 일본은 1967년 아세안의 창설을 계기로 전략적 차원에서 對 아세안 ODA 공여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킴.

10 정효민, “일본 원조의 특징과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발전연구』 제28권 제2호: 93~122, 2019.

11 정승은,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세계농업』 제 147호, pp.1~31, 2012. 11.

- 아세안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로서의 아세안의 역할을 확대해옴에 따라 일본은 아세안 전략을 전환하기 위해 2013년에 아베 독트린을 발표함
- 한편 아세안국가들이 자유무역지대(AFTA)를 실현하자 일본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아세안-일본간 포괄적 동반자 협정 (AJCEP)을 체결함
- 그러나 일본의 대 아세안 총 ODA의 연도별 지원금액은 2013년에 86억 달러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6억 달러에 이룸¹²
 - 이에 따라 일본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ODA 총액 중 아세안에 대한 공여 비중도 점감하고 있는 바 2013년에 64%이던 것이 2019년에는 37% 수준으로 감소함.
 - 또한 ODA 구성 측면에서 보면 무상원조보다는 일본 국내로의 환수가 중요시되는 유상원조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1.3.1.2. 일본의 농업 ODA

가. 일본 농업 ODA의 특징

- 일본은 2010~2019년 기간동안 아세안 국가에 대해 총 14억 4천만 달러 (2019년 불변가격)에 달하는 농업 ODA를 지원함으로써 OECD/DAC 국가 중 최상의 농업 ODA 공여국임 (CRS, OECD.Statistics)
 -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농업 ODA 지원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4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억 8천만 달러에 달함
 - 이는 對 아세안 총 ODA 지원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임
 - 일본은 개발협력대장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에서 농업수산업을 “질적성장 (quality growth)”을 위한 ODA 부문으로 천명하고 있음
- 일본 농업 ODA는 외무성 (MOFA)이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수행은 일본국제협력단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맡는 구조임

¹² CRS OECD.Stat

- 외무성의 개발지원 정책 조정국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Coordination Division)이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전략을 담당함
 - 농업 ODA 사업이행 책임은 JICA의 식품, 안전, 농업, 영양국 (Food, Security, Agriculture and Nutrition Division)과 각 지역 부서에서 맡게됨
- 일본 농업 ODA중 다자간 (multilateral)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현재 24%에 달함¹³.
- 이 지원액의 73%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통해 지급되고 나머지는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및 지역개발은행을 통해 배분됨
- 한편 양자간 (bilateral) 농업 ODA는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4% 정도 감소한 편임
- 양자간 농업 ODA에서는 농업용수자원 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양자간 농업 ODA는 대부분 JICA를 통하여 이루어짐.
- JICA를 통한 일본 농업 ODA는 지속적농업생산, 안정적 식량공급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특히 집중되며 소규모 영농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2008)의 의제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지원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 그 결과로 JICA가 주도한 아프리카 미작개발협의체(Coalition for African Rice Development: CARD)를 들 수 있음
 - 이 협의체는 아프리카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in Africa: AGRA)과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 협정(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NEPAD)과의 연합체임
 - CARD는 아프리카 미곡생산을 두배로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JICA 측에서 CARD 회원국에 대해 다수의 양자간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3 <https://donortracker.org/japan/agriculture>

- CARD의 2단계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2030년 까지 진행될 예정임

나. 일본의 농업 ODA에 대한 평가¹⁴

■ 성과

- MDG1 목표 달성에 기여
 - MDG 1 목표인 빈곤 및 기아인구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남 사하라 아프리카나 남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목표에 미달하여 추가 노력이 필요함
 - 식량과 영양 공급과의 연관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성장에 기여
 - 1990년 이후 저 소득국의 32.4%에서 농업성장률을 5~6% 목표¹⁵를 달성하였음
 - 농업성장률 5% 목표달성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자체 평가

- 농업성장과 농촌 빈곤 타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치사슬의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아시아지역의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JICA 사업을 돌아켜 보면 농촌인프라 및 마을 개발과 더불어 농지개발, 관개수리, 기계화 및 농자재, 기술전수 등으로 농업생산과 생산성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치중한 편임
 - 반면, 법체계와 제도, 개발계획과 농지관리, 농산물 가공과 유통, 농업금융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음
 - 글로벌 시대에 들어 농산물의 수출은 개도국에 무한한 발전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농업생산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고부가가치 농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및 유통체계에 대한 지원이 점차 더 강조됨.

14 이 부분은 JICA, JICA's Position Paper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March 13, 2013 내용을 발췌한 것임

15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CAADP)에서는 Sub-Saharan Africa 지역의 농업성장률 목표는 6% 이고 세계은행의 Agriculture Action Plan 2010-2012에서는 5%로 목표 설정함.

- 거시적 측면의 지원강화가 필요함
 - 수원국의 중-장기적인 개발전략을 감안한 정책과 시스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 예컨대, 행정역량 강화, 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정책, 농정 예산 지원, 토지정책 등이 거시적 지원의 사례가 될 것임

■ 향후 추진 방향

- 가치사슬과 연계된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 농업 ODA 지원분야를 선정할 때 생산 투입재,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가치사슬 분야를 종합 검토해야 함
- 글로벌 이슈로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
 - 식량 수급의 구조적 요인과 기후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단기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일 것
- 기후변화 대응 지원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관개수리, 용수관리, 품종개량, 병충해 방제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로서 바이오 에너지 활용과 농지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것

1.3.2. 호주의 농업개발 협력

1.3.2.1. 호주의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동향

가. 호주 ODA의 정책 기조

- 호주는 해외원조의 목적을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통한 호주의 국익증진”이라고 원조에 관한 새로운 정책 보고서 “Australian Aid: Investing in Growth, Stability and Prosperity”(2002년 9월)에 명시함¹⁶.
 - 그러나 단기적으로 호주의 국익과 원조효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수원국의 장기적 개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원조를 실시해야 함.
 - 이러한 개발원조의 인도주의 원칙하에 호주의 ODA 담당기관인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은 호주의 국익이 수원국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함.

16 한국국제협력단, “호주 대외원조 개관”,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5호

- 호주는 개발원조의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를 주요 이슈로 강조함
 - 호주는 ODA 만으로는 MDGs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경제발전은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내저축 증대 등 민간부문의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정책과 제도적 틀의 확립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전제되어야 함.
 - 이러한 거버넌스 이슈는 국별 원조 프로그램에 반영되었고 특히 법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함.
 - 굿 거버넌스를 위해 국별 상황을 분석하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각 분야별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함.
 - 예컨대 장학금 지원은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굿 거버넌스 지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

- 호주는 정부차원에서 개발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함
 - 호주 정부와 AusAID간의 논의에 있어 호주의 국익이 개발 아젠다 논의를 독점하고 빈곤감소보다는 안보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
 - 비록 안보와 안정이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이라 할지라도 AusAID는 전체적인 정부접근 방안에서 개발원조정책의 초점을 빈곤감소에 맞추도록 일관성 유지에 노력해야 함.
 - 예컨대, 대테러와 같은 중요한 이슈도 개발 아젠다에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호주 ODA의 우선 전략

- 호주는 2019년 총선 결과 중도 우파인 자유국민연합 (Liberal-National Coalition)이 재집권함에 따라 향후 3년간의 해외 개발 지원정책이 다소 변경될 전망이다
 - 자유국민연합 정부는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으로 호주의 개발 프로그램은 외교·안보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임¹⁷

- 호주는 2020년에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호주의 코비드 19 개발 대응 (Partnerships for Recovery: Australia’s COVID-19 Development Response’을 개발전략으로 채택함

¹⁷ <https://donortracker.org/country/australia>

- 따라서 호주의 개발 프로그램은 앞으로 2년간 코비드 19에 의한 보건,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재조정됨
 - 태평양 지역국, 동 티모르(Timor-Leste)와 인도네시아가 이 프로그램의 중점 지원국으로 지정됨
- “태평양 진출확대 (Pacific Step-up)”¹⁸전략은 호주의 개발 우선순위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 태평양 중심부에 대한 이 전략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증액은 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2019년에 호주 기반시설 지원기구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AIFF)가 발족하며 태평양 지역국가에 대한 사회기반 구축 프로그램을 무상 공여(grant-funded)에서 차관형식(loan-financed)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메콩강 지역에 대해서도 준비 중으로 있는바 이는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다. 호주의 대 아세안 개발전략

- 호주의 대 아세안 개발전략은 파트너십 접근으로서 아세안-호주개발협력 프로그램(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AADCP)¹⁹으로 대변됨
- AADCP는 동남아시아 아세안회원국의 지속적 경제·사회 개발촉진을 위해 2003년 10월에 시작됨
 - AADCP의 후속 단계인 AADCP II는 2008년 부터 2021년 까지 시행되는 장기 프로그램임²⁰
- AADCP II 는 파트너십 접근에 기본을 두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²¹:

18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의 중심부에 인력을 진출시켜 지역주민과 호주 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으로서 스포츠, 교육, 미디어 및 교회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목적임 (<https://www.dfat.gov.au/geo/pacific>)

19 AusAID, ASEAN and Australia: 30 yea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20 <http://aadcp2.org/about-us/>

21 <http://aadcp2.org/wp-content/uploads/The-Partnership-Approach.pdf>

<p>주요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렬 (Alig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의 발전 정책, 전략 및 계획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정렬성을 개선 - 아세안 사무국의 체제와 절차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시스템 정렬을 강화함 • 조화 (Harmonis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사무국과의 긴밀한 관계속에 프로그램의 접근과 정책 및 시스템 운영의 조화를 이룸 • 소유권 (Ow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은 지속성의 핵심이므로 AADCP II는 아세안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며 사업수행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아세안 사무국과 회원국이 주도함
<p>프로그램의 차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프로그램에서는 호주정부가 외부기관과 계약하여 아세안 사무국과 (호주 정부와는) 별도로 사업 설계, 수행,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였음 • 따라서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아세안 사무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향력과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아세안 사무국으로서는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호주가 아세안 사무국에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고 아세안 사무국과 호주정부가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함
<p>도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세안 사무국의 주요 역할로 대두됨 • 따라서 아세안 사무국으로서는 이 역할 수행을 위해 새로운 기법과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즉, 이 프로그램의 3대 원칙인 정렬, 조화 및 소유권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

1.3.2.2. 호주의 농업 ODA

가. 호주 농업 ODA 지원 동향

- 2010~2019년 기간 동안 호주의 농업 ODA 지원액은 2015년에 최저였다가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큰 폭의 증가는 없는 편임
 - 2019년 호주의 농업 ODA 지원 금액은 CRS 기준으로 1억 1천 3백만 달러 (2019년 불변 미 달러 기준)로서 2010년의 1억 5천 8백만 달러에 미달하는 수준임 (CRS, OECE.Statistics)
 - 농업이 호주 ODA의 우선 부문이기는 하지만 호주 ODA의 전체 예산 삭감에 따라 농업 ODA 지원액이 감소하게 됨
 - 2019년의 경우 호주 농업 ODA의 86%는 양자간 경로(bilateral channel)로 지원됨

나. 호주 농업 ODA 지원 우선 전략

- 농업생산성 향상과 파트너국 당면과제의 이해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이 호주의 농업 ODA의 중요 우선순위임.
 - 이에 따라 2019년도 양자간 농업 ODA의 43%가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ACIAR)를 통하여 농업연구에 지원됨.
 - ACIAR는 또한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등과 함께 다자간 경로를 통해 파트너국의 농업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양자간 농업 ODA의 차 순위인 농촌개발과 농업개발에도 각각 예산의 18%씩 지원함.

- 호주는 타 DAC 공여국에 비해 다자간 기구를 통한 지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2019년 호주는 다자간 기구²²를 통한 농업 ODA (core funding)에 2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농업 ODA의 14%로서 DAC 평균 47%보다 매우 적은 편임

- 2020년에 시행된 호주의 새로운 개발전략인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호주의 코비드 19 개발 대응”에서 농업부문은 우선 관심 분야가 아님
 - 그러나 호부 정부는 여전히 농업을 파트너국의 코비드19 위기 극복과 미래에 닥칠 위협성에 대비한 주요 산업으로 중시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혁신과 생물안전성에 대한 지식공유와 시장중심의 경제, 교역 및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

22 IBRD, 아시아 개발기금(ADF), FA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1.4 한국의 농업 ODA에 대한 국제적 평가

1.4.1. 한국의 국제농업개발 협력

1.4.1.1. 한국의 ODA에 대한 OECD DAC의 동료평가(peer review)²³ 및 권고사항

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성과

- 한국이 ODA 주요 공여국으로서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특히 개발 효과와 포괄적 성장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의 지식과 전문성을 경제적 및 인적 개발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음
 - 한국은 괄목할 만한 개발여정에서 스스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개발과 포괄적 성장을 추진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BRIICS (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South Africa) 그룹과 연계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 특히 2030 지속발전 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강력한 후원국으로서 파트너국 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고 있음
 - 한국의 이러한 리더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지구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등 관련 협의회를 유치하고 또한 최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포함한 주요 다자간 개발은행 회의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eetings)를 주최한 것에서 볼 수 있음

-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흐름으로 민간투자, 비 양허성 차관과 송금 등을 포함하면 ODA 지원규모의 6배 내지 8배에 달하며 이는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됨.
 - 한국은 민간부문을 통하여 투자와 재정지원의 폭을 확대하려고 힘쓰고 있음
 - 이것은 DAC의 1차 동료 평가 (first DAC peer review)의 권고사항에 따른 긍정적 노력의 결과로 보임.

2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 그 외에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수행성과는 특히 다음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신생 공여국과의 전문성 공유 및 협력 활동을 통한 삼각 협력체계 구축
 - 국가 또는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게 유지
 - 차관과 무상지원을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안배한 점으로서, 경제인프라를 위한 양허성 차관에 특히 치중
 -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여 피해를 경감

나. 한국 ODA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 한국의 ODA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위험분석 (risk analysis) 등을 포함 평가대상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 효과의 점검 개선 방안으로 타 공여국 또는 구호기관과의 공동 작업이 필요함
 - 평가에 따른 교훈과 내부적 학습과정을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것
 - 프로젝트 지원 상황과 개발결과에 대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 한국은 양자간 지원규모를 증가시킴에 따라 개발성과를 위한 원조의 질적 향상이 보다 중요시됨
 - 한국은 ODA 규모와 비구속성(untied)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국제적으로 약속된 수준에는 미달함
 - 지난번 동료평가 권고에 따라 비구속성 ODA비율이 2010년 32%에서 2015년에는 49%로 증가하였으나 다소 불규칙적임
 - 특히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비구속성 지원을 최대한으로 늘일 것을 권고함
 - 한국의 ODA 지원은 대부분 단기적 양자간 프로젝트인데 ODA의 효율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별 개발목적에 맞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해외원조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원조 관리 정책과 농지개혁, 시장개방 및 국가주도 산업화 등의 개혁조치를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국에 직접적으로 전수할 수 있을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파트너국과 정책개발과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한다면

- 수원국의 개발 잠재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경험과 모델이 수원국의 지속발전을 위해 어떤 조건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

- 차관과 원조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와 사회 환경적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OECD DAC 관리 네트워크 (GOVNET)를 포함한 다른 개발 파트너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임
 - 한국이 2016년도의 ‘OECD 부패위험 대처를 위한 개발협력 당사자 권고사항 (OECD Recommend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on Managing the Risks of Corruption)’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조정절차가 요구됨

- 한국의 ODA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과제로는 시스템의 복잡성, 세분화 증가 및 기술 전문성의 결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개발 추진 성과를 약화시키고 있는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예산승인이 여러 단계의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높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이 발생하는 점
 - 프로젝트의 발굴(identification)과 수행(implementation) 사이의 기간이 2년인 점은 특히 취약부문에 있어 변화된 요구나 새로운 기회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게 됨

- 이러한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함:
 - 프로젝트 승인절차의 간소화
 - 프로젝트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을 분권화 함으로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과제에 대응할 역량 강화

1.4.1.2.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Donor Tracker²⁴의 평가

가. 개발지원 현황

- 한국의 OECD DAC 국가중 개발협력 공여규모가 16번째로 큰 나라임.
 - 2020년 ODA 지원규모는 2조 6천 2백원²⁵이며 이는 총 국민 소득 (GNI)의 0.14% 임

²⁴ Donor Tracker는 2012년 빌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OECD DAC의 주요 ODA 공여국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https://donortracker.org/country/south-korea>)

²⁵ US\$2.2 billion in 2019 prices.

- 한국은 2020년에 ODA/GNI 비율을 0.2%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목표 수준에 미달함.
 - 그러나 한국 국회는 2021년 ODA 예산을 3조 7천 1백원으로 최종 승인함으로써 전년 대비 41%가 증액 됨.
- 이같이 ODA 지원규모를 늘리게 된 이유는 1995년까지 ODA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DAC 회원국으로서 공여국의 의무감을 점차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위기 속에서도 다자간 협력의 폭을 넓힌 결과임

나. 전략적/정책적 우선순위

- 한국은 파트너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2018년에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채택하였고 특히 2020년에 새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협력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음 7대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재편함:
 - ①보건의료, ②교육/인적자원 개발, ③문화 교류, ④무역 투자, ⑤인프라 개발, ⑥미래산업, ⑦비전통 안보.
- 2021년에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The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에는 12개의 중점 추진 목표가 설정되었음
 - 여기에는 전 지구적 보건위기 대응, 인도적 지원강화, 한국의 녹색 뉴딜 (Green New Deal) 추진, 개발협력 자원 조달의 다변화, 시민사회와의 유대 강화 등이 포함됨.
- 한국의 또한 녹색 ODA (green ODA) 추진에 힘쓰고 있음
 - 2023년까지 한국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투자 촉진 기구 (platform)인 녹색성장 동반협의회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의 의장국임
- 한국이 최근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협력 종합 계획²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DA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030년에는 ODA/GNI 비율을 0.30%로 증액
 - 비구속성 원조 (untied grants)의 비율을 9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26 신 남방 플러스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21-2025)

다. 한국의 농업 ODA

- 농업 및 농촌개발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임.
 - 한국은 2016년에 총 ODA의 7%에 해당하는 1억 8천 2백만 달러를 농업 ODA를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경로를 통해 지출함
 - 한국은 농업 ODA 지원 금액으로는 세계 13위이나 총 ODA에서 차지하는 농업 ODA의 비중으로 보면 9위 공여국에 해당할 만큼 농업 개발지원을 중요시 함

- 한국의 ODA는 양자간 경로를 통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임
 - 2016년 한국 ODA의 77%가 양자간 지원인데 이는 OECD DAC 평균 55% 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 2016년 농업 ODA의 나머지 23%는 다자간 지원 용도로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아프리카 개발기금 (AfDF)에 각각 45%, 26% 및 10%가 배정됨

- 한국은 또한 양자간 농업 ODA 지원 규모를 늘이고 있음.
 - 2016에서 2018년 사이 양자간 농업 ODA 지원 규모가 16% 증가함으로서 양자간 총 ODA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9%에 달함
 - 양자간 농업 ODA 지원 규모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된 ODA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임

2. 한국의 국제농업 개발 협력 사례분석

가. 국제 농업개발 협력의 변화

- 저개발국은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면서 앞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나라들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술 및 경험 전수의 의의를 찾고 공여국은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자국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발전 과정을 전수하고자 함.

- 많은 수원국들은 농촌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농업투자 확대와 식량증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곡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음. 이는 농업생산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체계가 미비하며, 전통적 문화에 따른 주민의 공동체 의식 부족이 농업 생산이나 농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많은 수원국들은 국가 빈곤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빈곤이 보다 심각함. 농촌지역 다수의 인구는 생계형 자급영농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엄청난 빈부격차, 도농간 소득격차, 만성적 고실업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 대부분은 일감의 부재, 기초교육의 부실과 높은 문맹률, 교육과 훈련기회의 부족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있음.

- 지역주민의 정부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역량부족 등으로 ODA사업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음

○ 2007년 국제식량위기 이후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소득증대 및 빈곤 타파에 있어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선진 공여국들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참여 확대,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원조 조화 및 정책협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공여국이 등장하고 이들은 농업개발협력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이후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농촌개발협력을 통합·조정하였음

○ 농업 선진국들은 국제농업개발 협력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를 제고시키는 효과적 수단이자, 국가가 광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임을 인식하였고,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제협상에서 국제농업협력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기존 원조방식의 문제점은 유상원조 증가로 인한 대외채무의 증가, 긴급한 현물, 식량 구호 등은 단기적 처방으로 한계성 노출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험의 전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들이 스스로 발전을 위한 역량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임.

나. 우리나라의 농업개발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농업성장 및 농촌개발의 경험과 관련한 정책자문, 훈련·연수 요청, 해외농촌개발 프로젝트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UN 관련 국제기구들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에서 보다 많은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왔음.
- 개도국들의 수요 증가 및 국내의 인식전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개발 경험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도국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모델과 차별화되는 국제농업·농촌협력모델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농업 선진국들의 농촌개발모형과는 차별화되는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모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 농업발전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빈곤 해소와 기아 해결에 공헌할 것임.

[그림 4-19] ODA 규모



자료: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4

2.1. 분야별/유형별 농업 개발 협력 사례분석

-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여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지원 효과가 큰 지역과 한국농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 개발 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성과 지향적 국제농업개발 협력모형을 구축하고자 함.²⁷

2.1.1. 수원국의 협력사업별 농업개발 사례 분석

- 2010 ~ 2020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였던 프로젝트형 국제농업 협력 사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2,688억 원 197개 사업 중 아시아 116건(58%), 아프리카 69건(35%) CIS 지역과 중남미 각 5건(5%)으로 많은 사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원한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면 농축산업 분야가 50%, 농촌개발 15%, 교육 포함 농업서비스 14%, 수자원 11%, 농식품안전기반 5%, 임업 5% 등으로 농업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농촌개발 분야가 차지하고 있음.
 - 동 기간에 추진한 사업 예산 및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사업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사업 분야도 다양화되고 예산 증가 등 외형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양적·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함.
 - 최근 들어 농촌종합개발 분야의 비중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코이카에서 추진하는 농업 분야 프로젝트 사업은 40%가 넘는 11개 사업이 농촌개발²⁸, 19.2%인 5건은 기술교육 등 역량개발에 집중되어 있음.

27 Agricultural development is abou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well-being of farmers, herders and agricultural workers. It focuses on the exploitation of land-intensive natural resources such as agriculture,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ies. It involves improving agricultural services, agricultural incentives and technologies, and the resources used in agriculture, such as land, irrigation, human capital and rural infrastructure. Rural Development. Fostering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Rural Development Report 2016, IFAD

28 Rural Development is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opportunities and well-being of rural people. It is a process of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ocieties. In addition to agricultural development, it involves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and environment objectives, as opposed to just economic ones. Therefore, rural development encompasses health, education and other social services. It also uses a multisector approach for promoting agriculture, extracting minerals, tourism, recreation and niche manufacturing. Fostering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Rural Development Report 2016, IFAD

- 농촌개발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규모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농업기술 역량개발 관련사업은 제도적 틀과 하드웨어 구축 관련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표 4-6] 농식품부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대상 국가 및 사업 수

대륙	국가	사업 수	국가	사업 수
아시아	베트남	8	필리핀	4
	캄보디아	7	부탄	1
	미얀마	6	인도네시아	2
	라오스	5	중국	2
	몽골	5		
	계			40
중동, CIS	우즈베키스탄	1	우크라이나	1
	계			2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7	우간다	2
	모잠비크	3	카메룬	2
	가나	3	콩고민주공화국	1
	르완다	2	튀니지	1
	계			21
중남미	볼리비아			1
	계			1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1
	계			1
합계				65

자료 : 허장,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제2차 포럼 발표자료, 2021.5.

[표 4-7] 농식품부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연도별 대상권역 추이

(단위: 건)

연도	사업 수	아시아	중동·CIS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2010	13	10	-	2	1	-
2011	22	12	-	9	1	-
2012	21	12	-	9	-	-
2013	18	11	-	7	-	-
2014	13	10	1	2	-	-
2015	16	12	-	4	-	-
2016	17	10	1	5	-	1
2017	19	9	1	8	-	1
2018	20	8	1	10	-	1
2019	18	9	1	7	-	1
2020	20	13		6	-	1
계	197 (100.0)	116 (58.9)	5 (2.5)	69 (34.8)	2 (1.0)	5 (2.5)

자료 : 허장, 전계서.

[표 4-8]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단위: 건, %)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비율(%)
곡물	벼 생산, 가공, 유통	10	15.4
	벼 이외 곡물	2	3.1
원예·특용작물	채소 재배, 저장	2	3.1
	감자 재배, 가공	5	7.7
	기타 원예·특용작물 및 시설	5	7.7
축산	사육, 가공	3	4.6
	낙농	3	4.6
	질병관리, 수의	3	4.6
수자원	용수 공급, 관리(수량)	6	9.2
	용수 공급, 관리(수질)	1	1.5
농식품안전 기반	농식품안전	0	0.0
	친환경, 우수농산물	2	3.1
	국경 검역	1	1.5
농업서비스	농기계 서비스	0	0.0
	농업정보 서비스	2	3.1
	농업기술 교육	7	10.8
농촌개발산림	산림 관리, 연구	2	3.1
	임산물 가공, 유통	1	1.5
	계	65	100.0

자료 : 허장, 전개서.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과거의 선진국들은 ODA의 외형 확대 즉 ‘원조의 양’에 치중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ODA 효과성인 ‘원조의 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공여국 간의 경쟁과열과 중복투자로 ODA가 개도국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확대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긴축의 압박과 ODA의 규모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원조 효과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음.²⁹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에 의하면 원조의 효과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로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 지원을 꼽았음. 마찬가지로 OECD DAC 보고서에도 한국 대외원조 정책의 문제점으로 피원조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원을 지적하였음. 즉, ODA 사업이 사업 실행 전 공여국과

²⁹ 박민지, 김경량, 한국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선정에 관한 연구,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3권 1호, 2011. 3

수원국간 협의와 충분한 검토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업이 ‘한국형 원조’와 ‘새마을 운동 ODA’라는 일방적 원조방식을 강조하며 우리의 개발 콘텐츠를 표준화하여 수출하겠다는 식의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조의 질적 평가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9] 연도별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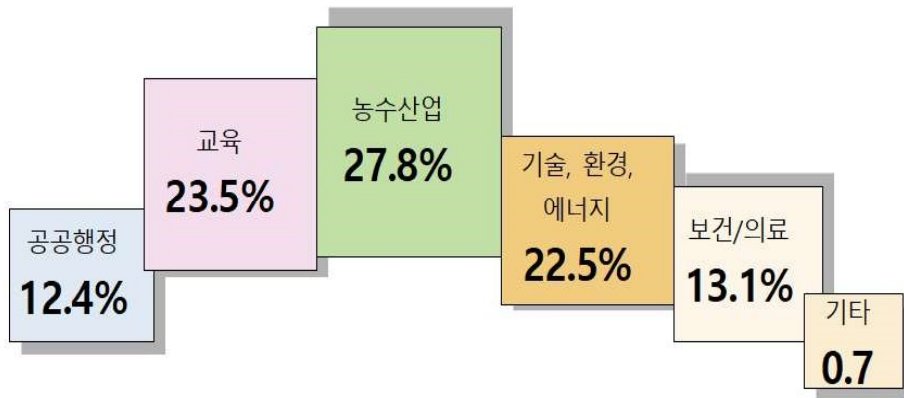
연도	사업 수	곡물		원예, 특용작물			축산		수자원			농업서비스		농식품안전 기반		농촌개발	산림		계		
		벼	벼 이외 곡물	채소 재배 · 저장	감자 재배 · 가공	기타 원예 · 특용작물	사육 · 가공	낙농	가축 질병 관리 · 수의	용수 공급 · 관리 (수량)	용수 공급 · 관리 (수질)	농기계 서비스	농업 정보 서비스	농업 기술 교육 · 연구	농식품 안전	친환경 · 우수 농산물	국경 검역	농촌 종합 개발		산림 관리 · 연구	임산물 가공 · 유통
2010	13	7.7	0.0	0.0	7.7	15.4	0.0	7.7	0.0	0.0	0.0	0.0	0.0	15.4	0.0	0.0	0.0	46.2	0.0	0.0	100.0
2011	22	9.1	0.0	4.5	4.5	9.1	4.5	4.5	0.0	13.6	0.0	0.0	0.0	9.1	0.0	4.5	0.0	27.3	4.5	4.5	100.0
2012	21	14.3	0.0	4.8	4.8	0.0	4.8	4.8	0.0	19.0	0.0	0.0	0.0	4.8	0.0	4.8	0.0	23.8	9.5	4.8	100.0
2013	18	11.1	0.0	5.6	5.6	0.0	11.1	0.0	0.0	22.2	0.0	0.0	0.0	0.0	5.6	5.6	0.0	16.7	11.1	5.6	100.0
2014	13	15.4	0.0	7.7	0.0	7.7	7.7	0.0	7.7	15.4	0.0	0.0	7.7	0.0	0.0	0.0	7.7	15.4	7.7	0.0	100.0
2015	16	18.8	0.0	6.3	0.0	0.0	12.5	0.0	6.3	12.5	0.0	0.0	6.3	6.3	0.0	0.0	6.3	18.8	6.3	0.0	100.0
2016	17	23.5	0.0	0.0	5.9	5.9	5.9	0.0	11.8	17.6	0.0	0.0	0.0	5.9	0.0	0.0	5.9	17.6	0.0	0.0	100.0
2017	19	21.1	10.5	0.0	5.3	5.3	5.3	0.0	5.3	10.5	0.0	0.0	5.3	15.8	0.0	0.0	5.3	10.5	0.0	0.0	100.0
2018	20	15.0	10.0	0.0	5.0	5.0	5.0	10.0	0.0	10.0	0.0	0.0	5.0	15.0	0.0	5.0	5.0	10.0	0.0	0.0	100.0
2019	18	16.7	11.1	5.6	5.6	5.6	0.0	11.1	5.6	5.6	0.0	0.0	5.6	16.7	0.0	5.6	5.6	0.0	0.0	0.0	100.0
2020	20	15.0	5.0	5.0	10.0	5.0	0.0	10.0	5.0	5.0	0.0	0.0	5.0	20.0	0.0	5.0	5.0	0.0	0.0	0.0	100.0

자료 : 허장, 전계서

○ 또한, 일부 ODA 사업은 수원 총괄기관과의 협의 없이 수원국 개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비효율 및 혼란이 발생하고, 공여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굴한 사업의 수원국 수요 부합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 차원의 검토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요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관기관이 사업발굴을 위해 수원국 정부와 정책협의 시 시행기관에 사전에 공지하고 공동으로 정책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즉, 공여국-수원국 모두 Win-Win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KOICA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 52.1억 불, 독일 11.9억 불 다음 세 번째로 큰 규모인 7.9억 불을 지원하고 있음. 아세안 주요 6개국의 분야별 지원 규모와 국가별 지원 동향은 아래 표, 그림과 같음.

[그림 4-20] KOICA의 아세안 지역 분야별 ODA



자료: KOICA, Together KOICA, Vol.2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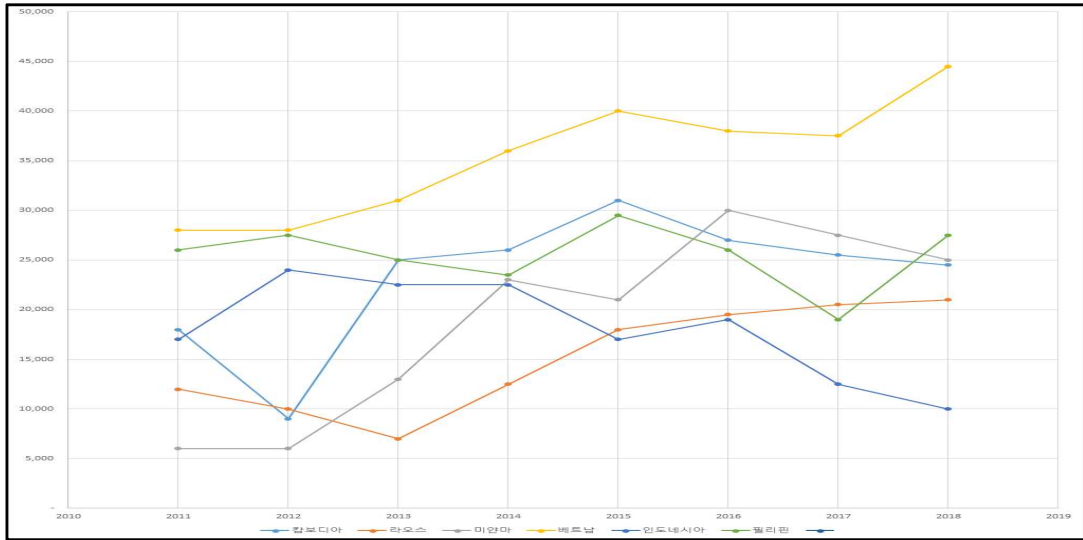
[표 4-10] KOICA의 아세안 6개국 ODA 중점협력분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교통	○	○		○	○	○
수자원 관리/ 보건위생	○		○	○	○	○
지역개발	○	○	○		○	
교육	○		○	○		
공공행정		○		○		○
에너지		○	○			
기타					재해방지	환경보전

자료: KOICA, Together KOICA, Vol.2 , 2020

[그림 4-21] KOICA의 아세안 6개국 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KOICA, Together KOICA, Vol.2 , 2020

-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적 발전 모색하고 있음. KOICA의 농림수산분야 전략은 농어촌 인프라 구축,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소득원 다양화와 새마을 운동을 포함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5개 전략목표로 구성됨.
- 2020년 KOICA 농림수산분야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분석해 보면, 28개 사업 중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의 수는 과거 50% 수준에서 14%로 대폭 축소됐지만 농촌종합개발지원사업은 43%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다음으로 농기계 및 교육, 연구 등 농업서비스가 22%, 농업용수 등 수자원 개발이 14%, 농식품안전 기반이 7% 순임.
- KOICA에서 수행해 온 대부분의 농업 분야 사업들은 생산, 유통, 가공 등 개별 단계에 집중하는 단편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고 하드웨어적 사업비중이 높은 편으로서, 국가별 농업 및 농촌개발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³⁰.

30 KOICA. 『KOICA 농산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17.

[그림 4-22] 농식품부, 한국국제협력단의 농림업 ODA 사업당 사업비 추이



자료 : 허장, 전게서.

[표 4-11] 농식품부와 KOICA의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사업 기간비교

구 분	단기(1~2년)	중기(3~4년)	장기(5~6년)	계
농식품부	30	33	2	65
KOICA	0	12	14	26

주 : 농식품부 사업은 2010~2020, KOICA 사업은 2020년 추진중인 프로젝트형 사업임.

자료 : 허장, 전게서

[표 4-12] KOICA 농업 분야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단위: 건, %)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비율
곡물	벼 생산, 가공, 유통	2	7.7
	벼 이외 곡물	1	3.8
원예·특용작물	채소 재배, 저장	0	
	감자 재배, 가공	0	
	기타 원예·특용작물 및 시설	1	3.8
축산	사육,가공	0	
	낙농	0	
	질병관리, 수의	0	
수자원	용수 공급, 관리(수량)	3	11.5
	용수 공급, 관리(수질)	0	
농업 서비스	농기계 서비스	1	3.8
	농업정보 서비스	0	
	농업기술 교육	5	19.2
농식품안전 기반	농식품안전	0	
	친환경, 우수농산물	1	3.8
	국경 검역	1	3.8
농촌개발산림	농촌종합개발	11	42.3
	산림 관리, 연구	0	
	임산물 가공, 유통	0	
합 계		26	100.0

자료 : 허장, 전게서

[표 4-13] KOICA 농업 분야 연도별 사업 목표에 따른 분류

(단위: 건, %)

연도	사업 수	곡물		원예, 특용작물		축산		수자원		농업 서비스		농식품안전 기반		농촌 개발		산림		계			
		벼 생산 · 가공 · 유통	벼 이외 곡물	채소 재배 · 저장	감자 재배 · 가공	기타 원예 · 특용작물	사육 · 가공	가축 질병 관리 · 수의	용수 공급 · 관리 (수량)	농기계 서비스	농업 정보 서비스	농기교 · 연구	농식품 안전	친환경 · 우수 농산물	국경 검역	농촌 종합 개발	산림 관리 · 연구		임산물 가공 · 유통		
2015	47	4.3	0.0	0.0	0.0	4.3	4.3	0.0	2.1	14.9	0.0	2.1	0.0	10.6	0.0	4.3	0.0	40.4	10.6	2.1	100.0
2016	44	4.5	2.3	2.3	0.0	2.3	2.3	0.0	0.0	13.6	0.0	2.3	0.0	22.7	0.0	2.3	0.0	34.1	9.1	2.3	100.0
2017	38	5.3	2.6	2.6	0.0	2.6	0.0	0.0	0.0	13.2	0.0	2.6	0.0	23.7	0.0	0.0	0.0	42.1	5.3	0.0	100.0
2018	32	3.1	3.1	3.1	0.0	3.1	0.0	0.0	0.0	15.6	0.0	0.0	0.0	25.0	0.0	0.0	0.0	43.8	3.1	0.0	100.0
2019	29	6.9	3.4	0.0	0.0	3.4	0.0	0.0	0.0	10.3	0.0	0.0	0.0	27.6	0.0	0.0	3.4	41.4	3.4	0.0	100.0
2020	28	7.1	3.6	0.0	0.0	3.6	0.0	0.0	0.0	14.3	0.0	3.6	0.0	17.9	0.0	3.6	3.6	42.9	0.0	0.0	100.0

자료 : 허장, 전계서.

[표 4-14] 농림분야 연도별 형태별 배분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농식품부	계	100.0	100.0	100.0	100.0
	프로젝트	83.3	97.2	97.2	97.3
	프로그램	-	-	-	-
	개발컨설팅	6.6	1.8	1.8	1.6
	초청연수	2.3	0.8	0.5	0.7
	기타기술협력	0.4	-	0.3	0.5
	행정비용	3.9	-	-	-
	기타	3.5	0.2	0.2	-
농촌진흥청	계	100.0	100.0	100.0	100.0
	프로젝트	38.8	-	-	-
	프로그램	-	1.0	0.6	0.3
	개발컨설팅	59.0	97.9	98.2	98.6
	초청연수	-	-	1.2	1.0
	기타기술협력	2.2	1.2	-	-
	행정비용	-	-	-	-
	기타	-	-	-	-

산림청	계	100.0	100.0	100.0	100.0
	프로젝트	95.3	100.0	100.0	96.5
	프로그램	-	-	-	3.5
	개발컨설팅	4.7	-	-	-
	초청연수	-	-	-	-
	기타기술협력	-	-	-	-
	행정비용	-	-	-	-
농림 계	계	100.0	100.0	100.0	100.0
	프로젝트	70.2	77.2	77.4	76.9
	프로그램	-	0.2	0.1	0.5
	개발컨설팅	25.4	21.7	21.6	21.6
	초청연수	0.8	0.5	0.5	0.7
	기타기술협력	0.9	0.2	0.2	0.3
	행정비용	1.4	-	-	-
기타	1.3	0.1	0.1	-	

주 : 농촌진흥청의 3FACI 사업이 2017년은 프로젝트, 2018년부터는 개발컨설팅으로 분류됨. 농촌진흥청의 다자성 양자 사업들이 2017년은 기타 기술협력, 2018년부터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됨. 농촌진흥청의 연수생연합체 기술지원 사업이 2017, 2018년은 기타 기술협력, 2019년부터는 연수사업으로 분류됨. 산림청의 개도국 열대림 지속가능 관리사업이 2017년은 개발컨설팅, 2018년은 프로젝트로 분류됨. 농식품부의 행정비용은 2018년 이후로는 각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됨.

자료 : 허장, 전계서

2.1.2. 우리나라 농업개발협력 추진 동향 - 국가별 농업개발 협력사례 분석

가.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는 새마을 운동 국제화와 관련 수원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전략을 차별화하며 국가별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관·학·연 역할을 분담하고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함.
- A그룹 : 최우선적 중점지원국인 10개국은 인프라·교육 훈련 등 종합 패키지사업 추진, 전국 단위로 사업 규모 대형화,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새마을 운동의 국가 정책화 유도 : 르완다, 베트남, 에티오피아, 네팔, 우간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가나, 세네갈
- B그룹 : 수원국 관심보다 개발수요가 크지 않은 11개국은 시범 마을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 스리랑카, 케냐, 남아공, 모잠비크, 파키스탄, 탄자니아, 키르키즈스탄, 카메룬, 동티모르
- C그룹 : 전국적인 확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10개국에는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을 통해 잠재적 확산 기반 조성 : 말라위, 나이지리아, 솔로몬 군도, 부룬디, 콩고, 짐바브웨, 필리핀, 에콰도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2.1.3. 사업 분야별(사업목표별) 농업개발 협력사례 분석

가.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분야별 농업·농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달라짐. 예로 경제발전단계별 중요도는 식량 증산 → 농촌개발 → 농산물가격 및 유통 → 경영, 유통, 정보 등으로 변화됨.³¹

나. 국가중점협력국들의 경우 최우선 농업·농촌개발사업은 R&D, 생산기반, 농자재공급, 농업금융을 기반으로 한 식량 증산사업 등임.

다. 국가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중점 지원사업과 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됨.

- 1) 식량 증산사업이 최우선 사업일 경우, 농촌 지역의 관개시설 확충 및 활용 증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 활용 및 관련 투자 증대, 농촌 인프라 구축,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빗물 저장 및 활용,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농기구 보급 및 기술 전수, 농업부문의 공공/민간 투자 촉진과 농촌 거주자의 비농업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농촌 지역 금융서비스 확대, 농산물가공업 개발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함.

2.1.4. 국가별/사업별 종합 평가

가. 수원국과의 협의 부족 및 운영 주체의 모호성

- 선진 공여국처럼 수원국의 지역적 정치/경제 등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ODA를 제공하고 있음. 수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공무원들의 태만한 업무수행 및 투자에 부적합한 법제도 등. 정부의 조달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의 부족

나. 사전 조사 미흡 및 사업방식의 비전문성

- 1~2회에 걸친 짧은 대상 지역 사업 타당성 검토. 지역연구체계가 미흡하고 DB 관리가 안 되어 곳곳에서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사업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³¹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agriculture's three worlds,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pp26~44, World Bank

다. 원조조직 및 사업방식의 비전문성

- 현재 우리나라의 원조 수행 조직과 기관들은 본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현장에는 실질적 결정 권한이 부족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조직 형태임. 2010년에 처음 도입된 ODA 통합평가시스템도 국내 원조 기관 간 상호 협의 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분절화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함. 위원회 조성 등 개방형 조직을 통해 개발 협력 사업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야 함.

라. 미흡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 MDGs/SDGs 를 연계한 성과지표 제시 및 관리 부재 등 KOICA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노력이 미흡. 포괄적/통합적 지역개발 사업방식이 요구되며, 2016년을 기점으로 SDGs와의 연계, 과학적 증거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마. 한국 농업 분야 ODA 지원내역과 수원국 개발수요조사의 불일치³²

- OECD DAC 보고서에 지적된 한국 대외원조 정책의 문제점처럼 수원국의 발전단계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경험이 많은 분야에 대한 사업이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수요조사를 통해 나온 지역별 개발 우선 요청 분야와 KOICA의 지원내역이 불일치를 보임.

- 아시아의 경우 농업생산 기술향상 분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업기술지도의 진흥, 농기계 설비 및 축산설비/자재공급 순으로 나타났음. 아시아의 경우 농업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아주 높음. 이는 곧 농업생산량의 증가는 국가 GDP의 증가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농촌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임. 또한, 아시아의 경우 농업의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물론 노동력이 풍부한 아시아지역의 농기계 보급이 일정 부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함.

- 결국, 국제개발 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선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새로

32 허태호, 김경량,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 연구,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6권 2호, 2014. 6

은 정책 접근법이 필요함.

- 첫째, 공여국의 경우 일방적 지원을 자제하고 개도국의 발전단계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국형 원조’의 지원은 한국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농림수산분야의 지원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 둘째, 수원국의 경우 협력시스템을 보다 체계화시켜야 함. 공여국의 개발수요 조사 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발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여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하여 역량개선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임.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 모두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셋째, ODA 사업의 효과성 저하 요인은 결국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의견 불일치에서 발생함. 이에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일치시킴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ODA 사업 선정 시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치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공여국은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기적인 욕심에 의해 당장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수원국의 경우 실제 주민이나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료들에 의해 사업을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제 개발 협력은 결국 사업 목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는 곧 비효과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잠식시키는 결과로 귀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 시행 전 자세한 개발수요조사를 하여 사업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할 것임. 양국의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고 이러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사업 선정 시부터 사업의 실패확률을 낮추고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임.

2.1.1. 우리나라의 협력 가능한 경험, 사업 및 기술

- 정기환 외(2003), 김용택(2009), 허 장 외(2011) 등 한국농촌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과정에서 핵심역량(비교우위)을 갖춘 분야로 검증된 분야와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한국농업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 종자 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투입재 확대, 인프라 개선 등으로 생산성 향상. 농산물수확후 관리,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부문에서 기술 개발.
 - ▷ 새마을 운동 등 농촌개발 경험. 많은 개도국에서 이미 강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개발모델로 자리 잡음.
 - ▷ 농촌사회의 전통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 혹은 동원(mobilization)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 ▷ 축적된 농업기술과 경험을 체화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
 - ▷ 협력 분야 선정 기준
 -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분야
 - 국제 비교에서 한국 농업정책이 다른 나라 농업정책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정책
 - 개도국 빈곤 타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개도국에 이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
 - ▷ 정기환 외(2003)는 국제이전 가능 분야로 10개 분야를 제시
 - ① 벼 육종 및 재배기술에 관한 종합 지원
 - ② 가축 사양 및 번식기술 지원
 - ③ 잠업 기술지원
 - ④ 벼섯재배 기술지원
 - ⑤ 새마을 운동 사업 지원
 - ⑥ 농업협동조합 운동 지원
 - ⑦ 열대 채소/과수 연구소 지원
 - ⑧ 수자원개발 및 생산기반 정비 지원사업
 - ⑨ 농산물 가공과 유통사업 지원
 - ⑩ 농업 분야 R&D 지원
- 우리나라의 협력 가능한 경험, 사업 및 기술을 검토 시 근본적으로 한국 국가 개발의 3대 요소인 리더십과 시장주의 경제, 교육시스템을 들 수 있음.
- ▷ 한국은 3대 요소를 잘 활용한 성공한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 농촌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농지개혁 및 농촌 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비롯한 제도 시행을 통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높은 농업생산 기술 등을 통해 식량난과 빈곤 문제를 극복하였음.

- ▷ 수원국의 농촌개발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핵심임.
 -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한국형 국제농촌개발 협력모델 구축. (작물재배, 농업기술보급체계, 농업정책, 농식품산업 육성정책 등)
 -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분야별 농업·농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달라짐. 주요 개도국은 R&D, 생산기반, 농자재공급, 농업금융을 통한 식량 증산사업 지원과 농촌 지역의 관개시설 확충 및 증대, 농촌 인프라 구축, 안정적 물 공급,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농기구 보급 및 기술전수, 농산물가공업 개발 등을 요청

2.1.2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 분야 선정

○ 한국 농업농촌개발 경험의 원용 가능성(예시)

- ▷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분야별 농업·농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달라지는데, 즉 경제발전단계별 중요도는 식량 증산 → 농촌개발 → 농산물가격 및 유통 → 경영, 유통, 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 주요 개도국의 경우 농촌개발사업 중 농업 분야는 R&D, 생산기반, 농자재공급, 농업금융을 기반으로 한 식량 증산사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만약 식량 증산사업이 최우선 사업일 경우, 농촌 지역의 관개시설 확충 및 활용 증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 활용 및 관련 투자 증대, 농촌 인프라 구축,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빗물 저장 및 활용,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농기구 보급 및 기술 전수, 농업부문의 공공/민간 투자 촉진과 농촌 거주자의 비농업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농촌 지역 금융서비스 확대, 농산물가공업 개발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됨.
- ▷ 한국의 국제농촌개발 협력 사업의 추진 시 농업·농촌개발 조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개도국 농업부문의 성장과 농촌 빈곤 감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대형 농업용 수자원 댐이나 RPC, LPC 등 농축산물 가공시설의 건축과 같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임.

▷ 그보다는 군 단위 이하의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산물 기술보급용 시범포 건설, 인구 500명 정도 규모 마을에 대한 새마을 운동 같은 주민 자치조직 주도의 마을개발에 대한 지원, 소금융(microcredit)이나 작목반 조직화 등 농업서비스의 제공 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즉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위주의 중소규모 시범 사업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차별화 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국만이 가진 농촌개발전략으로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농촌개발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특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해오면서 겪었던 경험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모범 사례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험한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의 적용된 방식을 접목시켰을 때 사업성과가 높고 주민 의식이 개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³³ 한국의 농촌개발 분야의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고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예시로 분류하면 <표 3-15>와 같음.

[표 4-15] 한국의 농촌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방안(예시)

사업구분	주요 내용	소득수준 및 대상국가
새마을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전국의 모든 마을에서 전개된 국민운동이자 농업·농촌정책 • 농촌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성공의 원동력임. 이는 한국의 마을 공동체, 역사적 문화전통 등 다양한 구조적, 역사적인 요인들이 새마을 운동의 성공에 기여하였기에 개도국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근본적인 농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마을 운동의 전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국민소득 \$1,000 미만 • \$1,000~3,000 수준 • \$5,000 이상 • 아프리카 • 남부아시아
녹색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을 통해 생산 능력향상과 재배기술의 발전 •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농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정책자문 및 협력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국민소득 \$1,000 미만 • \$1,000~3,000 • \$5,000 이상 • 아프리카 • 남부아시아

33 김경량 외, Korea's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aemaul Undong: Transferability and Limitations, 한국협동조합연구 33집, 2권, 2015. 8

백색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생산의 주년화를 위해 온실의 구조와 자재 및 설비 기술 등 전수 농가는 시설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품질 중시 농산물 재배로 전환 해당 국가의 생활양상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조 국가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민소득 \$5,000 이하 중아시아 중남미 국가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업 전담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사업 전담의 농업은행을 통합한 종합농협체제 식량자급 부족과 부채,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촌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진 식량의 자급과 농촌금융시장의 발전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민소득 \$1,000~5,000 중아시아 중남미 국가 반 자급적 소농구조 개도국
수확 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개도국 농산물 감모율 40~50%에 달함. 개도국의 농산물 생산물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확 후 관리 기술수준도 매우 낮은 편임. 수확후 손실감소,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지원 및 현대화, 정부관리자 양성, 연구인력육성, 산업 기술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국내 초청 및 현지 연수교육 	<p>개발도상국 모든 국가</p>
농산물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유통체계는 열악한 수준이며 현대적인 마케팅시스템 도입 필요. 농산물 유통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적절한 저장과 가공, 운송 등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민소득 저개발단계~고소득단계 적용 1인당 국민소득 \$500~ 전반적 적용가능
농업기계화 정책 및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식량생산을 유지. 농업기계 산업육성,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후관리 조직의 육성, 농업기계교육과 훈련, 농업기계 연구개발 및 검사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아시아의 벼농사지역에 우리나라 경험과 교훈이 정책개발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민소득 \$1,000~5,000 \$5,000 이상 아시아 농업국가(쌀) 신흥 공업국
농업용수 개발 및 공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재해에도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기반정비 필요. 농촌용수나 가뭄대책, 경지정리, 우량농지의 유지보전을 위해서 관리시설의 현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민소득 저개발단계~고소득단계 적용 1인당 국민소득 \$500~ 전반적 적용가능

경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의 흩어진 농경지 군집화 및 구불구불한 도로 재정비를 통한 영농의 효율성 증대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조합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지원정책 필요.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농어촌 정비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입장의 농어촌 정비 및 개발을 위한 시책 강구. •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초기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모델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농축산물 검역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개도국 농축산물 검역시스템 미비. • 개도국의 검역시스템 미비로 대외적인 농산물 품질 경쟁력 미달. • 농축산물 검역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 훈련 등 역량강화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ICT 활용 농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개도국 농업 및 정책분야 DB 구축시스템 미비. • 개도국의 DB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미비로 농가경영과 농업정책 관련 체계적 DB 전산화를 통한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 필요. • 개도국 식량안보능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목표 달성 도모. • ICT 활용 농업 및 정책분야 DB 구축시스템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 분야 생산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교육 훈련 등 역량강화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Smart Far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개도국은 농업생산의 낮은 생산성 탈피와 새로운 소비트렌드 충족을 위해 스마트 팜링 기술 및 훈련요청 • 개도국의 농산물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스마트 팜링에 의한 신기술 도입과 소득증대를 기대. • 스마트 팜링에 의한 현대적인 농업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 분야 생산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교육 훈련 등 역량강화 	개발도상국 모든 국가

자료 : 김경량 외, “KSP 지식공유사업 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2013. 12 재구성.

○ 한국의 사례가 개도국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고 우수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험하였던 실패사례에 대한 교훈도 강조할 필요가 있음.³⁴

▷ 그리고 한국의 경험 시점이 주로 1970, 80년대에 걸친 것이지만, 지난 20~30년 동안 국제적인 경제 및 기술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사항을 반영한 국가별, 분야별 맞춤형 사업이 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음³⁵.

34 김경량, 김경철, SDGs 채택에 따른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국제개발협력 4호, KOICA, 2015. 12

35 김경량 외, “KSP 지식공유사업 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2013. 12

- ▷ 앞으로 국제농촌개발 협력 사업은 특정 개도국의 사례별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 된 액션플랜과 매뉴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라 하더라도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기술수준이나 정치 수준이 변화된 이후로 그 사업 시기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각 농촌개발사업들이 새마을 운동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 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농업개발사업의 전망과 추진 방향³⁶

- ▷ 국가 전체의 GNI 대비 ODA 비율 목표가 현재보다 높아지면서 ODA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임. 국가 전체대비 농식품부와 양청의 ODA 규모는 지난 수년간 그 상대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지속할 것임.
- ▷ 다자성 양자 원조는 WFP를 통한 식량 원조, 창원이니셔티브, AFoCo 지원 등 중·대형 사업이 지속되는 한 전체 양자원조에서의 비중은 계속 유지될 것임.
- ▷ 중동·CIS 지역, 중남미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의 사업이 늘어나고 아프리카의 경우 지역 내 대상국가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함.
- ▷ 원예작물의 생산, 곡물의 가공과 유통,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임.
- ▷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프로젝트형, 농촌진흥청은 개발컨설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에 비해 앞으로는 농식품부는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컨설팅을 확대하고 국제적 추세에 따른 프로그램형 사업도 발굴, 추진하게 될 것임.

³⁶ 허장, 전게서

[표 4-16] 농림업 ODA의 현재 수준과 목표 종합

(단위: %)

구 분			As Is in 2020	To Be in 2025 and 2030	
			2020	2025	2030
ODA 규모(%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전체	2.60	3.5	4.0
		양자	2.61	2.6	2.6
	농림 전체	전체	3.70	4.5	5.2
		양자	3.95	3.9	3.9
양자 대 다자(%)	농식품부	양자	81.5	75	70
		다자	18.5	25	30
	농림 전체	양자	86.5	80	75
		다자	13.5	20	25
다자성양자(%) (식량원조 제외)	농식품부		17.3	17	17
	농림 전체		20.5	20	20
지역별 배분(%)	농식품부	아시아	59.6	55	50
		중동·CIS	0.0	8	13
		아프리카	32.9	30	25
		오세아니아	0.0	0	0
		중남미	7.5	7	12
분야별 배분 (핵심전략 분야)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추진분야) • 농업기술 교육, 연구 • 벼 생산, 가공, 유통 • 벼이외곡물(옥수수등) • 낙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작물 생산 • 곡물 가공 및 유통 • 농업기술 개발, 보급 • 스마트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설정
형태별 배분(%)	농식품부	프로젝트	97.3	90	83
		프로그램	-	3	5
		개발컨설팅	1.6	5	10
		초청연수	0.7	1	1
		기타	0.5	1	1
	농림 전체	프로젝트	76.9	70	62
		프로그램	0.5	3	5
		개발컨설팅	21.6	25	30
		초청연수	0.7	1	2
		기타	0.3	1	1

자료 : 허장, 전개서

2.2.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사례분석

- 우리나라보다 값싼 농지와 노동력 등 생산자원을 찾아서, 그리고 보다 넓고 좋은 시장조건을 찾아서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일에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님. 해외영토 확장에 농업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활발한 해외농업 진출을 통하여 시장개방으로 유희화될 수밖에 없는 농업기술과 자본의 새로운 소득기회를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의 식량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목적이 있음.
- 2009년 이후 정부는 곡물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구성하고 해외농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 전문인력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의 초기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며 민간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계획³⁷을 처음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³⁸
- 이러한 정책 변화는 종래의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곡물 가격안정화대책 차원으로부터 석유, 가스, 광물자원 확보에 치우쳐왔던 우리나라의 자원외교의 관심 사항에 식량자원이 추가되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음. 물론 해외 식량 기지 확보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전략과제임은 분명함.
-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 10위권의 교역 국가로서 해외농업개발을 해외 식량 기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왜냐하면, 해외농업 진출의 성공은 단순한 식량 접근기회 확보의 기능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추진 동향
- 해외농업 진출은 전혀 다른 농업 환경 속에서 생소한 현지의 제도와 시장조건에 적응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임. 그러므로 아무리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그동안의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37 농장운영비, 저장 및 유통시설비 등 직접사업비는 장기저리융자(연리 1.5%)로 지원하고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개발조사비는 재정에서 보조하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예산을 2009년 280억원을 확보함.

38 성진근, 한국농업의 외연확장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mimeo, 2010

농업생산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자재·유통·서비스)과의 연계체제 등 농업생산 지원 시스템의 미비 문제, 해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반입에 따른 국내생산과의 경합문제, 생산국 현지 법률과 제도 및 관행과의 마찰 등 소위 컨트리리스크 (Country Risk)극복문제 등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부족했으며, 지속적인 투자 부족과 경험 부족 등으로 그동안의 해외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중단 내지 실패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³⁹.

- ▷ 해외농업자원개발은 2009년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사업’추진 이후 10년 지났으며 제2차 및 제3차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책목표가 식량안보 강화에서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전환됨.
- ▷ 운영자금 융자지원과 민간환경 조사 등 보조사업이 추진되면서 해외 진출기업 수,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국내 반입량 등이 꾸준히 증가추세임.
- ▷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 예산 감축, 국제 곡물 시장 내 불안감 조성 등의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현행의 정책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지난 10여년간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성과와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3]. 동남아시아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현황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계
37	21	14	14	12	8	10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20년 실적, 2020.12

39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202개 기업 중 53%인 106개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중 실적기업은 32개로 생존율은 30.8%에 불과함.

○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실태분석

[표 4-17] 국가별 생존율 및 실적

국가명	신고 기업	실적 기업	생존율 (%)	개발 면적(ha)	확보량 (톤)	반입량 (톤)	주요 작물
계	106	32	30.8	110,502	1,171,412	3,331	
캄보디아	37	13	35.1	4,195	22,674	3,311	카사바, 망고 등
인도네시아	21	5	23.8	39,304	521,771	-	옥수수, 오일팜
필리핀	14	1	7.1	852	2,700	-	옥수수
베트남	14	7	50.0	1	3	-	옥수수, 딸기, 바나나
라오스	12	1	8.3	17	400,000	20	옥수수, 카사바
미얀마 등	8	6	75.0	66,133	224,264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20년 실적, 2020.12

- 전체 202개 기업 중 53%인 106개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진출
 - 초기에는 옥수수, 카사바, 사일리지 등 곡물과 사료작물 생산으로 진출하였으나 최근 카사바 가공, 팜오일, 열대과일의 생산·유통, 사료산업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국가는 캄보디아임.
 - 2020년 4개 기업이 신규로 신고하였음.

○ 해외 진출기업의 당면 문제

▷ 국내반입 관련 애로사항

- ☞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낮음.
- ☞ 높은 관세, 항만 운송과 물류비 등의 비용에 대한 큰 부담
- ☞ 균일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 통관절차, 유통과 물류시설,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

○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국가별, 사업별 종합 평가

○ 성공사례

▷ 캄보디아 : 현대종합상사

- ☞ (주요품목/지역) 망고, 채소 등 / 캄보디아
- ☞ (사업추진현황) 망고(260ha), 1,500톤 생산, 자체 식물검역 및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국내반입
 - 망고, 채소류 등 농산물 수출입 유통사업
 -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내수 유통 및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 농업 브랜드 관리 및 포장재 카톤 박스, 포장재 비닐류 제조 등

▷ 인도네시아 : 팜스코

- ☞ (주요품목/지역) 옥수수 / 슬라웨시
- ☞ (사업추진현황) 옥수수 수매 및 판매
 - 2020년도 기준 86,609톤 현지 판매
 - 옥수수 건조장 운영(마리사 1공장 3ha, 이시무 2공장 1ha) 등

▷ 미얀마 : 선진

- ☞ (주요품목/지역) 사료판매 등 / 만달레이
- ☞ (사업추진현황) 사료 가공 공장 및 종계장 운영
 - 사료 가공공장 약 10에이커 규모의 공단을 임대하여, 월 12,000톤 생산
 - 종계장 총 15만수(1종 계장 8동, 7만수, 2종 계장 8동, 8만수)

○ 해외농업개발의 실패사례 분석

▷ 진출기업의 사업중단 사유

- ☞ 생산물 가격 등락 폭 심화에 따른 손익분기점 붕괴
- ☞ 현지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관리 실패
- ☞ 모기업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경영 악화
- ☞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후 현지인의 수매조건 임의 파기
- ☞ 기존 진출 외국기업의 입도선매에 따른 원료 고가 구매
- ☞ 국유지 토지양여의 경우 농경지 개간에 장기간 소요 및 현지 거주 주민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 장기화

○ 주요 현안

▷ 농지확보

- ☞ 대부분의 체제전환국 등기 미비,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1인당 경지면적이 작음
 - 농지 브로커, 관료의 부정 등으로 농지의 확보 어려움

- 대규모 곡물 생산 농장 등의 사업은 어려움 가중
- ★ 곡물 저장, 유통사업이나 식품 가공,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전환

▷ 입지선정

- ☞ 산림, 도서 지역에 진출하여 물류 인프라 부족, 토양 부적지에 진출
- ☞ 태국, 베트남 접경 지역에 후발주자로 진출하여, 경쟁력 확보 어려움
- ★ 진출 조사 시 물류 경쟁력, 토양 및 토질, 시장 정보에 대한 조사 철저 필요

▷ 전문가 확보

- ☞ 해외 진출 준비부터 현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
 - 한국식 농업과 기계화 추진으로 현지화 실패로 정착 부진
 - 자질이 부족한 현지 교민이나 브로커에 의지한 사업은 대부분 중단
- ★ 현지 농업 환경과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와 인력의 확보가 사업 성패의 과제

○ 시사점

▷ 합리적인 진출지역의 선정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 충족

- ☞ 첫째, 진출대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야 함. 현재 수준에서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국제경쟁력이 높은 지역은 부존되어있는 농업자원 조건이 비교우위적인 지역임.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국제시장으로 수출하고 비상시에는 국내 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
- ☞ 둘째, 인구 규모가 크고 충분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지역으로 진출해야 함. 현지 시장에서 생산물을 소비시키지 못하고 평상시에도 국내반입을 목표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은 결국 국내 농산물과의 시장경합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임.
- ☞ 셋째, 에너지 등 자원개발을 위한 접근통로 확보나 재외동포의 경제적 지원 향상 등 정치 사회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자원보유국은 에너지나 광물 등 지하자원의 공동개발보다는 자국의 낮은 농업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협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이를 수용하여 농업협력을 디딤돌로 하여 우리가 바라는 자원확보

목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최빈국(最貧國)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러므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Project aid and Program aid)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해외 진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⁴⁰

▷ 농업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농업 System의 동반 진출

☞ 한국농산물이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농업생산을 뒷받침해주는 자재, 유통, 서비스산업 등 농업관련 산업이 잘 발달하여 있기 때문임. 아무리 해외농업생산자원의 부존조건이 비교우위적이라고 하더라도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산업의 적절한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성공을 기약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농업의 해외진출은 농업생산과 유통을 아우르는 농업시스템의 진출을 통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기후, 용수, 토양, 토질 등 농업생산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는 해외농장에서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 비료 등 농자재 뿐만 아니라 농용기계와 온실자재 등 농업시설과 장비의 효과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임. 또한 생산이후의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저장, 포장, 유통(도매, 소매)시스템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땅값과 인건비만 싸다고 해외농업 진출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농업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농업관련산업(자재, 유통, 서비스산업)의 적절한 지원체계가 포함된 조직적인 농업시스템이 동반진출 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짐. 즉, 농산물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System의 동반진출이 필수적임.

▷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구축⁴¹

☞ 민간부문의 단독능력으로서는 정보와 경험부족 등 이유로 농장확보와 관

40 UN이 권고하는 ODA/GNI비율은 0.7%이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0.15% 수준임 또한 2010년 OECD의 DAC(개발협력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가입 이후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해서 확대되었음.

41 김완배 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발전방향, mimeo, 2012.2

련된 교섭과 협상능력이 부족함. 또한 대규모 농장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초기투입자본(기계, 설비, 시설 등)을 동원하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법제도에 준한 해외농업지원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함.

- ☞ 정부지원시스템은 ①농장확보와 대농경영에의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와 경영컨설팅서비스 제공 ②농장개설 초기의 장비·기계·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장기저리융자제도 등을 축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 기존 진출업체의 경험 및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및 협회의 영역 확대
- ☞ 해외농림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 진출 국가별 협의체 구성 및 협회의 지회화
 - ☞ 농업관련기업(농업자재, 가공, 유통 등)을 특별회원으로 영입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킴은 물론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유도
- ▷ 새로운 진출 국가에 대한 농업 및 조림 투자환경 조사사업 실시
- ☞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진출 국가 및 지역을 보다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 ☞ 이 같은 조사사업 시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됨.
- ▷ 협회 차원의 ODA 사업 참여 및 자원개발협회와의 연계 강화
- ☞ 우리 정부의 개도국 무상원조사업(ODA) 및 자원확보사업과의 연계 추진
 - ☞ 대부분의 자원보유국은 개도국인 경우가 많고, 이들 국가는 자원의 공개발과 더불어 자국의 농업·농촌 문제해결에 우리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출대상국을 OD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정부 건의
- ☞ 정부의 용자충액, 용자조건, 저율관세 할당(TRQ) 물량 확보 등
 - ☞ 검역기준의 개선(예: 아프리카톡신 기준을 축종별로 차등화) 및 검역 기간 단축
 - ☞ 용자대상품목을 국내 조달이 어려운 전 품목으로 확대
-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리스크 감축 노력 및 재원조달 방식의 다변화
- ☞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 간 MOU 체결 및 민간기업 간·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

- ☞ 농림모태펀드, 벤처 캐피털 자금 등을 유치
- ☞ 중기적으로 정부 용자사업의 대행

▷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영농지원단의 운영

- ☞ 회원사 및 후계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 ☞ 농업 전문 고급인력의 DB화 및 진출기업에 파견. 신성장동력 및 미래를 위한 토대 건설의 선구자로서 자긍심 고취

제5장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방안

1. 농업협력 과제와 전략 분야 발굴

- 국민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활동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틀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과 ASEAN 간에도 양자 및 다자 채널의 농업협력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

- 즉 농업부문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협정으로 한·ASEAN 양자 간에 합의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과 “기본협정 하의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으며, 한국과 ASEAN 외에 다른 지역 국가들이 함께 참여한 다자협정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ASEAN+3 Work plan” 등이 있음.
 - 한·아세안 농업협력 과제 발굴은 이처럼 현재 가동 중인 협력시스템의 테두리 내에서 모색되어야 하나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교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FTA)과 RCEP의 경우 장기간의 협상을 통하여 당사국들의 협력 및 세부 이행과제가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어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협력과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협력과제에 교역-투자 증진 등과 함께 농림수산분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ASEAN+3도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의 합의 내용이 Work plan 형태로 문서화 되어 존재함.
 - 그러나 그 내용이 FTA나 RCEP의 이행계획서(C/S)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문안으로 기술되어 있어 농업부문에서 협력과제를 더 찾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이상의 국제적인 약속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심화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과도한 대미/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신남방정책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형태로 기술되어 있어 농업부문에서 실행과제를 찾아 기여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한-ASEAN 간의 협력 의사와 함께 ASEAN 측의 협력수요가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농업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찾아 기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a)“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 3.1조 및 부속서(Annex)”와 (b)“ASEAN+3 Work plan”, 그리고 (c)우리가 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농업부문의 협력과제를 탐색함.

1.1. 한-ASEAN 간의 약속 및 농업협력 과제

○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한-ASEAN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상품교역에 관한 별도 협정 외에 제 3.1조(협력 범위와 이행)에서 한-ASEAN 간 협력과제로 교역-투자증진 등과 함께 농림수산업 분야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이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에 관한 부속서(Annex)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동 부속서 제9조(농림수산업 협력)와 제14조 2항(검역 및 위생 조치)은 농림수산 부문에 협력기회가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아래와 같이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표 5-1] 한-ASEAN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규정된 농업협력 주요과제

기본협정	농업협력 주요과제
본문 제3.1조 및 부속서 제9조(농림수산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업 관련 정보 교환 ○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 ○ 공동 농업연구개발 ○ 지속가능발전 기술 지원
본문 제3.1조 및 부속서 제14조 2항(검역 및 위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교류 ○ 농식품 유통 및 포장 제도 개선 ○ 검역위생 관련 인적자원 개발 ○ 검역위생 관련 기술개발과 촉진

자료: “한-ASEAN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기초로 필자 작성

○ ASEAN+3 Work plan

- ASEAN이 1997.12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당시의 금융위기 등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한·중·일 3개국을 동시에 초청하여 개최한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이 정부 간 협의체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0여 개 분야 60여 개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음.
- 그 중 ASEAN+3차원에서 농업부문의 협력과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합의로는 (a)2017년 8월 제18차 ASEAN+3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ASEAN+3 Work plan 2018~2022”와 (b)2017년 9월 제17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서 합의된“ASEAN+3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2016~2025”를 들 수 있음. 이 두 합의문에 규정된 농업부문의 주요 협력과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5-2] ASEAN+3 합의문에 규정된 농업협력 주요과제

합의 내용	농업협력 주요과제
ASEAN+3 Work plan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한-ASEAN간 교역과 투자 촉진 o. 농식품분야 협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와 경험 공유, 인적역량 강화 -ASEAN+3 긴급쌀비축협정(APTERR) 이행을 통한 지역 내 식량안보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강화를 통한 주요 식량관련 정보교류 -선진 영농기술 습득 기회제공 -민관파트너십(PPP) 환경 조성 등
ASEAN+3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 and Forestry 2016~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아시아지역 식량안보 강화 o.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o.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o. 동식물 질병 및 해충 관리 o. 역량 강화-인재 육성 o. 농업 생산성, 품질 및 시장성 향상 o. 정보와 지식 네트워킹 및 교류 강화 o. 연구개발 협력 강화

자료: “ASEAN+3 Work plan 2018~2022”과 “ASEAN+3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 and Forestry 2016~2025”에서 필자 발췌

○ 신남방정책

- 우리나라의 對 ASEAN 협력전략을 대표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국익 제고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번영 전략이기도 함.

- 이 신남방정책의 전략과제 중 농업부문의 협력이 요청되는 과제를 발췌-요약 하면 아래와 같음.

[표 5-3] 신남방정책에 포함된 농업협력 주요과제

신남방정책	농업협력 관련 전략과제
사람공동체(People)	③ 인적 자원 역량강화 지원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⑦ 교역·투자 증진 기반 강화 ⑨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⑩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 제고 ⑪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자료: 신남방정책의 16대 전략과제를 기초로 필자 작성

1.2. 한-ASEAN 농업협력 전략 분야

- 한국과 ASEAN이 양자 또는 다자 틀 내에서 약속한 내용을 기초로 발굴된 전항의 농업협력 과제들을 협력 확대 차원의 전략 분야별로 재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이 (a)농업통상(Trade), (b)해외농업투자(FDI), (c)농업개발 협력(ODA), (d)지역 식량안보(Food security), 그리고 (e)연구개발 협력(R&D)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음.

[표 5-4] 농업협력 확대정책과 세부과제

농업협력 전략분야	농업협력 세부과제	합의 또는 약속이 이루어진 틀
(a) 농업통상 (Trade)	-검역위생 조치 정보교류 -검역위생 전문인력 개발 -검역위생 기술개발과 촉진	한-ASEAN경제협력 기본 협정
	-한-ASEAN 농식품교역 촉진	ASEAN+3 Work plan 2018~2022
	-교역증진 기반 강화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남방정책
(b) 해외농업투자 (FDI)	-한-ASEAN 농업투자 촉진 -민관파트너십(PPP) 환경 조성	ASEAN+3 Work plan 2018~2022
	-해외투자 증진 기반 강화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남방정책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	한-ASEAN경제협력 기본

(c) 농업개발협력 (ODA)	-지속가능 발전 기술지원 -농식품 유통 및 포장 개선 -검역위생 전문인력 개발	협정
	-정보/경험 공유, 인적역량 강화 -선진 영농기술 습득 기회제공	ASEAN+3 Work plan 2018~2022
	-동식물 질병 및 해충 관리 -역량 강화-인재 육성 -농업생산성, 품질, 시장성 향상	ASEAN+3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 and Forestry 2016~2025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삶의 질 개선 지원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제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신남방정책
(d) 지역 식량안보 (Food security)	-ASEAN+3 긴급쌀비축협정(APTERR) 이행을 통한 지역내 식량안보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강화를 통한 주요 식량 관련 정보교류	ASEAN+3 Work plan 2018~2022
	-아시아지역 식량안보 강화	ASEAN+3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 and Forestry 2016~2025
(e) 농업연구개발 협력(R&D)	-농림수산업 관련 정보 교환 -공동 농업연구개발	한·ASEAN경제협력 기본협정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보와 지식 네트워킹 및 교류 -바이오 매스 에너지 개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ASEAN+3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 and Forestry 2016~2025

2. 분야별 농업협력 성과와 과제

- 본항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분석결과를 한·아세안 농업협력 차원의 전략 분야별로 요약하되 그간의 성과와 제약요인 등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한·ASEAN 농업협력 전략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2.1. 농업통상 분야(Trade)

2.1.1 한·ASEAN 통상협력 시스템과 성과

- 6억 6천만 인구를 가진 ASEAN은 빠른 경제성장(2020년 4.7%) 및 국민 소득 증대와 함께 경제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국제교역 규모와 해외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글로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부상하는 ASEAN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2002년 10월 싱가포르를 상대로 FTA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한-ASEAN FTA를 비롯하여 3개의 FTA가 통상협력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또 다른 3개의 FT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준비하고 있음(표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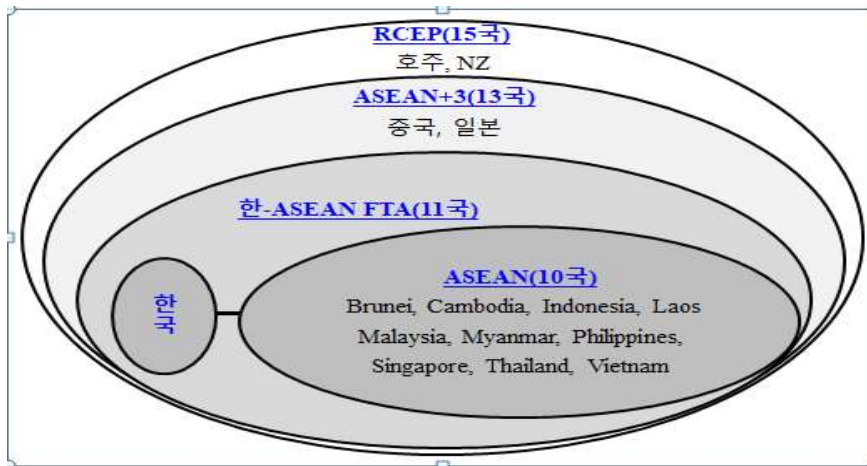
[표 5-5] 한·ASEAN 국가 간 FTA 현황

	FTA	현황
발효중	한·Singapore FTA	2006.03 발효
	한·ASEAN FTA	2007.06 기본협정/상품교역협정 발효
	한·Vietnam FTA	2015.12 발효
협상타결-서명	RCEP	2020.11 서명
	한·Indonesia CEPA	2020.12 서명
	한·Cambodia FTA	2021.02 협상타결 공동 선언
협상중	한·Philippines FTA	2020.01 제5차 협상
	한·Malaysia FTA	2019.09 제3차 협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s://fta.go.kr>), 필자 발췌

- 우리나라와 ASEAN 간의 농식품 교역은 FTA로 대표되는 통상협력 시스템 발전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 말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8년간 이어져 온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타결되었음.
 - 한국과 ASEAN 외에 중국, 일본, 호주, NZ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은 시기적으로 미-중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경제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ASEAN이 중국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타결되어 한-ASEAN 차원에서는 장기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 단계 더 두터워진 의미도 있음(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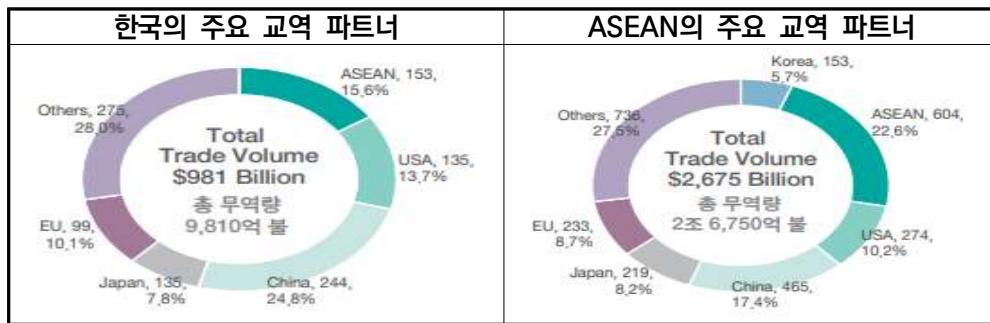
[그림 5-1] 한·ASEAN 통상협력 시스템 개념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s://fta.go.kr>) 를 기초로 필자 작성

○ 통상협력 시스템의 가동에 힘입어 한·ASEAN 교역은 지속해서 확대되어 2019년에는 총 교역 규모가 1,513억 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역총액의 15.6%에 해당함. 이렇게 우리에게 ASEAN은 중국에 뒤이어 제2의 교역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은 ASEAN의 5대 교역 상대국으로 각각 부상하였음 (그림 5-2).

[그림 5-2] 2019년 한국과 ASEAN의 주요교역 파트너



자료: ASEAN-Korea Centre, May 2020, 「2019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 이상과 같은 한·ASEAN 교역의 흐름은 농업통상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역 규모 특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경우 ASEAN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교역액의 15.1%(수출 19.5, 수입 14.2)를 차지하고 있음(표 5-6).

[표 5-6] 한·ASEAN 농림축산식품 교역현황(2019년)

	전 체(A)	ASEAN(B)	B/A(%)
수 출(X)	7,025 백만불	1,372	19.5
수 입(M)	34,305	4,874	14.2
합 계(X+M)	41,330	6,246	15.1
수 지(X-M)	-27,280	-3,502	1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5, 「2019년도 농수산물 수출입 동향 및 통계」

- 수출시장구조 측면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을 수입해가는 국가는 16개국인데 그중 44%인 7개국이 ASEAN 국가들임(Vietnam, Thailand, Indonesia, Philippines, Singapore, Malaysia, Cambodia)⁴².

○ ASEAN으로 수출되는 주요 농식품은 담배와 라면, 음료 등 가공 농산물과 식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배, 딸기, 버섯 등 일부 신선농산물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농식품 교역이 크게 늘면서 농업통상 부문의 한·ASEAN 협력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한-ASEAN 농업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성과가 결코 완성형일 수는 없으며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협력 확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ASEAN 농업협력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임.

2.1.2 도전과제와 시사점

① 한-ASEAN 교역수지 불균형

- 한-ASEAN 교역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對 아세안 교역수지 흑자가 FTA를 계기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2019년에는 흑자 규모가 37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0년 대비 19.3배나 증가한 수준이며 그렇게 심화하여 가고 있는 교역수지 불균형 문제가 당면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표 5-7).

4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5, 「2019년도 농수산물 수출입 동향 및 통계」

[표 5-7] 한국의 對 ASEAN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	2010	2015	2019
ASEAN	수출(A)	20,135	53,195	74,824	95,379
	수입(B)	18,173	44,099	45,031	57,986
	수지(A-B)	1,962	9,096	29,794	37,393

자료: ASEAN-Korea Centre, May 2020, 「2019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필자 편집

○ 이와 같은 한-ASEAN 교역구조의 불균형이 농업부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농업통상 협력 증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원론적으로 교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한-ASEAN 양측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늘리면서 점진적으로 교역수지 흑자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연간 35억 달러 규모의 교역수지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농식품 부문이(표 5-6), 교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수입확대를 주도하는 전략은 논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성 있는 대안도 아님.

- 따라서 한-ASEAN 교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업통상 분야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내 설명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② 특정 ASEAN 국가에 편중된 교역구조

○ 한-ASEAN 교역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입 비중이 Vietnam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임.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對 ASEAN 교역에서 Vietnam 비중이 45.9%를 점하고 있으며 ASEAN 에 수출되는 한국상품의 절반이 Vietnam을 향한 결과 한-ASEAN 교역수지 흑자의 무려 70%가 한-Vietnam 교역에서 발생하는 모양이 되었음.

[표 5-8] 한국의 對 ASEAN 교역구조(2019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수출총액 (C)	수입총액 (D)	교역총액 (C+D)	교역수지 (C-D)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對 ASEAN(A)	95,379	57,986	153,365	37,393	1,372
對 Vietnam(B)	48,304	22,088	70,392	26,216	514
B/A(%)	50.6	38.1	45.9	70.1	37.5

자료: (1) ASEAN-Korea Centre, Feb. 2021, 「2020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5, 「2019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및 통계」, 필자 편집

- 이처럼 Vietnam에 편중된 비대칭적 교역구조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계가 현지에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작된 자본재, 그리고 중간재와 원자재 등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지만 對 ASEAN 농림축산식품 수출 시장의 Vietnam 비중도 37.5%에 달함.

- 결국, 그동안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던 한-ASEAN 교역의 실제 모습은 한-Vietnam 교역 확대의 다른 얼굴인 셈이며, Vietnam과 역내의 다른 ASEAN 국가들과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역구조 다변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③ 시장여건의 변화와 농식품 교역 지원

-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한국과 ASEAN을 포함한 각국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농식품 교역에도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즉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을 계기로 건강과 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COVID 19의 종식과 함께 사라질 성질의 것이라는 증거나 전망은 아직 없음.

-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위생과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형태의“SPS조치(위생/검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사실 SPS 문제가 한-ASEAN 농식품 교역 과정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현안으로 가시화되는 사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 농업통상 분야에서 한-ASEAN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PS 조치 같은 비관세 장벽을(NTB)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나 COVID-19를 계기로 무역장벽이 더 심화 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한-ASEAN 농식품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여건 변화를 예측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aT) 따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SEAN 국가들도 COVID-19 영향을 받아 비대면 온라인시장 확대, 생산-유통 과정의 식품안전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배송모델 확산 등 농식품 시장여건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⁴³

- 정부와 aT는 수출 선도조직 육성, 전문인력 양성, 수출 Network 구축,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⁴⁴
- 그러나 COVID-19 이후 수출 시장이 변화를 이어 가고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등 통상환경의 변화와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⁴⁵

2.2. 해외농업투자 분야 (FDI)

2.2.1 해외농업투자 지원정책과 성과

-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정부가 직접 주도한 해외농업 이주사업과 그 후 민간기업들의 해외농업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실패로 귀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2007~2008년의 글로벌식량위기를 계기로 다시 시작된 해외농업투자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한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우리 농식품 산업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기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은 당시의 목적에 맞게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옥수수, 콩 등 곡물 생산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 국가와 품목이 다양화되고 영농자재와 농산물 가공 등 사업유형이 다각화되면서 해외농업투자를 지원하는 의미가 더 넓어졌음. 즉 현재의 해외농업투자 지원사업은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측면과 농식품 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외연 확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 글로벌 식량 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9년에 정부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2009~2018)”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에 금융지원 등을 시작한 바 있음.

4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07,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한국 농식품 수출전망“

4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s://global.at.or.kr/>

45 2019년 10월 개최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가 새로운 협상 타결 시까지 기존의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되 향후 협상 시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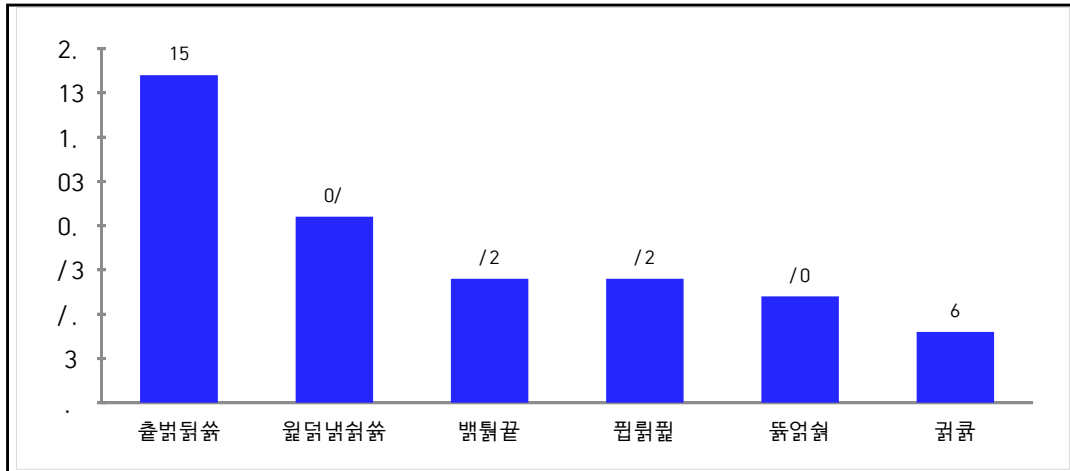
- 그 후 2012년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해외농업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보완한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하였음. 뒤이어 2018년부터는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음.⁴⁶
-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지원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선진기술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영농자재, 농산물 가공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로 농산업 전반의 해외기반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동 종합계획은 동남아시아의 진출 전략과 관련하여 ODA 사업 연계와 선진기술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ASEAN 농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면서 진출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융자와 컨설팅, 해외농업환경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134억 원이 지원되었고(용자 1,845, 보조사업 290) 2021년에는 9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용자 69, 보조사업 25).⁴⁷ 또 이와 같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 개발처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해외농업투자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 말까지의 누적신고 기준으로 202개 기업이 32개국에서 해외농업투자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53%인 106개 기업이 ASEAN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Cambodia와 Indonesia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고 Vietnam, Philippines, Laos가 뒤를 잇고 있음(그림 5-3).

⁴⁶ 농림축산식품부, 2018.1,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6호

⁴⁷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정책홍보(분야별 정책), <https://www.mafra.go.kr/mafra/1270/subview.do>

[그림 5-3] ASEAN 국가별 한국의 농업투자 기업체 수

(단위 개)



자료: 이은수, 2021.5, “동남아시아 농업투자 진출현황”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Global Agro Network 포럼 자료.

- 해외에 진출한 기업당 농업투자 규모는 1~10억 원이 35%, 10~100억 원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토지확보와(33.0%) 건물 및 설비구축(29.5%)에 사용되고 있음. ASEAN 진출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옥수수, 카사바 등 곡물과 사료작물 생산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오일Palm, 열대과일 생산·유통, 사료제조업 등으로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음.⁴⁸

2.2.2 도전과제와 시사점

① 정부와 민간기업 성과의 한계

- 2009년“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시행 이후 정부가 주도한 Philippines과 Indonesia의 농산업복합단지 사업과(MIC)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도한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 저조 등으로 중단된 바 있음.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동남아에 진출한 농업투자 신고기업 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⁴⁹

- 이는 우리가 해외농업투자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달성한 성과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의미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곡물의 공급기반을 해외에서 확보한 실적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해외정착 실적 모두 지난 12년간의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48 이은수, 2021.5, “동남아시아 농업투자 진출현황”(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Global Agro Network 포럼 자료.

49 농림축산식품부, 2018.1,“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2018-6호

아직 미진한 현실임.

- 이러한 우리의 시행착오 경험이 시사하는 교훈은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농업투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요건인 만큼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함.
 - 다만 장기투자과 고위험이 따르는 해외농업투자의 특성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소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 지원이 단편적일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관협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② 농지확보 관련 제약요인

- 농업투자에서 토지확보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기본요소이며 이는 해외농업투자도 마찬가지임. 한국기업의 농업투자 진출의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경지면적이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고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 또 해외 투자기업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의 지분투자 상한선이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임차 기간도 한정되어 있음(표 5-9).

[표 5-9] 주요 ASEAN 국가별 외국인 토지임대 제도

	Cambodia	Indonesia	Vietnam	Philippines
외국인 토지소유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외국인 토지임차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농지제도		임대권	토지사용권 거래 가능	
토지 임차기간	70년	35년 (연장 25)	50년 (연장 20)	국유 25년. 사유 50년 (연장 25)
외국인지분 상한	49%	49%	49%	40%

자료: 이대섭, 2016.12, "해외농업개발 현황", 「해외농업개발학의 이해」(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특히 과거 계획경제를 경험한 후 시장경제를 도입한 체제전환국의 경우 재정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농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임. 그러나 토지확보와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제도적 제약요인 외에 등기제도 미비, 농지거래 브로커의 성행, 행정의 투

명성 부족 등이 농지확보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들로 인하여 대규모 농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對 ASEAN 농업투자에 시사하는 바는 대규모 농지확보가 필요한 곡물 생산보다는 제한된 토지를 사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작목을 선정하거나 재배업보다는 수확 후 가공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큰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음.

③ 열악한 농업생산 및 유통 인프라

○ ASEAN 국가들은 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 투입 자재 관련 산업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지의 영농사업에 투자한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의 투입 자재를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더하여 농산물 수확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별, 저장, 가공, 물류 등에 필요한 시설이 열악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도·소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가격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처럼 ASEAN 국가들의 열악한 영농여건은 해외농업투자자 관점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첫째, 투자대상 업종의 선택에 관한 시사점임. 열악한 농업여건으로 인한 장애요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영농분야 사업에 올인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장 여지가 충분한 영농자재산업이나 계약재배 및 가공-유통사업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둘째, ASEAN 국가에 농업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 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질 입지선정과 관련한 시사점임. 특히 기후-토양 측면에서 작물 재배에 부적합한 지역, 수확후 저장, 가공, 물류 등의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 이미 선발주자들이 많이 정착하여 투입원료 조달과 농산물 판매 과정의 경쟁이 심한 지역 등을 피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이의 보완과 관련된 시사점임. 이 경우 단독 진출보다는 영농 투입 자재 산업이나 가공유통 산업 등과 연계 진출 또는 연계지원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며 성공을 이끌어내는 접근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투자 지원과 ODA 사업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농업투자의 불확실성

- 해외농업투자 사업은 대상 국가의 영농환경, 생산과 유통 인프라 외에도 정치, 경제 상황과 국내외 가격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이며,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투자자로서는 관련 정보, 법률, 제도 등에 익숙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즉 해외농업투자 사업은 불확실성이 큰 고위험 사업이며 면밀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보인 사업임.

-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내실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브로커 등에 의지하는 사례는 현지 농업 환경과 문화에 친숙한 전문가 양성 및 참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할 과제 중 하나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ASEAN 농업투자 진출기업 대부분은 단독투자 형태이었음. 농업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대안으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 단독 투자에 비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지 정착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함.

2.3. 농업개발 협력 분야(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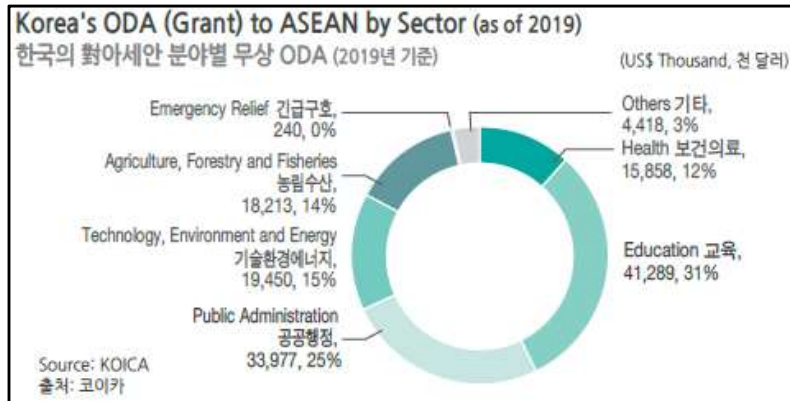
2.3.1 농업개발 협력 추진체계와 성과

-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4번째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제정된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법 제7조에 의거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유무상 ODA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은 42개 기관이 추진하는 1,682개의 양자-다자 원조사업 총액은 3조 7100억 원에 달함. 그중 1조 6230억 원이 양자 원조이며, 분야별로는 농림수산분야가 8.7%를 점하면서 교통(15.3%), 보건(11.7%), 교육(9.9%)과 함께 4대 분야를 구성하고 있음.⁵⁰

50 관계부처합동, 2021.1, “2021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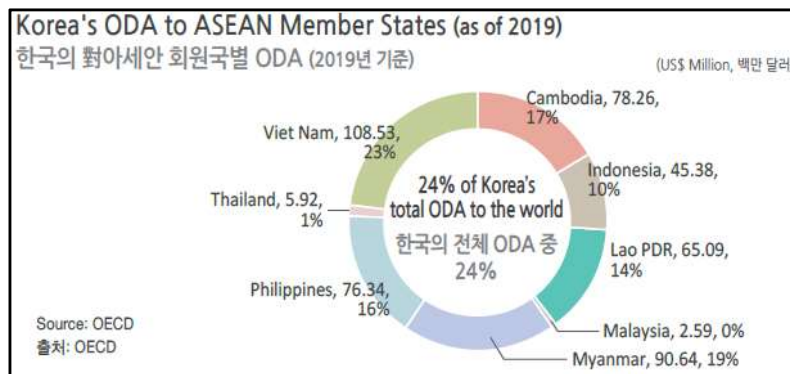
- 우리나라 ODA의 24%가 지원되는 ASEAN은 농수산분야가 14%를 점하고 있어, 전체대비 농수산분야 지원 비중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국가별로는 Philippines(16%)과 Indonesia(10%) 외에 ASEAN에 뒤늦게 합류한 체제전환국 Vietnam(23%), Myanmar(19%), Cambodia(17%), Laos(14%)가 주요 대상국임(그림 5-4, 그림 5-5).

[그림 5-4] 對 아세안 분야별 ODA(2019년 기준)



자료: ASEAN-Korea Centre, May 2020, 「2019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그림 5-5] 對 아세안 국가별 ODA(2019년 기준)



자료: ASEAN-Korea Centre, May 2020, 「2019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 이는 우리가 상기 6개국을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원한 결과로 이해되며, 이 6개국은 OECD 수원국 리스트를 기준으로 보면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또는 중하위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임. ASEAN의 나머지 4개국은 고소득국가로 수원국 그룹에 속하지 않는 Singapore, Brunei와 중상위 소득 국가로 원조받기를 원하지 않는 Malaysia와 Thailand로 구성됨. 결국, ODA를 통한 한-ASEAN 농업협력 강화 논의는 중점협력대상 6개국에 국한된 주제가 된 셈임(표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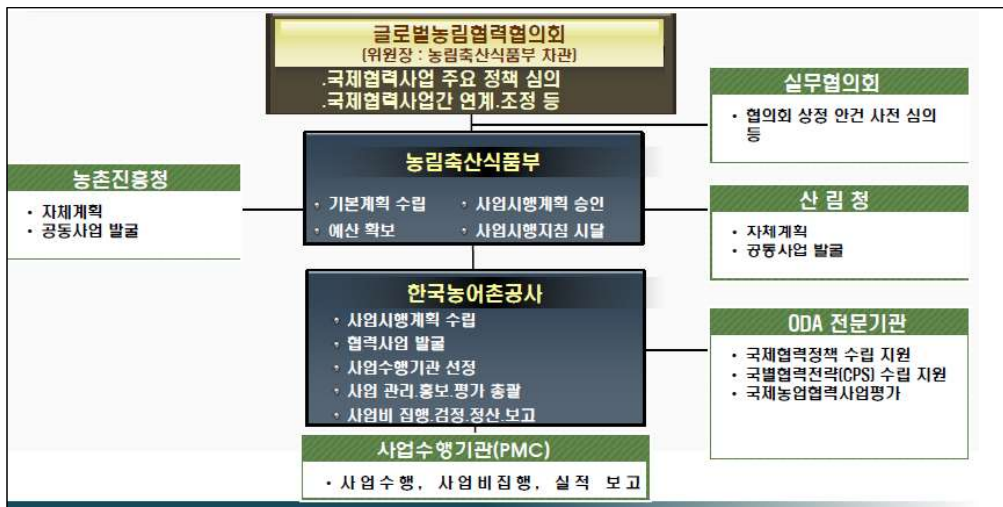
[표 5-10]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 리스트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which are not LDCs (per capita GNI \$1006-\$3955 in 2016)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which are not LDCs(per capita GNI \$3956-\$12235 in 2016)
Cambodia (LM) Lao PDR (LM) Myanmar (LM)	Indonesia (UM) Philippines Viet Nam	Malaysia Thailand

자료: 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 필자 편집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은 정책컨설팅과 초청 연수사업을 위주로 하던 초기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 농업과 농촌현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분야의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의체인“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가 운용되고 있음.⁵¹ 동 위원회는 ODA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의 활동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관 간/사업간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높은 성과를 추구하고 있음(그림 5-6).

[그림 5-6] 농업 분야 ODA 사업 추진체계도



자료: 최병국, 2015.12.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농림축산식품부 워크숍 발표자료

○ 이와 같은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ODA 사업은 농촌개발 및 빈곤 해소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며 매년 사업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8년부터는 국내산 쌀을 활용한 460억 원 상당의 해외 식량 원조사업이 더해

51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외에“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면서 그 규모가 급증하여 2021년에는 사업 예산이 828억 원에 달하고 있음. 현재는 13개국(아시아 8, 아프리카 3, CIS 및 중남미 2)과 4개 국제기구 (FAO, ADB, UNDP, WFP)를 대상으로 4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표 5-11).

[표 5-11]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ODA 예산과 사업 수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사업비(억 원)	49	105	141	156	651	670	828
사업 수(개)	17	18	18	25	30	33	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정책홍보(분야별 정책)

2.3.2. 개선과제와 시사점

○ 그간 이룩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양적 확대가 항상 질적인 개선을 동반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과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도 있음. 이하에서는 대내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대외적으로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 관련 시사점을 탐색하는 시각에서 사업단계별로 개선과제를 정리함.

① 사업기획 단계의 개선과제

○ ASEAN 국가들과의 농업개발 협력 시작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충실한 사전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장애 요인에 직면하거나 성과가 부실한 경우 사실은 시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대상 지역과 입지, 지역주민 현안, 대상 품목 또는 시설-장비의 종류나 규격 등이 현지 사정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다시 말하면 기획단계의 부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는 수원국 수요에 적합한 사업발굴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해당국과의 소통체계 수립-운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체계적인 소통을 통하여 ASEAN 수원국의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수원국 시각에 과도하게 편중된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수원국들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ODA 사업의 종류가 너무 방만해지고 한국 농업 분야 ODA의 전문성, 효율성, 경쟁력 제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는 수원국의 ODA 수요와 우리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조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핵심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를 한국농업 ODA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수원국들의 수요와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이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성가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ODA 수요도 집중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음.

② 사업 시행단계의 개선과제

- 정부의 공식절차를 거쳐 확정된 ODA 사업계획을 현장에서 시행하다 보면 기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임. 이 경우 사업수행 주체가 현지 정부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율-보완하기보다는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의 불완전한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사업성과를 희생하는 사례도 있음.
 - 이는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 주체, 현지 이해관계자들 간 의사소통의 경직성에 기인하며 최근 COVID-19로 인한 출장과 대면접촉 제한으로 인하여 소통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임.
 -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농업 ODA 사업 관계자 간 소통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③ 사업종료 이후의 개선과제

- ODA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한국 전문가가 철수한 뒤 현장점검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초 의도한 ODA 사업성과를 확산하는 현상이 아닌 실패사례의 현장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음. 이는 농업 ODA 사업이 이미 종료된 사업의 후속 사업이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보완사업보다는 신규사업 위주로 시행된 후 종료되고 있음을 의미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 기간이 KOICA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⁵², 사업 기간에 신축성이 없어 기존사업의 보강사업 등을 추가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는 종료 사업 모니터링과 신규사업 환류, 후속 및 보완

52 허장, 2021.5,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제2차 포럼 발표자료”

사업 시행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시사하고 있음.

④ 사업추진체계 개선과제

○ 농림분야 ODA 사업의 양적인 팽창이 지속된 결과 2021년에는 예산 규모가 1,257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농식품부 828억, 농촌진흥청 261억, 산림청 168억),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농업협력 전담조직” 신설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전담조직 신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있으며, 동법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의 장, 협회,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ODA 사업 촉진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동법이 제정 당시 ODA 관련 규정 이 없던 구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 법외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도 불일치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국제농업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에 맞추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과 동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시사하고 있음.

2.4. 기타 농업협력 분야

2.4.1 지역식량안보(Food Security)

(1) 동아시아 지역식량안보 협력시스템

○ 한국과 ASEAN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중,일 포함)의 식량안보 협력시스템으

로“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를 내놓을 수 없음. APTERR는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여 사전에 약정된 양의 쌀을 비축하고, 비상시에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 또는 무상지원하는 일종의 지역국가간 쌀 공공비축제도임.

- 2011년 10월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합의된 APTERR 협정은 과거 ASEAN 회원국 간에 추진된“아세안 비상 쌀 비축제도(AERR; ASEAN Emergency Rice Reserve)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이 AERR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닥쳐온 2008년 글로벌 식량 위기를 계기로 합의된 APTERR 협정은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ASEAN과 한-중-일 13개국 간 공동노력의 결실인 셈임. 현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제7조; APTERR Council)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상설 사무국(제8조; APTERR Secretariat)이 설치-운영되고 있음.⁵³

○ APTERR에 의한 쌀 비축방식은 쌀을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사전약정 방식(Earmark)과 사무국을 통해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Stockpile)이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APTERR의 식량 지원 Program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Tier 1 Program(선도계약)으로 지원국과 수요국이 일정한 물량을 공급하는 선도계약(Forward contract)을 체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이행하는 형태로 쌀을 지원하는 방식임. 이 경우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상거래가 원칙이며 현재 APTERR 협정에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비축량(Earmarked Emergency Rice Reserve)은 아래와 같이 78만7천 톤이고 우리나라 약정분은 15만 톤임(표 5-12).

- 둘째는 Tier 2 Program(긴급 구매자금지원)으로 Tier 1 Program에 의한 선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나 약정물량이 소진된 경우 수요국의 요청으로 긴급 쌀 구매자금을 현금이나 장기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임.
- 셋째는 Tier 3 Program(무상지원)으로 지원국이 직접 또는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쌀을 보관하고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미발생시 빈곤퇴치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임.

⁵³ ASEAN, 7 Oct. 2011,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 Adopted by 11th AMAF Plus Three Meeting

[표 5-12] 국가별 비상 쌀 약정 내용

국 가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합계
쌀 약정량	87 천톤	150	250	300	787

자료: APTERR 협정 Attachment 1

○ APTERR 협정 제6조는 이와 같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APTERR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협정 부속서 2에 따라 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기금을 분담하였음. 첫째, Plus Three 그룹인 한-중-일 3국은 각각 1,000천 달러, 둘째, 최빈국 그룹에 속하는 Cambodia, Laos, Myanmar 3국은 각각 83천 달러, 그리고 나머지 ASEAN 7개국은 각각 107.5천 달러를 분담하여 약 4백만 달러의 “APTERR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음.

- APTERR 출범 후 '21.6월까지 지원된 쌀은 총 28천 톤이며 비상 쌀을 공여한 국가는 한-중-일과 Malaysia, Thailand 5개국이고 수원국가는 Cambodia, Laos, Myanmar, Philippines, Vietnam 5개국임. 그동안 우리나라는 Tier 3 Program을 통하여 17,000톤의 쌀을 ASEAN 5개국에 지원하였음(표 5-13).

[표 5-13] 우리나라의 APTERR Tier 3 비상 쌀 지원실적

	수원국/지원사유	쌀 지원(톤)
2017	Myanmar(500), Cambodia(250)/재해대비용	750
2018	Vietnam/태풍(담레이)	10,000
	Myanmar/홍수	1,300
	Laos/홍수	1,000
2019	Myanmar(500), 라오스(500)/재해대비용	1,000
2020	Philippines/지진·태풍	1,950
	Myanmar(600),Philippines(400)/재해대비	1,000
합 계		17,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APTERR 지원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

○ 한편 APTERR와 함께 운영되는 다른 형태의 식량안보협력 시스템으로 “아세안 +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이 있다. 이는 역내 회원국의 식량에 관한 정보(경지, 기상, 작황, 가격, 수출입, 재고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DB를 구축-공유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실시간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및 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발전과제와 시사점

- 발족된지 9년째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 (APTERR)”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지만, 회원국 구성이나 주제 면에서 한-ASEAN 농업협력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APTERR 시각에서 보면 아직 성과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운영효율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ADB)가 APTERR를 분석하여 소개한 내용 중 개선과제와 관련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⁵⁴ 첫째, APTERR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쌀 비축량이 수요보다 너무 적다는 점임. 즉 APTERR의 쌀 비축량 787천 톤은 매일 500천 톤의 쌀을 소비하는 ASEAN 쌀 수요의 1.5일분 밖에 안된다는 것임. 둘째는 Tier 3 Program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자연재해 등 비상시의 긴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임 (사례: 2013년 Philippines 태풍피해 지원에 18개월이 소요).
- ADB Institute가 소개한 이 두 가지의 APTERR 발전과제는 한-ASEAN 농업협력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 되새겨 볼 만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2.4.2 농업 연구개발협력(R&D)

(1) 연구개발협력 제도와 성과

- 농업 R&D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특징이 있음. 특히 민간부문의 R&D 기반이 취약한 대부분 개도국의 경우 정부 역할이 불가피하여 국공립연구기관이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농업 R&D 협력도 정부 간 채널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례가 일반적임. 실제 농업기술 관련 ASEAN 국가들과의 R&D 협력은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두 가지 형태의 농업기술협력 활동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a)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각각 농업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기술을 공동개발하면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b)또 다른 한 편으로는 주요 개도국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로

54 Kunmin Kim, Aug. 2018, “Building Food Security in Asia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on Rice Reserves”, Policy Brief No. 2018-1, ADB Institute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전수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의 농식품기술협력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술협력 네트워크로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체(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가 있음. AFACI는 2009년 11월 각국이 “AFACI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출범한 농업기술 분야의 정부 간 다자협력체로서 현재 14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음.

- ASEAN 국가들 중에는 Singapore, Brunei, Malaysia를 제외한 7개 국가가 이에 참여하고 있어 한-ASEAN 농업협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장치임. AFACI는 이처럼 농업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체지만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기여하면서 리더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ODA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농업기술 관련 사업별 접근방식(Program based-approach)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AFACI는 지난 10여 년간 내병성 채소품종 개발기술 공유, 아시아지역의 이동성 병해충 발생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아시아 토양지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지역의 농업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또 각종 영농기술서를 개발·보급하고 아시아 유전자원의 중복 보존을 확대하여 농업자원 활용기반을 조성한 것도 AFACI의 성과임.

○ AFACI와 달리 국가별 접근방식(Country based-approach)으로 추진되는 국제 농업협력 활동으로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이 있음. 이는 개발도상국 현지에 KOPIA Center를 설치하고 한국의 농업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상대국이 요청하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는 사업임. 현재 22개국에 KOPIA Center가 개설되어 있으며 5개의 ASEAN 국가(Cambodia, Vietnam, Laos, Myanmar, Philippines)를 포함하여 아시아지역에서는 8개국이 참여하고 있음.⁵⁵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KOPIA를 통하여 각국의 여건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농가 실증 그리고 시범 마을 운영을 통한 농업기술보급 결과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약 8만 명의 현장교육이 이루어지고 1,200명가량의 연구원이 한국에 초청되어 농업기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⁵⁶

55 농촌진흥청 KOPIA, <http://itcc.rda.go.kr/kopia/portal/kopiaBiz/kopiaBizPresent.do?menuNo=1&languageGb=01>

56 농촌진흥청, 2019.5, “KOPIA의 10년을 되새기다”,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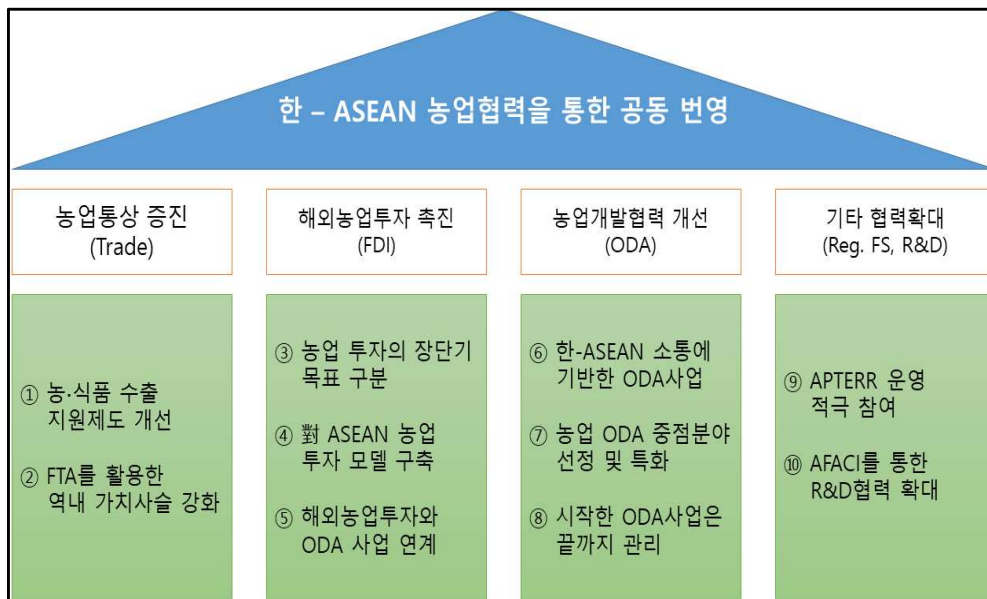
(2) 발전과제와 시사점

- 이와 같이 AFACI와 KOPIA Center 모두 농업 R&D 및 기술보급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대상에 ASEAN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ASEAN 농업 협력 차원에서 의미가 크지만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 즉, AFACI의 경우 14개 회원국이 기초농업기술, 식량작물, 원예작물, 농업 기술보급, 축산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의 현실적인 여건상 농촌진흥청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재원조달 및 사업운영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나 사업당 지원금 규모가 연간 1~2만 달러로 영세하여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 KOPIA Center의 경우도 보조 인력으로 단기 파견전문가와 연수생 등이 수시로 파견되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상주 전문가는 소장 1인밖에 없어 성과도출이나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3. 과제별 농업협력 확대전략

- 본 항에서는 지금까지 전략 분야별로 살펴본 도전과제와 시사점에 착안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 중 한-ASEAN 농업협력 확대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을 선정하여 실행전략과 함께 제시함.

[그림 5-7]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전략 체계



3.1. 농업통상 증진(Trade)

3.1.1.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 개선

- 선정배경
 - 상술한 바와 같이 ASEAN 농식품 시장은 우리와 같이 COVID-19 영향을 받아 비대면 온라인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배송모델이 개발되는 등 시장여건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 지금까지 농식품 수출의 대표적인 지원수단으로 수출 증대에 많은 기여한 수출물류비 지원도 변화를 맞게 되었음.
 - 즉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말까지 농식품 수출 보조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⁵⁷, 우리 정부가 이미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57 2015.12 제10차 WTO 각료회의 결과: 선진국은 농식품 수출보조를 즉시 철폐,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 단, 개도국 수출물류보조(WTO 농업협정 제9.4조)는 2023년 말까지만 허용

로 선언한 바 있어.⁵⁸물류비 지원은 단계적 폐지 순서를 밟아 가고 있음. 한-ASEAN 농식품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속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하여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주요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음.

○ 실행과제

- 〈실행과제1〉 aT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들을 WTO의 “농산물 수출 보조 폐지 원칙” 차원에서 재검토하되, 특히 향후 ASEAN 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완→ 새로운 여건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ASEAN 교역 증진 유도
- 물류비뿐 아니라 모든 수출지원사업이 수출보조(WTO농업협정 제9조)가 아닌 국내허용 보조(제7조 및 부속서 2) 요건에 맞도록 보완하고, 비허용 국내 보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De Minimis(제6조 4항) 범위내에서 운용되도록 안정적인 지원제도 구축
 - 국내외 시장 구분 없이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등을 강화하여 WTO 협정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수출지원제도 전환

3.1.2. FTA를 활용한 역내 가치사슬 강화

○ 선정배경

- 한-ASEAN 교역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Vietnam에 편중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농식품 부문이 수입확대를 주도하거나 비Vietnam 국가를 특정하여 공략하는 접근은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내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Vietnam 국가들과의 기존 FTA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출입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는 전략을 선정하였음.
- 특히, 특정 국가에 교역 대상국이 편중되는 경우 글로벌 리스트에 대한 대응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과의 수출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으로 ASEAN 국가들과의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교역 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58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2019.10.25.,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 실행과제

- 〈실행과제2〉 최근에는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들의 가치사슬 확대에 있어서 ASEAN 지역 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와 새로운 FTA를 시작하거나 협상 중인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는 Vietnam과 경제 규모가 유사하거나 커 한-ASEAN 교역구조개선 효과 기대
 - 최근 협상이 타결된 “한-Indonesia FTA와 한-Cambodia FTA가 발효와 동시에 교역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Malaysia 및 한-Philippines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함.

3.2. 해외농업투자 촉진(Investment)

3.2.1. 對 ASEAN 농업투자의 장단기 목표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

○ 선정배경

-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상시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을 재배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며 전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에 상존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로 인하여 고위험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음.
- 그동안 해외농업투자 사업에서 실패사례가 흔한 분야는 해외 곡물 재배업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교훈은 해외농업투자 사업의 특성을 경시한 채 추진한 단기적인 전략들이 해외투자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장기목표 달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해외농업투자 기업이 현지에 정착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곡물을 확보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전략은 사실상 실패가 예고된 측면이 있음. 향후 對 ASEAN 농업투자에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투자의 장단기 목표를 구분”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음.

○ 실행과제

- 〈실행과제3〉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공급기반 구축”을 對 ASEAN 농업투자 사업의 장기목표로 유지하되, 이보다 더 시급한 “해외농업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단기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투입재-영농-저장-가공-물류-판매 등 Value Chain 전 단계를 분석하고 현지 여건과 투자기업의 강점을 감안하여, “곡물 자원확보”라는 장기목표와 직결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생존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진출하여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성공모델을 Value Chain 전후방 단계 또는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3.2.2. ASEAN 지역에 적합한 농업투자 모델을 구축하여 성공유도

○ 선정배경

- ASEAN 지역은 신대륙 국가나 연해주 지역 등과 달리 대규모 농지확보에 제약요인이 많고, 농업생산 및 유통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여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보다 이와 같은 ASEAN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농업투자 모델이 필요함.

○ 실행과제

〈실행과제4〉 전술한 “단기목표”를 전제로 요청되는 ASEAN 지역의 투자모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재배품목: 제한된 토지를 사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곡물
- 대상 업종: 여건이 열악한 농장개발 사업보다 자재 또는 가공·유통사업
- 접근 전략: 영농으로 시작하여 유통으로 진출하는 Model보다는 반대 모델
- 위험감소: 단독투자 외에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또는 지분참여도 고려
- 입지선정: 사전검토를 통하여 부적합한 기후·토양, 열악한 저장·가공·물류 인프라, 원료조달과 판매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과 경쟁이 심한 지역 제외

3.2.3. 농업투자와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상호보완 여건 조성

○ 선정배경

-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투자대상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제도 등을 보완하여 해외농업투자 사업의 고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ODA 사업과의 연계방안이 자주 거론됐음. 그러나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ODA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해외농업투자와 직접 연계될 경우 본질이 훼손된 ODA라는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과제를 해외농업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선정하였음.

○ 실행과제

〈실행과제 5〉 먼저 해외농업투자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지원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들로부터 현지에서 요구되는 ODA 사업 리스트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작업이 선행된 다음, 이를 ODA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에 반영하고 ODA 사업계획을 지원받는모양을 갖추어 해외농업투자 계획을 구체화함.

- 사업기획 단계에서 해외농업투자와 ODA 사업을 간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ODA 사업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고, 상대국 정부와 주민들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면서, 해외투자의 고위험을 완화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되도록 운용

3.3. 농업개발 협력 개선(ODA)

3.3.1. ASEAN과의 소통에 기반한 ODA 사업 형성과 시행

○ 선정배경

- ASEAN 측의 수요와 우리 측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조화시켜 ODA 사업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ODA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ASEAN 간 그리고 사업 참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 요소인바 향후 이러한 소통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음.

○ 실행과제

〈실행과제6〉 ODA 사업발굴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ODA Forum” 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정례화/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대화를 진행하여 수원국의 참여 속에서 농업 ODA 사업이 형성되도록 제도화 해야함.

- 연례 ODA Forum 및 AMAF+3 회의 계기에 ASEAN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농업 ODA 사업 “Monitoring Session”을 설치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협의 →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여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해야함.

3.3.2. 농업 ODA의 5대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특화

○ 선정배경

- 전술한 바와 같이 ASEAN 10개국 중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은 6개국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Indonesia, Philippines)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국가별 농업여건, 개발전략,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CPS, 우리 ODA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 분야로 12개를 선정한 바 있음.⁵⁹ 그러나 국가별로 선정된 분야의 내용이 중복되고 유사하여 이를 4개 분야 정도로 압축이 가능함. 여기에 최근 ASEAN 각국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농업 ODA의 5대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음.

○ 실행 과제

- 〈실행과제7〉 KREI 선정결과를 압축한 4개 분야와 최근에 부상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1개 분야를 한-ASEAN 농업ODA 5대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함.
- 이렇게 선정된 5대 중점협력분야는 (a)농촌종합개발 사업, (b)농업자재 및 생산성 향상사업, (c)수확후관리와 유통사업, (d)농업기술보급 및 인력육성사업, (e) 스마트 농업(온실, 데이터, 인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패키지) 사업
 - 5대 중점협력 사업을 ASEAN 측에 제시하며 수원국 수요와 조화를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특화하고 전문화하여 한-ASEAN ODA의 상징적인 분야를 구체화

3.3.3. 한번 시작한 ODA 사업은 끝까지 관리하는 정책기조와 관행 정착

○선정배경

- 지속가능성 보장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지원활동을 종료하고 종료된 사업의 사후관리 활동이 미미하여 현장의 문제를 축적해 가는 사례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ODA정책이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료에 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긴요한 점을 감안하여 전략과제에 포함.

59 허장 외 6, 2017.12,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244.(동 연구는 ASEAN 6개국과 몽골을 대상으로 함)

○ 실행과제

〈실행과제8〉 사업종료 전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에는 보완 사업 또는 후속사업을 차년도 사업 리스트에 포함하여 시행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PMC, 주민, 공무원이 한 팀이 되어 추진하는 체제를 정착시켜 PMC가 철수하더라도 담당 공무원 지도하에 자체운영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설·장비 지원은“계획수립➡ 관련자 교육 훈련➡ 시설 장비 지원”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추진하여 지원된 시설·장비 방치되는 사례 예방
- 신규사업 일변도의 사업계획을 지양하고 매년 ODA 예산의 일부를 “종료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와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보완사업 또는 후속 사업”에 활용하여 농식품부가 시작한 ODA 사업은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관리하는 관행을 정착

3.4. 기타 분야 협력 확대

3.4.1.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 운영에 적극 참여

○ 선정배경

- 일정량의 쌀을 비축하고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APTERR 제도는 지역식량안보 차원 뿐 아니라 한-ASEAN 농업협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아직은 쌀 비축 규모가 너무 적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 등이 발전과제로 남아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실행과제

〈실행과제9〉 비상시 지원을 위한 Tier 3 Program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하고 절차와 기간단축 가능성을 검토함.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실행가능한 대안이 마련되면 이를 AMAF+3회의에 “Tier 3 Program 신속대응 절차”로 제안하여 한-ASEAN 농업협력 차원에서 제도발전을 주도

- 쌀 비축규모와 관련하여 APTERR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물량은 “초기 단계”의 약정 물량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증량노력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계획은 ASEAN 외에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보면서 판단할 사안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WFP를 통해 지원되는 쌀의 일부가 ASEAN 지역에 지원되도록 함으로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4.2.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체(AFACI)를 통한 對 ASEAN R&D협력 확대

○ 선정배경

-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지원 규모가 대단히 영세하지만, AFACI는 농촌진흥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협의체로서 아시아지역의 농업기술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음. 이 AFACI는 한-ASEAN 농업협력을 위한 채널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보아 협력과제로 선정하였음.

○ 실행과제

〈실행과제10〉 지원규모의 영세성 해소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가 문제의 본질인바 성질상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과제로 중장기적인 R&D 기반으로 과제를 재편하고 대규모화하여 사업 목표 성과달성에 다가가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아래와 같음.

- 정부의 AFACI사업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영세성 해소
- 과제종료 기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연구과제 수 축소함으로써 과제당 지원액 인상
- 각국에서 시행되는 ODA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AFACI의 R&D 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AFACI 지원 외에 연계사업의 R&D 관련 지원이 추가되도록 하여 AFACI사업의 영세성을 완화하는 안 등

3.5. 농업협력 중장기 로드맵

- 한-아세안 농업협력 확대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은 전항에서 제시된 11대 전략별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이 순서임. 따라서 먼저 실행과제 각각의 특성과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준비, 우선순위, 시행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들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표 5-14).

[표 5-14] 한-아세안 농업협력 실행과제 관련 고려사항

농업협력 확대 전략별 실행과제	로드맵 검토 관련 고려사항
①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	
o. 수출지원 사업을 “WTO 수출보조 폐지” 차원에서 재검토	- 참고: 수출물류비 2023년까지만 지원 - 수출물류비 폐지엔 따른 대안마련 필요
② FTA를 활용한 역내 가치사슬 강화	
o. Indonesia, Cambodia, Malaysia,	- Indonesia, Cambodia FTA: 발효와 동시에

Philippines FTA를 활용하여 한-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	GVC 구축에 활용될수 있도록 홍보 - Malaysia, Philippines FTA 협상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입대상국 다변화 필요
③ 對 ASEAN 농업투자의 장단기 목표를 구분하여 운영	
o. 장기목표 외에“해외농업투자 기업의 현지정착”을 단기목표로 추가	- 참고: 관련법에 부분적으로 기 반영 - 시행: ASEAN 농업투자 지원기준 등에 적용 가능한 단기과제
④ ASEAN에 적합한 농업투자 모델 구축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곡물 - 가공/유통 시작→ 농장개발로 확대 - 현지기업합작 또는 지분참여 고려	- ASEAN 농업투자 지원기준 등에 적용 가능한 단기과제
⑤ 농업투자와 ODA사업을 연계하여 상호보완	
- 해외농업투자와 연계가능한 사업을 ODA사업 발굴/기획 단계에 반영	- 준비: ASEAN 농업투자자들을 상대로 연계가 요청되는 ODA사업 조사 - 시행: 이렇게 작성된 사업 리스트를 매년 ODA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반영
⑥ ASEAN과의 소통에 기반한 ODA사업 형성과 시행	
- “Global ODA Forum”을 정례화/ 활성화하여 ASEAN 소통채널화	- 단기간 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
⑦ 농업 ODA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특화	
- 농업 ODA 5대 중점협력 분야 선정 - 단계적 사업범위 축소로 특화 유도	- 단기: ODA사업계획에 중점분야 반영 - 중기: 중점분야 사업범위 단계적 축소
⑧ 한 번 시작한 ODA사업은 끝까지 관리하는 정책기조와 관행 정착	
- 종료사업 모니터링제 도입 - 보완사업 또는 후속 사업 실시	- 준비: ODA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 - 시행: 준비되면 단기간 내 시행가능
⑨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 운영에 적극 참여	
- “Tier 3 Program 신속대응 절차” 수립·제안	- 준비: 비상 쌀 지원 절차와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Tier 3) - 시행: ASEAN 10개국 및 중일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중기 과제
⑩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체(AFACI)를 통한 R&D협력 확대	
- AFACI사업의 영세성 해소를 위하여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및 운용규모 확대	- 준비: 정부 예산 등 자원대책 마련 - 지원 및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필요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요약·정리된 농업협력확대 전략과 실행과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활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음.

[표 5-15] 한·아세안 농업협력 실행과제 중장기 로드맵

2022~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지원사업들을 WTO원칙에 맞도록 재검토 ② 신규 FTA 발효시 GVC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④ 對 ASEAN형 농업투자 모델에 따른 지원 개시 ⑤ 해외농업투자자와 연계 가능한 ODA사업 조사 ⑥ Global ODA Forum을 통한 소통강화 및 정례화 ⑦ 對 ASEAN 농업 ODA 5대 중점 분야 지원 개시 ⑧ 종료된 ODA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2024~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 물류비용지원제도 폐지(2024) ② 진행 중인 ASEAN 국가와의 FTA 협상 적극 대응 ⑤ 해외농업투자자와 연계된 ODA 사업 개시 ⑦ 對 ASEAN 농업 ODA 중점 분야 축소 / 특화 노력 ⑧ 종료된 ODA사업 후속 또는 보완사업 시행 개시 ⑨ APTERR 비상지원 절차 축소 검토 (Tier 3)
202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對 ASEAN 농업 ODA 중점 분야 축소 / 특화 노력 ⑨ APTERR 비상지원 신속절차 제안(Tier 3) ⑩ AFACI 사업 자원 확충 및 운영규모 확대

참고문헌

- 강우철, 2017. “일본 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30집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4, 회의자료, 국무총리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4, 회의자료,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합동, 2021.1,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2호)
- 김경량 외, 2015. 8, Korea’s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aemaul Undong: Transferability and Limitations, 한국협동조합연구 33집, 2권
- 김경량 외, 2013. 12. KSP 지식공유사업 평가 연구. 기획재정부.
- 김경량, 김경철, 2015. 12, SDGs 채택에 따른 농촌개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국제개발협력 4호, KOICA
- 김완배 외, 2012. 2, 해외농업개발협회의 발전방향, mimeo
- 김진오, 박미숙, 2019.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기초자료 제19권 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8.1,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6호
- 농림축산식품부, 2021, “APTERR 지원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2019.10.25., “정부, 개도국지위 포기결정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5, 「2019년도 농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정책홍보(분야별 정책), <https://www.mafra.go.kr/mafra/1270/subview.do>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정책홍보(분야별 정책), <https://www.mafra.go.kr/mafra/1271/subview.do>
- 농촌진흥청, 2019.5, “KOPIA의 10년을 되새기다”,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KOPIA, <http://itcc.rda.go.kr/kopia/portal/kopia-Biz/kopiaBizPresent.do?menuNo=1&languageGb=01>
- 문화체육관광부, “신남방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 박민지, 김경량, 2011. 3, 한국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선정에 관한 연구,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3권 1호.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20100413_asean.pdf
- 산업통상자원부, 2015.12, “제10차 WTO각료회의 결과”, 보도자료.
- 성진근, 2010, 한국농업의 외연확장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mimeo

이대섭, 2016.12, “해외농업개발 현황”, 「해외농업개발학의 이해」,
 (사)해외농업개발협회

이재영 외 10, 2015.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상현 외 4, 2016.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70.

이은수, 2021.5, “동남아시아 농업투자 진출현황”,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제1차 포럼 발표자료,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이지영, “일본의 대 ASEAN 전략의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4호, 2018

이해정, 2015,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한·러 수교 25주년 의미와 시사점
 -유라시아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VIP Report, 631권 0호 ,
 현대경제연구원.

정승은,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세계농업』 제 147호, 2012. 11

정효민, “일본 원조의 특징과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발전연구』 제28권 제2호: 93~122,
 2019.

최병국, 2015.12.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농림축산식품부 워크숍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호주 대외원조 개관”,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5호
 한국국제협력단, “일본 대외원조 개관”,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5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07,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한국 농식품
 수출전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s://global.at.or.kr>

허장, 2021. 5,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제2차 포럼 발표자료,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허장 외 6, 2017.12,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연구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허태호, 김경량, 2014. 6,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 연구,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26권 2호

ASEAN, 13 Dec. 2005,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ASEAN, 7 Oct, 2011,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
 Adopted by 11th AMAF Plus Three Meeting

ASEAN, 7 Aug, 2017,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Work Plan
 2018–2022”, Adopted by 18th ASEAN Plus Three Foreign Ministers'
 Meeting

ASEAN, 29 Sep. 2017,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Strategy o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2016-2025”, Adopted by 17th AMAF Plus Three Meeting

ASEAN-Korea Centre, May 2020, 「2019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AusAID, 2004, ASEAN and Australia: 30 yea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FAD, 2016, Fostering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Rural Development Report.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IICA) , 2021,
<https://www.iica.int/en/about-us/main>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2021,
<https://www.ifad.org/en/>
JICA, 2020, Annual Report.
JICA, 2013, JICA's Position Paper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March 13.
KOICA. 2017, 『KOICA 농산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KOICA, 2020. 6, Together KOICA, Vol.2, KOICA
Kunmin Kim, Aug. 2018, “Building Food Security in Asia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on Rice Reserves”, Policy Brief No. 2018-1, ADB Institute
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
World Bank, 2008,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agriculture's three worlds,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report.

<websites>

<http://aadcp2.org/about-us/>
<http://aadcp2.org/wp-content/uploads/The-Partnership-Approach.pdf>
<https://blog.naver.com/icidcc/221608736035>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https://donortracker.org/country/australia>
<https://donortracker.org/japan/agriculture>
<https://www.dfat.gov.au/geo/pacific>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List-ODA-Recipients-for-reporting-2021-flows.pdf>

